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3

성북동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기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필 | 박수진·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남기현(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한봉석(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김보라(성북구립미술관 관장)

김지은(성북구청 학예사)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자인 | 권이지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5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15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북구동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발간사 / 6

성북동, 만남과 꿈의 이야기를 열며 / 8

— 1부 — 만남의 역사

1장 | 조선시대의

성북동(1392~1910)

그 골목의 끝에 강릉이 있다 - 한양도성 성곽 / 18

숲 속의 유토피아 - 선잠단 터 / 30

개척자들 - 성북둔과 성북동포백혼조계 / 40

복숭아 심은 뜻은 - ‘북둔도화’ / 51

2장 | 일제강점기의

성북동(1910~1945)

일제강점기 성북동의 행정구역 명칭 변화 / 68

일제강점기 도시화되는 성북동 / 75

성북동의 지역주민운동 / 89

무산아동을 위한 교육기관 - 삼산학교 / 104

이태준의 눈으로 본 1930년대 성북동 / 123

3장 | 현대의

성북동(1945~현재)

한국 정치·문화의 1번지 성북동 / 142

성북동의 전쟁피해 - 전후의 살림살이와 판자촌 / 150

풍치지구를 벗어나 북악스카이웨이의 시대로 / 156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형성과 변화 / 162

성북동의 길 - 2015년 성북동의 풍경과 사람들 / 171

차 례

— 2부 — 꿈의 공간들

1장 | 심우장과 노시산방

1937년 봄, 심우장

- 한용운, 김동삼, 조지훈 / 202

노시산방의 두 예술가

- 근원 김용준과 수화 김환기 / 210

식민지 문인 · 화가들의 사랑방

- 노시산방 사람들 / 222

2장 | 수연산방과 간송미술관

수연산방

- 상허 이태준과 구인회 / 229

간송미술관

- 위창과 간송,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 237

3장 | 김광섭의 집

성북동 168-34 그리고 160W 73rd St, New York

- 빛나는 노년 / 246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시와 그림의 이중주 / 256

— 부록 —

성북동의 명소들 / 262

성북동 연표 / 288

찾아보기 / 293

발 간 사

성북구의 명칭은 성북동에서 비롯했습니다. 성북구의 모든 동이 소중하지만, 성북동은 그 이름 자체로 성북구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간송 전형필의 간송미술관, 상허 이태준의 수연산방, 혜곡 최순우가 살던 옛집이 남아 있는 곳도 바로 이 성북동입니다. 비록 집은 남아 있지 않지만 조지훈과 김광섭, 두 시인이 시를 짓던 곳도, 김용준과 김환기가 그림을 그리던 곳도 바로 이곳 성북동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이 성북동의 역사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선시대에 한양도성이 만들어지며 성북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되었던 이야기, 선잠단이 설치되며 큰 제사로 봄 한철 북적거렸을 이야기, 성북둔이 설치되고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살며 마을이 이루어져 성북동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숭아나무를 심어 봄이 되면 온통 붉게 물든 성북동을 찾아오게 만든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대와 현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사람들이 성북동에 몰려들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 이야기,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학교를 만든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도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던, 끈질기게 삶을 이어온 순박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전쟁의 상흔,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부침 속에서 오늘을 만들어 온 우리들

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역사문화 산책 3권'으로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을 발간하게 된 것이 더욱 뜻 깊습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이야기도 많아 성북동의 모든 이야기를 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성북동 역사의 대강은 이 책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로는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마저 담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깁니다.

성북문화원은 2013년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를 시작으로, 2014년 『미아리고개』와 『한양도성 역사산책』, 그리고 『성북에서 만나는 자연과 사람들』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발간사업을 묵묵히 하는 직원들의 노고도 이 자리를 통해 치하하고 싶습니다.

오는 2016년은 성북동이 설치된 지 2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북동이 설치되며, 이곳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마을이 형성되었으니 성북동 탄생 250주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를 보는 거울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이 지난 250년을 정리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밑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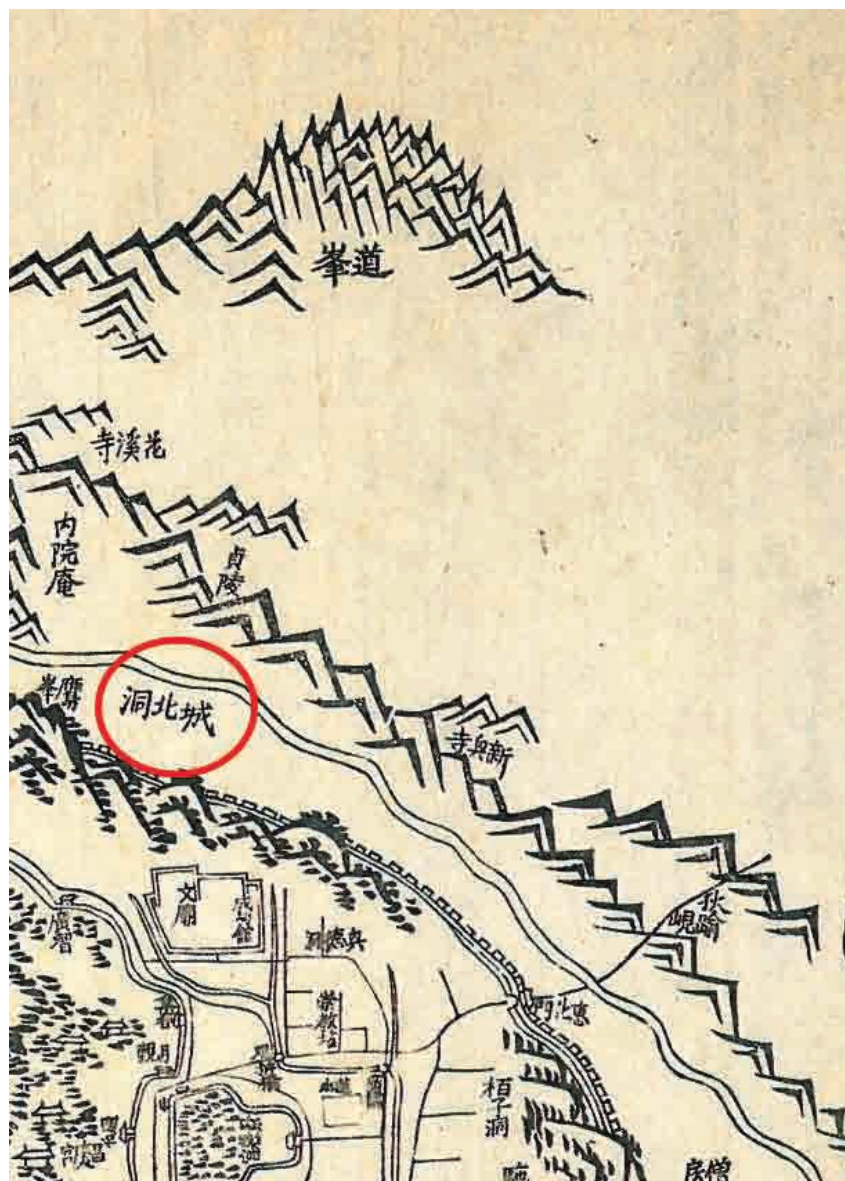
성북동, 만남과 꿈의 이야기를 열며

성북동은 성城의 북쪽北에 있는 마을洞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한양도성이니, 성북동은 한양도성이 만들어진 이후에 붙은 이름이다.

한양 땅에서 동소문이라고 불리는 혜화문이 세워진 낮은 언덕을 넘고, 미아리고개를 오르는 길은 동북면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성북동은 이 중요한 교통로에 접한 마을이다. 한양에서 혜화문 고개를 넘으면 바로 성북천이 흘렀고 왼쪽으로 성북천을 따라 자리한 마을이 바로 성북동이다.

성북동은 또한 아늑한 마을이었다. 백두대간은 힘차게 달려 내려와 그 일부가 한양의 백악산까지 이른다. 백악산에 이르기 직전 작은 두 봉우리—구준봉과 응봉—에서 내려온 산자락이 감싸고 있는 마을이 또한 성북동이다. 그 산자락 사이로 흐르던 것이 성북천이었으니, 성북동은 한양과 가깝고, 물이 흐르고, 산이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하지만 경치가 아름답다고 사람의 삶에도 좋은 것은 아니었다. 성북동의 토질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¹ 더구나 산 사이에 개천이 흐르는 일종의 계곡과 같은 지형이었으므로 넓은 경작지를 확보하기



1840년대에 만들어진 「수선전도」, 성북동이란 지명이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도 힘들었다. 조선시대 중국의 제도를 따라 북쪽 외곽인 성북동에 선잠단을 쌓고 나라의 큰 제사인 선잠제향을 봉행하였지만, 그것이 성북동을 사람살기에 맞춘 마을로 바꾼 것은 아니었다.

성북동에 사람을 살게 한 것은 교통과 자연환경이었다. 한양도성의 북문으로 만들어 놓은 숙정문은 너무 산속에 있었고, 문을 열어 두면 음란한 풍속이 돈다는 풍수상의 이유도 겹쳐²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동소문은 동북면으로 가는 가장 빠른 위치에 있었고,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문이었다. 군사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혜화문 밖 삼선평은 말 그대로 넓은 평야여서 군사 훈련하기에도 좋았다. 그리하여 영조는 혜화문 밖 성북동에 한양을 지키는 세 부대 가운데 하나인 어영청의 북둔^{北屯}을 설치한다.³

군 시설을 놓고, 군사들을 살게 하였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다. 병농일치 사회에서 성북동에 사는 주민들이 많아야 국방이 안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이었던 성북동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다. 영조는 이곳에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생업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택했다. 성북동에서 쏜 메주와 마전한 포백을 국가가 값을 보장하고 사 주기로 결정하고 문서로 보장하였다. 지금도 남아 있는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은 바로 이것을 보장한 문서이다.⁴ 이로써 성북동에는 많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했다.



의친왕 이강이 살았던 성락원 내 송석정

조선후기 성북동이 사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교통과 자연 환경 때문이었다. 도성의 바로 밖이라는 교통의 편리함, 산과 물이 어우러진 훌륭한 자연환경은 양반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성북동은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여유가 있는 양반들은 성북동에 별장을 짓기도 했다. 안동 김씨 김좌근의 별장, 여흥 민씨 충정공 민영환의 별장 등이 모두 성북동에 있었다. 의친왕 이강도

성락원이라는 별장에서 살았다.

성북동도 근대의 바람을 탔다. 농촌에서는 부를 쌓은 부농이 생겨났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토지에서 이탈하는 농민도 생겨났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농지를 경작하기도 했지만, 일자리를 찾아 한창 바람이 불기 시작한 광산으로 가거나 도시로 왔다. 임금노동자가 탄생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가속화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성으로 모여들었다. 사대문 안의 면적으로는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사대문 안과 가까우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성북동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성북동에는 비교적 중산층으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곧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스스로 학교를 만들어 교육을 시켰고,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서슬 퍼런 총독부에 상수도 부설, 버스시간 연장 등의 청원 운동을 하기도 했다. 성북동에 있던 양반 별장이 요정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 마을이 번잡하자, 더 이상 요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여러 모로 살기 좋은 마을이니 문화예술인들도 모여들었다. 1930년대 초반에 이미 ‘문인촌’으로 불릴 만큼 많은 문인들이 성북동에 살았다. 카프의 중심인물이었던 김기진, 이와 대척점에 있던 구인회의 중심인물인 이태준은 모두 한 동네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며 승려이기도 한 만해 한용운도 이곳 성북동 주민이었다. 간송 전형필은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보화각을 성북동에 지었다. 그리고 만해와 간송과 모두 인연이 있는 또 한 명의 독립운동가이자, 수집

가인 위창 오세창 역시 성북동에 살며 이들과 교류했다. 문인과 독립 운동가만 이곳에 산 것은 아니었다.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두 거인, 김 용준과 김환기는 늙은 감나무가 열리는 마당이 있는, 같은 집에 연이어 살았다. 김환기는 성북동에 살던 또 다른 친구인 시인 김광섭의 시에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성북동엔 이런 중산층과 문화예술인만 살던 것은 아니었다. 이태 준의 눈에 비친 성북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 경 성으로 몰려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방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 개천독이나, 다리 밑 등 빈 땅에다 토막이라고 불리는 허름한 집을 짓고 살았다. 처음에는 경성 안에 자리를 잡았지만, 총독부 정책에 의해 사대문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포화 상태인 사대문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해 밖에 안식처를 만들기도 했다. 근대 성 북동은 이렇게 최고 부자의 별장부터, 가장 가난한 자들의 토막까지 공 존하는 마을이었다.

해방 이후까지 인구가 늘어나던 성북동은 모두의 불행이었던 한 국전쟁을 겪으며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인 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전쟁에서 월남을 한 사람들, 잠시 떠난 삶 의 터전으로 돌아온 사람들, 오갈 곳 없어 찾아온 사람들 등 각계각층 의 사람들이 성북동으로 모여들었다. 성북동은 다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1970년 삼청터널이 개통되고, 종로로 가는 빠른 길이 생기자, 조 용하고 아름다운 마을 성북동은 다시 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많은 부 자들이 성북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성북동=부촌’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 오죽하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벌집에서는 전화를 “성북동입니다.”라고 하며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에 그랬듯 현재의 성북동도 부자들만 사는 곳이 아니다. 부촌을 내려오면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가 펼쳐진다. 성곽마을인 북정마을은 여전히 우리가 잊고 있던 정이 넘치는 마을의 정취를 담고 있기도 하다. 성북동 초입부터 이어지는 성북천을 복개한 도로의 양 옆에서 시작하여 가파른 비탈까지 가득 찬 집들에는 가난하지도 않지만, 풍족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지금도 성북동 끝자락에는 만해 한용운의 마지막 거처인 심우장이 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조선시대의 부호였던 이종석의 별장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허 이태준의 집인 수연산방이 남아 있다. 거기서 발걸음을 재촉해 내려가면 간송 전형필이 만든 보화각이 있고, 조금 더 걸으면 조선시대, 아마도 처음 성북동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선잠단지가 있다. 선잠단지에서 길을 건너면 혜곡 최순우가 깊은 산속 같은 사랑에 앉아 부석사 무량수전을 떠올렸을 그의 집, 최순우 옛집이 있다. 선잠단지를 끼고 위로 올라가면 의친왕 이강이 궁을 그리워하며 울분을 삭였을 성락원,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최고 요정에서 맑고 아름다운 사찰로 바뀐 길상사도 있다.

조선시대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 부자부터 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함께 사는 곳, 문인과 예술인이 어울리던 곳, 그 성북동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자.

(박수진)

주석

- 1_ 金周煥, 「自然環境」『城北區誌』, 藝文社, 1993, 44~47쪽. 여기에 따르면 성북동의 토양은 식양질, 사양질 등의 암쇄토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토양은 배수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농사를 짓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 2_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 3_ 『승정원일기』1242책, 영조41년 4월 17일, ‘居民將爲屯軍耶’.
- 4_ 本洞山高谷深 生計零落 地僻市遠 利路艱難 丁亥 秋 朝家特軫居民之生計 木布苧三塵 曝白之物 松苧并盡數 付之於本洞居民 以爲練熟 (『城北洞曝白 燠造契完文節目』)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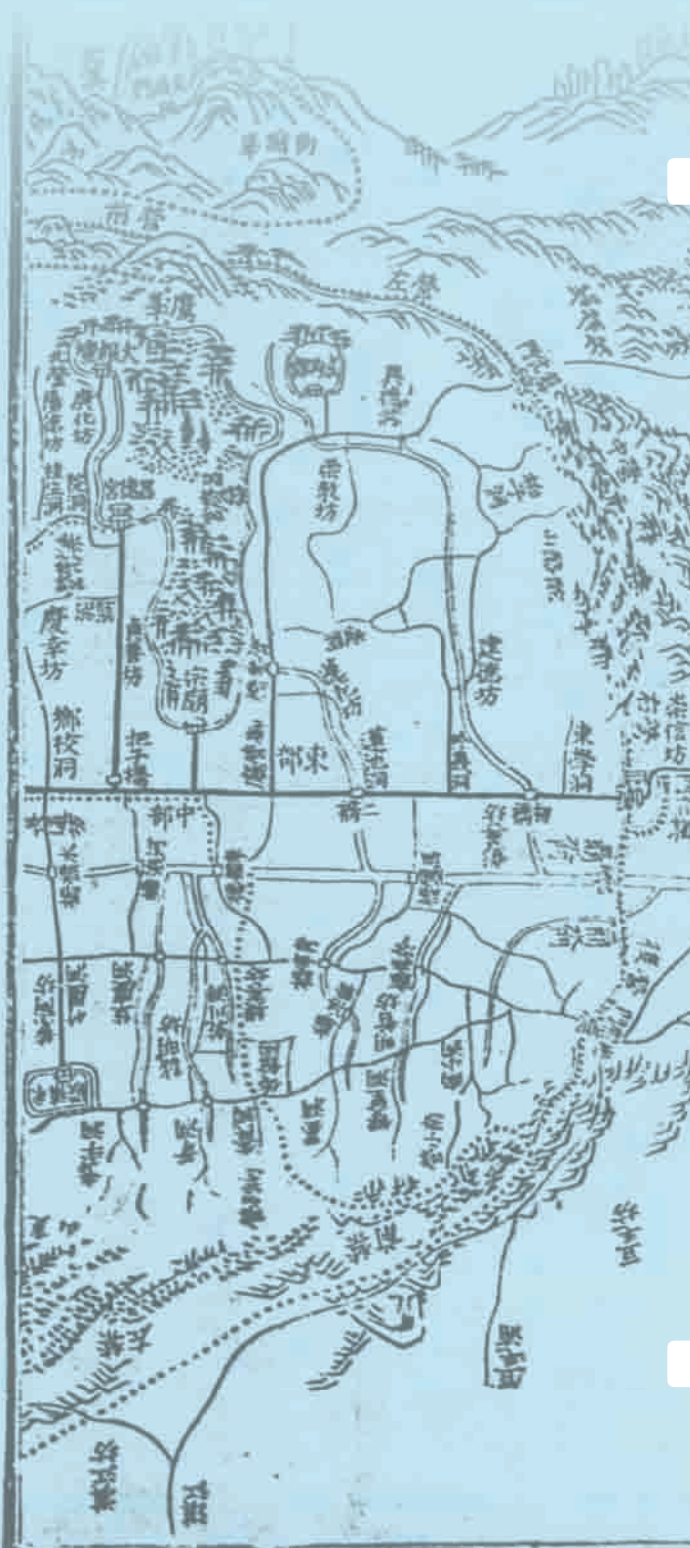


城三軍門分界之圖

守城冊

1부

만남의
역사



조선시대의 성북동(1392~1910)

1. 그 골목의 끝에 강릉이 있다 – 한양도성의 성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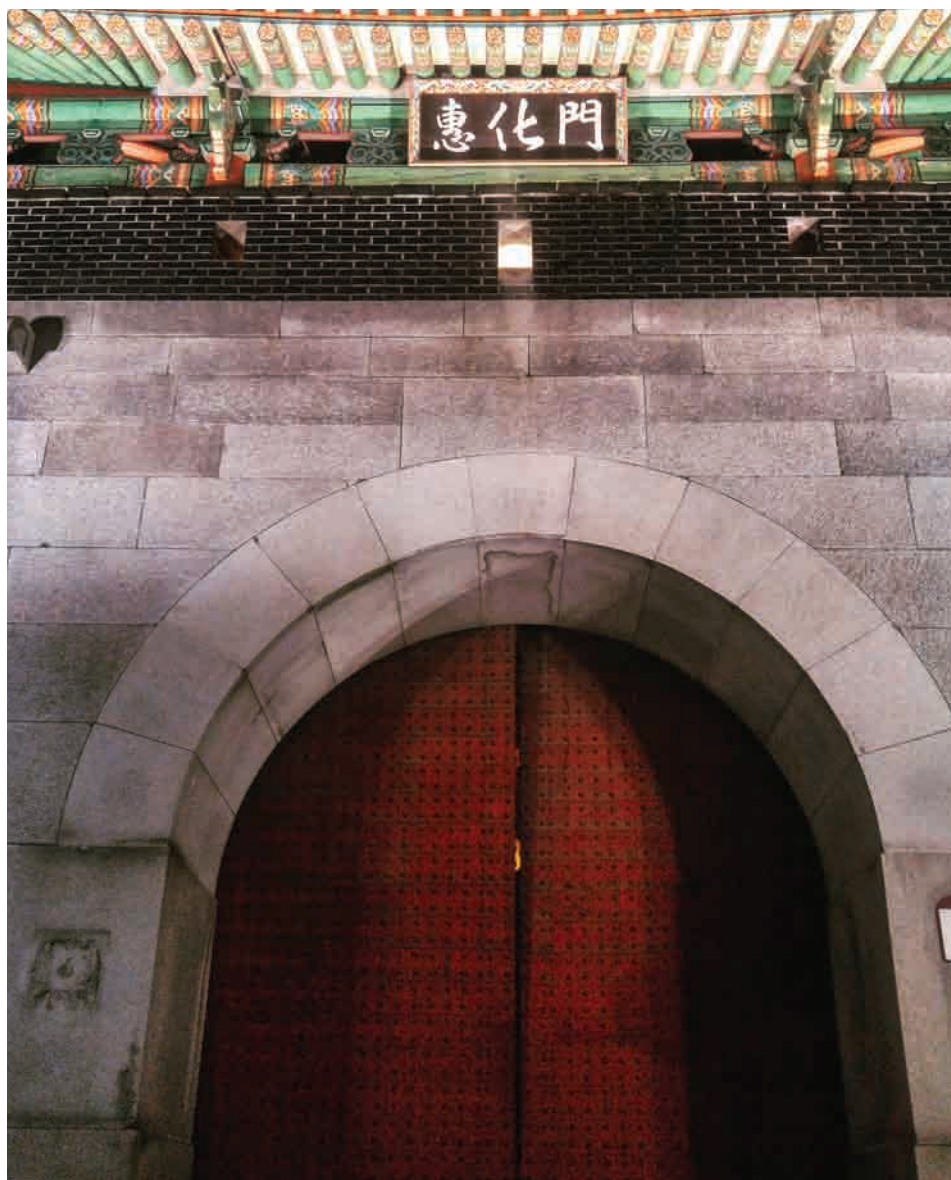
혜화문은 조선조 오백년 동안 서울의 동북쪽 관문 역할을 했던 성문이다. 그 혜화문은 지금 터만 남겨두고 사라졌다. 흑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층짜리 우진각 문루도 홍예도 석축도, 그것들을 받치고 있던 비탈진 고개도 식민지 시절에 말끔히 지워져 그 자리에는 넓은 신작로와 전차길이 뚫렸다.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 위를 막 정지 신호에서 풀려난 한 떼의 자동차들이 맹렬한 속도로 오간다. 예나 지금이나 동북쪽은 미아리고개 너머 의정부로 통하고 반대쪽은 혜화동, 창경궁을 지나 종로로 통한다. 성문은 간 데 없지만 길의 방향은 변함없다. 그 길을, 바로 옆 높은 축대 위에 20년 전 복원한 혜화문이 할 일이 없어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본다. 건너편, 한양도성 낙산 구간 탐방을 마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더니 저 아래 건널목을 건넌다. 지치지도 않았는지 켜 걸음으로 단숨에 혜화문 앞에 다다랐다. 육중한 철문 아래 소나무 그늘에서 열기를 식힌다. 성북동 여행을 떠나기에 적당한 장소이다.



1910년경 혜화문 밖 풍경과 몸을 반쯤 감추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흰옷 입은 남자



복원된 혜화문 옆을 달리는 자동차들(2015)



혜화문 현판. 1992년에 전면 복원할 때 설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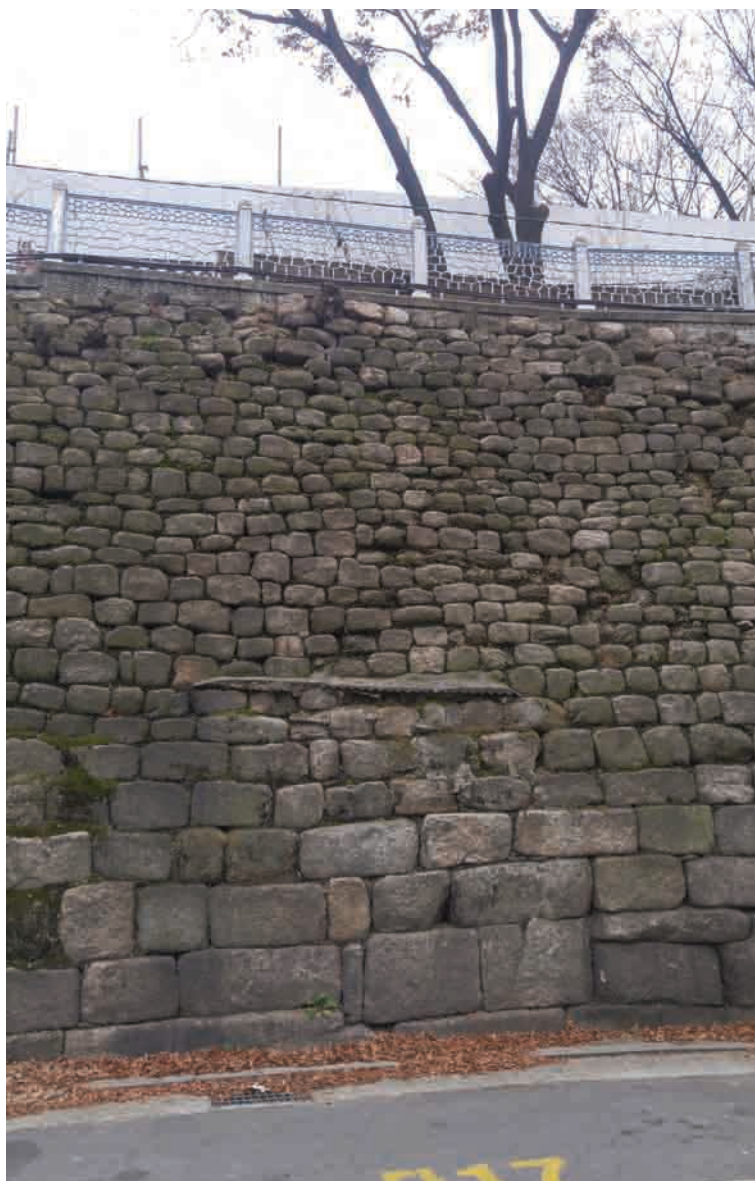


한양도성 낙산 구간에서 바라본 성북동.
 왼쪽으로 혜화문(기와 지붕), 혜성교회(파란색 지붕), 경신고등학교(흰색 교사)가 차례로 보인다.
 이 세 곳을 이으면 옛날 한양도성 성곽이 지나간 자리가 된다.

성벽은 시작부터 잘려 있다. 새로 지은 혜화문의 원어깨로부터 뻗어나간 성벽은 새것이 아닌 정말로 옛것이다. 거대한 장방형 돌의 집합으로 공간을 감아쥐며 기세 좋게 북진하려던 성벽은 채 50미터도 못 가서 평범한 골목길 하나를 만나 찢절맨다. 성벽은 왕복 8차선 간선도로는 물론 골목길에게도 속수무책이다. 그 골목을 검정 세단 한 대가 유유히 빠져나간다. 혜화문으로부터 혜성교회를 지나 경신고등학교 올라가 끝나는 지점까지, 성북동과 혜화동의 경계를 이루는 한양도성 성벽은 줄곧 이렇게 골목과 자동차와 학교와 무슨무슨 빌라, 맨션의 위세에 눌러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 전진한다. 마름모꼴의 일본식 축대에 깔려있는 성뿌리, 축대와 담장 사이에 끼어 있는 유난히 큰 성돌들. 그리하여 어느 주택, 어느 도시텃밭의 울타리로 용도가 바뀐 성벽은 행

인들의 무심한 시야 바깥에 있다. 흔적도 없이 잘려나간 구간도 슬하다. 그런 곳에서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가며 그 옛날 이 언덕 위에 솟아올라 물결치던 조선 성벽의 아름다운 흐름 하나를 마음이나 그려볼 뿐이다.

1970년대 들어 시작한 한양도성의 복원은 우선 내사산^{內四山}의 산등성이에 걸린 성곽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가로지르거나 유실된 성벽은 복원할 엄두를 못 냈다. 성북동 구간만이 아니라 신당동, 장충동, 서소문 지역도 상황이 비슷했다. 뻣뻣하게 자리잡은 건물과 높은 축대를 들어낼 방도가 없었기에 남아 있는 성벽만이라도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렇게 놔둔 성벽은 주변 건축물과 어우러져 마치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작품처럼 재미난 골목 경관을 만들어냈다. 방심한 사이 골목 한 구석에서 불쑥 시야에 떠오르는 말 없는 성돌의 무리는 만약 그 유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라면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의 훌륭한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모가 둥그스름하고 어른 몸통만한 크기로 다듬은 받침돌이나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어 촘촘히 쌓아올린 성벽은 1422년(세종 4)부터 거기에 놓인 것이다. 돌을 반듯한 직육면체로 다듬어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이 꼭 맞게 쌓은 성벽은 대체로 숙종~순조 연간에 보수한 부분이다. 반듯할수록 시기가 늦다. 그리고 한양도성의 일부는 아니지만 화강암에 시멘트를 부어 마름모꼴로 쌓아올린 축대는 식민지 시기 일본에서 들어온 양식으로 1960~70년대에 쌓은 것이다. 담장의 지음새로 기호화된 600년 세월이 성북동 좁은 골목을 따라 펼쳐진다.



세종 4년에 쌓은 성벽과 그 위에 설치한 울타리(구 서울특별시장 공관)



세종 4년에 쌓은 성벽과 그 위로 쌓아올린 주택담장



숙종~순조 연간에 쌓은 성벽과 그 위로 쌓아올린 일본식 축대



성벽 유실 구간(경신고등학교 울타리)



경신고등학교 뒤편 울타리.

그 골목의 끝에 강릉이 있다. 경신고등학교 뒤편 담장 어느 큼지막한 성돌에 한자로 새겨져 있는 두 글자. 풍설에 깎이어 희미해진 글씨를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높은 산에서 발견한 물고기 화석인양 신기한 눈으로 더듬더듬 판독한다. “야. 강릉이 여기 있네.” 그렇다. 강릉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각자刻字 성돌로부터 왼쪽으로 600척(약 180미터) 되는 구간을 강릉에서 온 사람들이 쌓았다.

사정은 이렇다. 세종 3년(1421), 태조 때 축조한 도성이 20년이 지나 무너지고 헐린 데가 많으므로 도성을 개축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얼마 후 도성수축도감이 만들어지고 둘레 5만 9,500척의 한양도성 전 구간을 석성으로 개축하기로 결정이 났다. 공사기간은 이듬해 음력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 팔도의 역군 32만 2천여 명을 동시에 불러 모았다. 도성 둘레를 97개 구간으로 나누고 백악 정상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경기도, 함길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황해도 각 군현에 600척씩 공사량을 할당했다. 강릉 사람들은 바람 센 성북동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돌을 저 나르고 깎고 다듬고 쌓아올렸다. 추위에도 공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부상자와 도망자가 속출했다. 그러나 왕명은 지엄했다.

“도성을 수축한 후에 혹시 돌 한 개라도 무너져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즉시 그 방면의 감독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모두 논죄할 것이다.”

—『세종실록』 세종 4년(1422) 1월 17일

꿈속에서라도 다시 눈 쌓인 대관령을 넘어 서울로 오는 일은 없어야 했다. 역군들은 이를 악물고 돌과 싸웠고 마침내 튼튼한 성벽 하나를 이룩했다. ‘이만하면 우리 고을 이름 깊게 새겨도 될 거야.’ 그렇게 새겼다. 江陵.



경신고등학교 뒤편 '강릉'이 새겨진 각자성돌



막 복원공사를 마친 한양도성 성북동 구간(1977)

강릉¹을 지나 경신고등학교를 뒤로 하고 골목을 빠져나오면 이제 그럴싸한 성곽을 만난다. 복원 사업의 결과로 몸통과 성가퀴, 총구멍과 덮개돌까지 완벽하게 갖춘 성곽이 백악 능선을 타고 비상하는 용처럼 치솟는다. 아이들이 ‘만리장성이다!’하고 소리치면 선생님이 ‘저건 한양도성 성곽이란다.’고 다시 알려주는 곳. 성북동 쉽터라고 부르는 이곳에서부터 성곽은 아무 장애물 없이 저 너머 인왕산 자락까지 거침없이 이어진다. 몇 군데 가파른 경사를 만나지만 성곽 위에 조성된 널따란

산책로를 걷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느티나무 그늘이 커서 한여름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 준다. 언제나 고요하고 생기 있는 시간이 거기에 있는 듯하다. 고개를 남쪽으로 돌리면 나뭇잎 사이로 혜화동과 명륜동이 보이고 이정표만 잘 따라간다면 성균관, 창경궁까지도 걸어갈 수 있다.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영차! 들어 올려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덮개돌 너머로, 산 하나를 온통 크고 작은 지붕으로 뒤덮은 커다란 마을 하나가 따스한 햇볕을 받고 있다. 찰각, 성북동이다.

(백외준)

2. 숲 속의 유토피아 – 선잠단 터

선잠단 터의 무성한 뽕나무 숲을 들여다보면 나도향의 단편소설 「뽕」(1925)이 생각난다. 소설 속 뽕밭이 모든 희망이 무너진 디스토피아의 축도라면 선잠단 터의 뽕나무 숲은 유토피아, 즉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오랜 갈망의 표현이다.

선잠단에서 지내던 선잠제는 처음으로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 옷을 해 입었다는 전설의 여인 서릉씨를 선잠신(先蠶神)으로 받들어 모시는 국가의 중대한 제사였다. 그 목적이 그해 양잠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선잠제는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선농제와 짝을 이루었다. 선농제가 백성의 식생활과 관계있다면 선잠제는 백성의 의생활과 관계있었다. 고대 중국에서 발달한 이 제사들이 한국에 수용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조선에서는 고려의 체제를 이어받아 정종 2년(1400) 음력 3월에 처음 선잠제를 지냈다. 다음에 소개하는 시는 조선 초의 문신 변계량(邊季良)이 지은 「선잠제의 악장」 가운데 한 절로서 선잠단에 들어간 왕후가 신을 맞아 제사를 끝마쳤을 때 악사들이 음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이다. 태종 때 왕명을 받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아아 우리의 민생이	嗟我民生
배부르고 따뜻하면 편안하도다	飽暖乃安
그 누가 옷 입지 않고도	孰曰無衣
추위를 막는다고 말하나	而得御寒
위대하고 위대한 서릉이	赫赫西陵

하늘처럼 은택을 입혔도다	配天其澤
예절 따라 제사를 드리니	崇祀以禮
참으로 옛날부터 그랬도다	實維自昔

—『춘정집』제4권

노랫말은 개개인에게 필요한 양식과 의복이 갈등 없이 부드럽게 충족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임을 말한다. 그것은 달성 불가능한 드높은 목표가 아니다. 위대한 서릉은 그와 같이 근본에 철저한 지도자에게 하늘처럼 크나큰 복을 내릴 것이다. 깨끗한 제



선잠단 터의 홍살문. 정식명칭은 서울 선잠단지(사적 제83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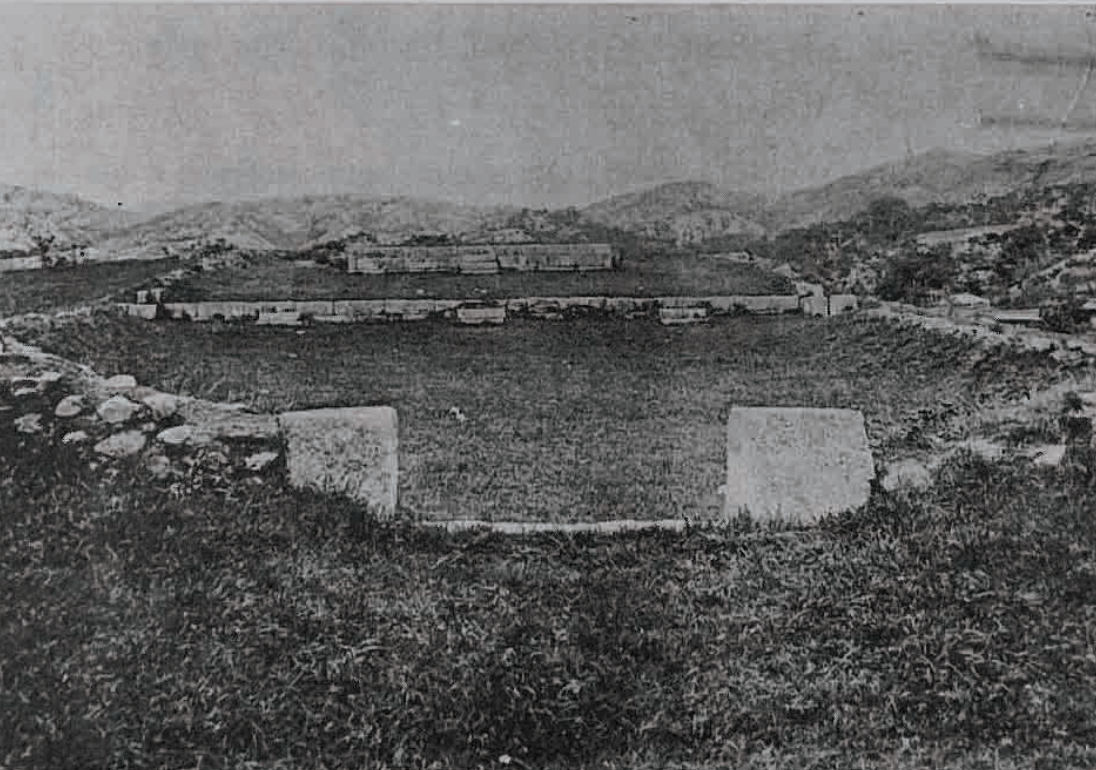


위에서 내려다본 선잠단 터(사진제공: 문화재청)

물과 조심스러운 걸음, 장중한 음악과 단순한 노랫말. 제관들의 마음엔
실수 없이 매끄럽게 치러지는 제사처럼 살기 좋은 나라의 밑그림 하나
쯤 그려졌을 것이다.

선잠단 터는 서울에 남은 조선시대 유적들 중에서 연대가 오래
된 축에 속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선잠단은 동소문 밖 사한이에 있
다’고 적혀 있고, 『태종실록』 13년(1413)조에 ‘선잠의 단과 담이 이미 축
조되었으나 법식과 다르므로 옛 제도에 따라 수축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잠단은 태종이 한양으로 환도한 이후인 태종 5년
(1405)과 태종 13년(1413) 사이에 동소문 밖 사한이, 곧 성북동 지금 이
자리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후 단을 옮겼다는 기록
이 없으므로 1908년 신위가 사직단으로 옮겨가면서 제단이 철폐되기
까지 선잠단은 거의 600년 세월 동안 제자리를 지킨 셈이다. 일제강점
기에 본래 있던 제단과 담장도 없어지고 길가의 필지도 일부 잘려 나
갔으나 가운데 터는 용케 살아남았다. 지금 터 안쪽에 마련해 놓은 제
단과 그 위의 비석은 본래의 것은 아니며 근래 선잠단 터 정비 시에 만
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조선시대에 만든 제단으로 착각하는 방문객
들이 많다.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의』 등 여러 문헌에 그 치수와 규례
가 도판과 함께 실려 있으니 제단과 담장을 옛 제도에 맞게 복원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1963년 정부에서는 이곳을 사적 제83호 ‘선잠단지’로 지정하여
표석을 세웠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선잠단 터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다
시피 하였다. 가까운 한양도성 성벽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망국의 버려
진 제단을 돌보기에는 너무도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다. 그러는 사이 선



선잠단(1910년대)



일제강점기 선잠단 터(『매일신보』1938. 9. 28)

잠단 터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정체를 알 수 없는 덩불숲으로 바뀌고 말았다. 가끔 담배를 피우려고 독서실에서 몰래 빠져나온 청소년들에게나 안성맞춤인 공간이었다.² 그런 곳에 뽕나무를 심어 가꾸기 시작한 것은 1976년의 일이다. 이학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옛날 그곳이 선잠단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식목일을 맞아 동네 주민들과 함께 뽕나무를 식재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성북동 사람들은 족히 40년 동안 가꾸어온, 서울 시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훌륭한 뽕나무 숲을 가지게 되었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과 같은 멋진 이야기가 가까운 곳에도 있었던 것이다. 자유롭게 드나들면 좋겠지만 지금은 보호를 위하여 자물쇠를 걸어두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가끔 답사객을 위해 문을 열어둘 때 슬그머니 들어와 석축 위에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젊은 연인들의 뒷모습이 그림 같다.



『동아일보』1993. 5. 12.



85년 만에 재현한 선잠제향(1993. 5. 16)



1993년 선잠제향의 제관들



선잠왕비마마 선발대회(1996, 성북구민회관)



제22회 선잠제행(2015. 5. 17)

이곳에서 다시 선잠제를 봉행한 것은 1993년의 일이었다. 1908년 신위가 옮겨진 지 85년 만이었다. 매년 함께 뽕나무를 가꾸어오던 성북동 주민들과 대한잠사회의 노력이 컸다. 이후 선잠제는 성북동 주민이 주축이 된 선잠제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5월마다 성북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치러지다가 올해로 22회를 맞았다(2014년은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 때문에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 90년대에만 해도 제사 지내는 날 주민들끼리 선잠단 터 앞에 모여 국수도 삶아 나누어 먹으며 잔치도 벌이고 바로 옆 성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 체육대회도 열



성북문화원이 주관한 학술회의 「선잠제향의 어제와 오늘」(2014. 11. 7, 성북구청)

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행사의 주도권이 구청으로 넘어가고부터는 그런 소박한 부대 행사들이 이벤트사에서 주관하는 조선시대 왕비와 제관의 화려한 행렬로 대체되었다.

선잠제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재현 행사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잠제와 같이 하나의 지역 공동체 속에서 재현되는 무형유산은 반드시 원형을 철저히 고증한 다음 재현에 참가할 사람들을 지정해 놓고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 지역의 다음 세대에게로 전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복원 계획의 수립, 학술·고증 분야에 대한 대담한 지원이 우선 할 일이다. 선잠제와 선잠단이 성북구 주민들의 삶의 맥락과 무리 없이 이어져 주민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문화유산으로 부활할 날을 기다린다.

(백외준)

3. 개척지들 - 성북둔과 성북동포백훈조계

전라감사 조운규가 말에 태워 보낸 장계가 조정에 당도했다. 국왕 영조가 직접 장계를 펼쳐 읽었다. 달포 전 나주 객사 기둥에 걸린 흉서에 관한 보고였다. 영조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다. “간신만조奸臣滿朝 민함도탄民陷塗炭이라.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고 백성이 도탄에 빠져? 흠, 잘도 지어내는구나.” 필시 무신년 잔당들의 소행이 분명했다. 역모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민심을 떠보려는 얕은 수였다. 재위 31년(1755)을 맞은 영조는 이런 종류의 과거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제법 이골이 났다. 즉시 금부도사를 전라도로 내려 보내 사건을 수사한 후, 흉서를 쓰고 붙인 범인과 그 연루자를 모두 체포해 서울로 압송토록 했다. 주모자는 윤지尹志(1688~1755)라고 하는 68세의 노인이었다. 영조 즉위년, 노론의 보복을 받아 아버지인 전 훈련대장 윤취상이 처형된 직후 제주에서 나주로 30년을 귀양지에서 뒹굴었다고 했다. 국문은 수월했다. 친국을 당한 윤지는 어차피 죽게 될 몸, 거사 계획을 낱알이 싣토했다. 그리하여 정월 스무날에 일어난 나주과서사건은 3월말 일단락되었다. 관련자 41명을 처형하고 20명을 귀양 보냈으며 2명의 관직을 추탈했다. 관대한 처분은 아니었다.

이복형 경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영조는 재위 기간 내내 고약한 풍문에 시달렸다. 집권당 노론에게 쫓겨난 재야의 양반 세력들이 믿고 있는 독살설이 풍문의 핵이었다. 그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된 연잉군 이금李愼은 자신들의 임금이었다. 즉위 초 영조에게 청주성 함락이라는 수모를 안긴 ‘이인좌의 난’ 이후로 무려 15번의 과거사건이

있었다. 그때마다 민심이 동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영조와 노론 집권자들은 사건의 주모자와 연루자를 속아내 피비린내 나는 응징을 가했다.

한편으로 예방 차원의 대책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도성 수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비변사에서는 여러 해 논의를 거쳐 영조 27년(1751)에 「수성절목守城節目」을 완성해서 올렸다. 한성부의 백성들을 사서士庶를 막론하고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삼군문에 소속시켜 평시에는 훈련을 받게 하고, 유사시에는 자신이 소유한 무기를 들고 도성의 지정된 위치에 올라가서 수도를 방어케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영조는 절목을 반포하면서 만약 적이 도성을 위협하면 예전 왕들처럼 몽진하지 않고 ‘내가 먼저 기운을 내서 성위의 담에 올라가 백성을 위로할 것’이라고 사뭇 감동적인 운음까지 내렸다.

그러나 종이 위에 쓰고 그린 계획이 위기 때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 영조는 안심할 수 없었다. 사실 나주 객사에 흥서가 붙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위협은 등잔 밑에도 있을 터였다. 특히 도성 북쪽 북한산 주맥이 갈라져 생긴 깊숙하고 널따란 골짜기가 도성을 구렁이처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에 생각이 닿을 때마다 근심이 밀려왔다. 잘 훈련된 자



영조 어진(보물 제932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위)『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地圖)』(1751,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와
(아래) 지금의 성북동 지역을 확대한 부분. 혜화문 왼쪽 성벽의 '좌영(左營)'이란 표기는
어영청의 전·후·좌·우·중군 가운데 좌군(左軍)이 책임지고 막는다는 뜻이다.

객이라면 저자의 백성들이 ‘도둑골’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부터 불과 한 식경이면 담장을 뛰어넘어 창덕궁 대조전 앞뜰에 내려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경희궁도 안전한 곳이 못될 것이다. 저 인적 없는 골짜기에 반군이 몰래 찾아든다면? 음모로 가득 찬 어두운 물소리 하나가 잠을 청하려는 영조의 머리맡에 들려오는 듯했다. 그런 고민을 던지시 영의정 홍봉한에게 내비쳤다.

며칠 후 홍봉한이 그럴듯한 계책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영의정이 직접 지도를 펼쳐 놓고 찬찬히 짚어가며 아뢰었다. “이곳의 골짜기는 지면이 매우 평평하고 넓은데, 나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 벌채하여 민둥산이 되어 나무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수십 호의 인가를 두어 살게 한다면, 도성을 빙 둘러 수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질이 좋지 않은 밭이나마 약간 경(耕)이 선잠단 근처에 있으므로 어영청의 급료를 먹는 군사들 수십 명을 모집하여 그 땅에 살게 하되 그 밭을 경작하게 하고 세금을 감하여 주어 생활을 정착하게 한다면 또한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는 실효가 있을 것입니다.” 도성 바깥에 마을 하나를 만들어 위협 요소를 사전에 없앤다는 영의정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마을이 훌륭한 방패막 역할을 하리라. 영조는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명했다. 영조 41년(1765) 음력 4월의 일이었다.

어영청이 바빠졌다. 어영청은 혜화문 밖 선잠단 옆에다 ‘성북둔城北屯’이라 이름한 둔전³을 설치하고 둔사와 창고를 지었다. 둔사에 결편액의 글씨는 윤동철尹東哲(1722~1789)에게 부탁해 놓았다. 곧이어 어영청 군적에 이름이 올라 있는 백성⁴ 수십 명과 그 가족들을 선잠단 주변으로 이주시켰다. 선뜻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모집에 애를 먹었

다. 쓸 만한 땅이 얼마간 있는데다 계곡의 수량도 넉넉하니 두서너 해만 고생하면 생활은 나아질 것이라고 설득했다. 서둘러 지붕을 올리고 울타리를 두른 초가집들이 흥덕동과 송동 너머 성저城底에 생겨났다. 둔전 설치 논의가 있던 지 1년 만인 영조 42년(1766) 마을의 윤곽이 잡혔다. 저녁이면 굴뚝마다 피어오른 연기가 성벽 아래 골짜기에 퍼졌다. 서울 사람들은 이 새로운 마을을 ‘성북동城北洞’이라 불렀다.



「한양도성도」부분(18세기 후반,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북사창(北寺倉)이라고 표기한 기와집이 성북둔이다. 그 위로 북적동(北赤洞)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그러나 성북동 사람들의 막막한 생활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홍봉한이 아뢰고 어영청에서 내어준 농토는 모래흙으로 이루어져 작물이 뿌리 내리기 어려웠다. 정도(定都) 이래 300년이 넘도록 버려져 있던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이런 데서 어찌 살라는 거야? 쉴, 입조심하라구. 이대로 죽을 셈인가? 말할 것은 말해야지. 황량한 골짜기 안 굽주림에 참다못한 주민들은 정식으로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영청으로선 일단 창고를 열어 저축해 놓은 식량을 주민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허나 그렇게 하자니 비용이 줄줄 새나갔다. 주민의 생계도 보장하고 재정의 고갈도 막는 일석이조의 묘수가 필요했다.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주민들에게 농사 아닌 새로운 일감을 가져다주어 일정한 노임을 받게 하자는 것이었다. 일감으로는 포백과 훈조가 적당했다. 흔히 마전이라고 하는 포백은 포목을 삶고 벌에 말려 새하얗게 표백하는 공정을 말한다. 옷감의 품질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정인 만큼 그 중요성이 컸다. 성북천은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할 뿐 아니라 양안의 바위와 토양이 깨끗해 마전일에는 제격인 곳이었다. 훈조는 메주 담그는 일을 말하는데 성북동에서 담근 메주는 궁궐에 납품하게끔 되어 있었다. 생산성 없는 농지 대신 수공업에서 그 수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성북동은 새로운 형태의 수공업적 형태의 둔전이 되었다.

마전할 포목은 도성 안에 있는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의 물건과 송도(개성)의 모시 전부에 해당하였는데 이 일은 영조 43년(1767) 가을부터 성북동 주민들에게 떨어졌다. 매 동(50필)마다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1805, 가로 : 27.4cm 세로 : 44cm 두께 : 1cm,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2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성북동 강운봉의 집에 보관해 둔 원본을 유실한 관계로 1805년 새로 작성한 것이다.

무명은 4냥, 베는 6냥 5전, 모시는 10냥씩 노임을 주게 했다. 박한 노임이었지만 일감이 많아 다행이었다. 이듬해 겨울부터는 성북동에 훈조막을 설치하고 숙련자를 보내 콩을 삶아 메주 담그는 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포백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하므로 연용대⁵ 훈조계 주민들이 맡아하던 일감을 일부 떼어 성북동 주민에게 할당한 것이다. 훈조막 1개소마다 술 2개씩 걸고 일꾼 5명을 두어 교대로 콩을 삶게 하였다. 콩 1석당 노임은 6전으로 쳤으나 돈 대신 쌀 2말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 모든 주민들의 권리와 또 그에 따르는 의무를 문서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이라는 문서이다. 왕명을 믿고 도



마전터 표석(성북초등학교 앞 교차로)



마전터 표석(2005년 설치)의 그림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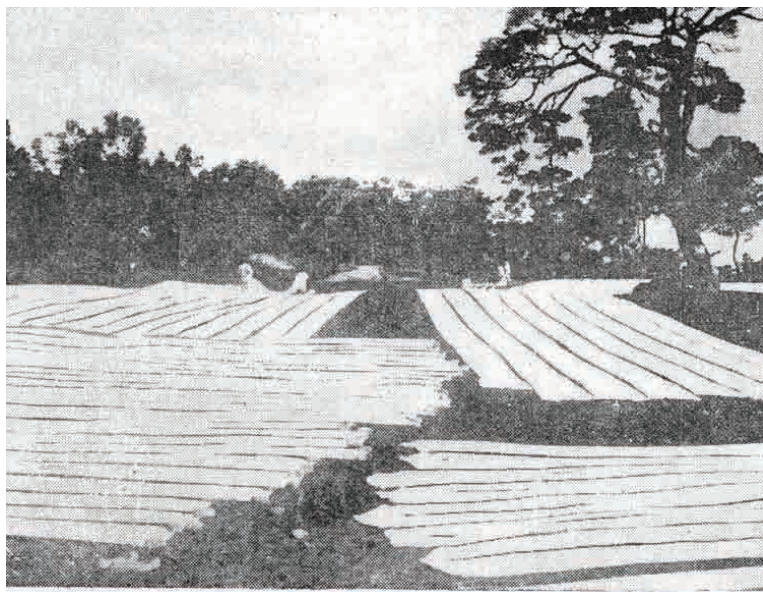
성 북쪽 황량한 골짜기로 들어와 살게 된 수십여 세대 성북동 사람들의 자생활 길이 이 문서에 밝혀져 있는 것이다.

매주 담그는 일은 왕조 말기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군영이 개편, 해체되면서 사라졌다고 해도 성안의 단골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마전 일은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히 성북동 주민들의 생업으로 남아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지금의 성북초등학교 앞 교차로가 마전터였으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성북동에 마전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마전일은 규모가 크고 힘이 필요한 일이라 주로 남자들이 도맡아 했다고. 다음에 인용하는 글은 200년 가까이 마전일을 생계수단으로 하여 살았던 옛 성북동 사람들의 시름과 기쁨을 잘 보여주는 신문 기사이다.

마전질을 하게 되었다.

동소문 밖 성북동은 호수가 70여 호에 생업 되는 바는 다만 포백 장 사뿐으로 날마다 문안 각 포백 단골을 삼아두고 포목을 가져와서 포백하는 것이 큰 생업인데 요사이 가뭄으로 인하여 동리 우물 29개소나 말라버리고 시냇물이 또한 말라서 포백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그 업을 폐지하다시피 전부 중지하고 그 대신 짚신과 기타 미투리를 삼아서 겨우 호구하기 때문에 동민의 생활난을 부르짖는 소리가 창천하던 바요 요사이로 가끔 비가 시작되어 다시 시냇물이 회복되었으므로 전과 같이 포백업을 시작하고 동민들은 매우 낙관을 하는 모양이라더라.

—『매일신보』 1917년 7월 5일자



성북동에서 마전하는 광경 (『동아일보』 1935. 5. 31.)

지난 날 마전을 위한 물을 공급하던 성북천은 말끔히 복개된 지 오래이다. 굽고 경사진 도로를 따라가면서 지금도 발아래에 흐르고 있다는 시냇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지만 헛된 일이다. 삶아진 천을 벌에 널었을 법한 물길 옆 널찍한 땅은 크고 작은 건물들에 자리를 내어 주었다. 옛 금녕약국 앞 인도에 작은 화강암제 표석 한 개가 외로이 서서 예전 이곳이 마전터였음을 알려줄 뿐이다. 그마저도 빼곡하게 세워둔 자동차들의 덩치에 가려 눈에 띄이지 않는다. 그 옛날 자신의 방패막으로 삼기 위하여 변변한 논밭 몇 마지기 없는 곳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살게 한 권력. 그 권력이 지도상에 그린 계획의 비할 데 없는 허술함을 현장의 사람들은 기나긴 배고픔 속에서 노동의 착실함으로 메

위 가야만 했다. 도저히 살 수 없음과 그래도 살아야 함이라는 깊은 모순 속에서 성북동의 새벽이 밝았다. 성북동만 그리하랴. 그와 같은 막막함에 맞닥뜨리지 않고 일군 살림이나 마을이 어디 흔할 것인가?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다시 옛 마전터 표석을 굽어보노라면 200년 전, 더운 여름날 술에 불을 지피고 무거운 포목을 저 나르며 땀 흘리던 성북동 사람들의 일노래 한 자락 들려오는 듯하다.

(백외준)

※ 덧붙이는 말

성북둔이 언제 폐지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01년(광무 5) 둔사를 허물었다는 대한제국 정부의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전 어느 시점에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기록은 성북동 농민 이낙현(李洛賢)이라는 사람이 내장원에 올린 소장(訴狀)으로 성북동 둔사 중 허물다 남은 7칸에 대해 재목 값을 내장원에 상납한 후 그 자리에 집을 짓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내장원은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라는 답을 보내와 청원을 기각했다. 당시 관리기관이 황실 재정을 맡아보는 내장원이었던 것으로 봐서 성북둔 터가 황실 소유지로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성북둔 터는 1908년 통감부의 방침에 따라 인근의 선잠단 터가 국유지로 전환된 것과 시기를 같이해 국유지로 전환되었다가 어느 시점에 민간에 불하된 것으로 보인다.

4. 복숭아 심은 뜻은 - 북둔도화

19세기 서울의 도시 경관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인 『한경지략』, 『경도잡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서에서는 서울 근교 명승지 중 하나로 모두 성북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복사꽃을 명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는 18세기가 끝나갈 무렵이나 19세기의 상황을 반영한 것일 뿐 그 이전에 성북동이 유명한 꽃구경 장소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북둔도화^{北屯桃花}’라는 멋진 신조어는 빨라도 1766년(영조 42) 성북둔 설치 이후에나 서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음이 분명하다.

영조대의 관료 김구주^{金龜柱}(1740~1786)가 지은 「다시 성북둔을 찾다^{再訪城北屯}」라는 한시에는 성북둔이 막 설치된 직후 개척 시기의 성북동 풍경이 나온다. 작품의 예술적 성취도를 떠나 초창기의 성북둔을 소재로 한 시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별반 구경거리도 없던 도성 바깥 황량한 마을의 적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이다.

북둔을 처음 설치할 때 여러 반론 물리쳤으니	北墩初設擯羣言
곳은 날 성황의 지극한 계책이 보존해 주었음이라.	陰雨城隍至計存
지난날엔 그저 평범하고 기다란 골짜기였을 뿐인데,	往者尋常一長谷
어느새 촌가 몇 호 벌려 있구나.	居然排列幾家村

푸른 계곡의 세찬 물소리는 누가 세고 있는지	緣溪迸澗誰爲葉
성곽을 등지고 밭 같고 김매면 넉넉한 군량 얻으리라.	負郭耘耕可餉屯

다시 맑은 가을 닥치니 계곡의 물과 돌이 좋을씨고. 更得清秋水石好
 나그네 와서 지팡이 짚고 물의 근원 어디냐고 묻는구나. 客來拄杖問窮源
 —『가암유고』제3권

김구주가 다시 성북동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일대는 긴 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물과 깨끗한 바위가 그럭저럭 보기 좋은 곳이었다. 아무래도 봄보다는 민둥산이나마 단풍과 수석이 어우러진 가을 풍경이 즐길 만했다. 김구주의 시에는 수량이 풍부한 골짜기 양옆의 땅을 쟁기로 갈고 호미로 감매면 충분한 식량을 얻어 살 수 있다는 탁상공



성북동의 무르익은 가을(2015). 우리옛돌박물관에서 내려다본 풍경이다.

론식의 허술한 판단도 여실히 드러나 있지만 이 마을에 복사꽃이나 그 밖에 다른 유실수를 심었다는 기미는 찾아볼 수 없다.

성북동이 복사꽃과 연관을 갖게 된 것은 포백훈조계를 조직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비로소 안정된 생업을 갖게 된 주민들은 집 주변 공지마다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등 유실수를 심어 가꾸기 시작했다. 관상용이라기보다는 성안 시장에 내다팔아 생계에 보탬 요량으로 기르는 나무들로 단연 복숭아가 주종을 이루었다. 몇 년 뒤 수형을 갖춘 나무들은 4월 곡우를 전후해서 초가 사이사이에서, 성북천 양안에서 분홍꽃잎들을 흐드러지게 피어 올렸다. 영조 42년(1766)에 성북둔이 설치되었으니 영조 재위 말년 혹은 정조 즉위 초에 이미 서울 사람들의 대표적인 꽃구경 장소로 이곳이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북둔도화’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도 이 무렵부터다.⁶

도성 사람들이 성북동으로 오는 길은 대개 한 가지로 정해져 있었다. 혜화문을 나와 성벽을 끼고 북쪽으로 2리(약 800미터)쯤 가면 선잠단과 성북둔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 아래는 성북동 뒷산에서 흘러내린 물길들의 합류 지점이어서 폭도 넓고 수량도 많았다. 본래 주민들이 마전터로 사용하던 곳으로 지금의 성북초등학교 앞 교차로이다. ‘북저동(北渚洞)’은 이 물가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여기에는 청운교(靑雲橋) 혹은 운수교(雲水橋)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의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성북둔이 막아서고 그 뒤편의 언덕을 오르면 온 마을을 복사꽃이 촘촘히 수놓은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다. ‘북둔도화’란 이런 장관을 일러 하는 찬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러 기록들을 종합할 때 성북둔이 있던 곳은 지금의



복사꽃, 복숭아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교목성 낙엽과수이다.
 꽃은 연한 홍색으로 4~5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열매는
 핵과(核果 : 단단한 껍질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열매)로서 난상 원형인데 8~9월에 익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송미술관과 성북초등학교 안 어디쯤이 아닐까 추측된다.

북둔에 놀러온 사람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1784년(정조 8) 봄, 채
 제공 蔡濟恭(1720~1799)이 지은 「유북저동기 遊北渚洞記」에 당시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혹 가다가 혹 앉다가 하면서 내려다보니 촌가가 점점이 산기슭에 흘
 어져 있는데 대체로 복사꽃으로 울타리를 삼았다. 창호의 일부나 처
 마의 모서리가 언뜻언뜻 울타리 밖으로 드러나 보였다. 도성의 인사



성북초등학교와 그 주변(2015).
 지금은 간송미술관 부지로 있는 학교 뒤편 언덕이 제법 높고 널찍하다.
 채제공 일행은 저 곳에 올라 '북둔도화'를 내려다보지 않았을까?

들은 달관에서부터 여항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놀고 구경함을 시간이
 모자란 듯이 열중하였다. 수레와 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노래 소리 번갈아 일어나며 사이사이 생황과 통소 부는 소리가 들려
 왔다. 국가 백년 승평의 모습이 다 여기에 있음이라.

—『변암집』 제35권

도성의 양반들뿐 아니라 여항의 서민들까지 와서 같은 공간에서
 놀고 갔다는 점이 흥미롭다. 대체로 이들은 아침을 먹고 나와 정오쯤
 성북동에 도착했으며 적당한 곳에 술상을 차려놓고 시를 지어 주고받
 거나 노래를 듣고 부르며 즐기다가 해질녘에야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
 다. 혹 채제공이나 김조순 같은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 성북동의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소소한 권세를 부리기도



성북동의 봄(2015). 성북문화원 옥상정원에서 내다본 풍경이다.

했다.

북촌도화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성북동 여기저기에서 도성 양반들의 별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볍지 않은 명예와 부를 가진 이들은 서민들이 사는 북저동과는 조금 거리를 둔 한적한 계곡이나 야트막한 언덕에 정원을 조성하고 그 사이에 기와집 몇 채를 들여놓았다. 용도는 주로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함이었다. 수려한 자연환경에다 도심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은 양반 별서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만족했다. 1790년 경부터 하나둘 조성된 별서는 19세말까지 꾸준히 그 수가 늘었다. 유득공의 북둔초당, 민영환의 음벽정, 의친왕 이강의 성락원, 윤용선, 이근택, 이종석의 별장 등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주인 미상의 별서로는 오로정, 성북정, 백운정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선시대 성북동의 별서 조성의 전통은 일제강점기의 양옥 별장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재벌들의 고급 주택지 조성으로까지, 시대마다 조금씩 형태를 달리해 이어졌다.

19세기에 조성된 별서 가운데 ‘오로정_{吾老亭}’은 북저동 서북쪽 성곽 아래 지역에 있었다고 전한다. 아마도 지금의 덕수교회나 심우장 부근의 어느 산림 지대로 추정된다. 정조와 순조 연간에 활동한 중인 문사 장혼_{張混}(1759~1828)이 이곳을 방문해서 지은 「북저동에서 놀다_{遊北渚洞}」라는 제목의 시는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이 별서의 조용한 공기를 전달한다. 부제를 「마을 서북쪽 성곽의 그늘에 기대어 새로 지은 정자가 있으니 ‘오로’라고 편액하였는데 심히 맑고 깨끗하였다. 벽에 쓰다(洞西北附城陰 有亭新構 扁曰吾老 甚精灑 走題壁上)」라고 하여 별서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무성한 송림 사이로 흘러내리는 한 줄기 시냇물,	一流水夾萬株松
몇 리를 가도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하네.	數里行過人未逢
연기 피어 올리는 집 몇 채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烟火幾家隱何處
천길 절벽 위 망루 하나 외로운 봉우리에 기대고 있네.	城譙千仞倚孤峰

피꼬리와 노는 그대여, 피로 덮은 정자가 좋구나	黃鸝遊子茅亭好
푸른 이파리 한가한 구름, 한낮의 경치가 농염하다.	綠葉閑雲午景濃
온종일 누구는 여길 별천지인양 생각하는데	鎮日誰知濠濮想
성문으론 수레와 말이 다투어 달려가네.	郭門車馬競相從

—『이이엄집』 제7권

19세기에 조성한 별서정원인
성락원의 가을(2015).
'성락城樂'이란 이름은 이백의
시 「촉도난蜀道難」에서 글자를
따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바로 다음 구절.
'금성이 비록 즐거우나 일찍
집에 돌아옴만 못하다
(錦城雖云樂 不如早還家).'



이 오로정이란 별서의 존재는 1803년(순조 3)에 이만수가 지은 「오로정」이라는 한시에서도 확인된다. 추측컨대 늦어도 순조 연간부터는 성북동 산간의 적당한 곳에 아름다운 별서들이 속속 조성되고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보면서 성북동 별서들의 이름, 위치, 조성연대, 소유주 등을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1766년 선잠단 부근에 성북둔이 설치된 이후 수십 호 규모의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들 성북동

주민들은 포백훈조계가 조직됨으로써 비로소 안정된 생업을 갖게 되었다. 그 후 이 마을이 북둔도화로 알려져 근교의 명승지로 떠오른 것은 빨라야 1780년대의 일이며 1800년을 전후로 해서 도성 양반들의 별서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 결과 초창기 선잠단과 성북둔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의 범위는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저 너머 깊숙한 산림 지대로까지 확장되었다. 일반 서민과 상류층의 주거지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공존하는 성북동 특유의 양극적 삶의 구도는 이즈음 어슴푸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백외준)

채제공의 성북동 유람기 - 「유북저동기(遊北渚洞記)」

정조 하면 떠오르는 명재상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번암 채제공이다. 남인 청류당의 영수로서 영·정조 연간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임금과 백성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던 신하. 사람들은 그를 번옹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렀다. 그런데 그런 그도 시련의 시기가 있었으니 1780년(정조 4) 당시 병조판서로 있던 채제공은 세도가 홍국영이 축출 당하면서 그 역시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임금 곁을 떠나야만 했다. 그의 나이 61세 때의 일이었다. 이후 채제공은 무려 8년간이나 도성 출입을 자제하며 수세에 몰린 군사 모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아직 그가 재상으로 등용되어 신행통공이나 수원화성 축조라는 빛나는 업적을 세우기도 전이었다.

조정을 떠난 채제공의 유일한 낙은 도성 안팎의 명승지를 얼마 남지 않은 친구나 후배 관료들과 유람하는 일이었다. 그중에 오랜 동학이자 친구로 지내는 여와餘窩 목만중睦萬中(1727~1810)이 없었다면 유람의 재미가 얼마간 떨어졌을지 모른다. 손자 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채 포의로 지내는 목만중은 자주 남대문 밖 약현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와 산으로 물가로 바람 쐬러 나가자고 권했다. 정치니 당파니 세사를 모두 잊고 친구와 함께 유유자적 지내는 맛이 좋았다. 비록 낙백한 처지이지만 욕심 노인이 뭐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늘그막에 정계에서 물러나 있는 자신의 신세가 그리 처량해 보일 것도 없었다. 오히려 언제 또 이런 생동하는 시절이 올까 하는 초조감마저 들었다. 그런 염려 때문인지 채제공은 물러난 지 4년째 되는 1784년(정조 8) 봄, 목만



채제공 초상(보물 제1477-1호,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73세 때의 모습으로 조선 제일의 초상화가 이명기(李命基)가 그렸다.
그림에서 손에 든 것은 정조로부터 받은 향낭과 부채이다.

중과 함께 도성 안팎의 정치 좋은 곳에 가서 놀았던 일들을 차곡차곡 글로 써서 보관해 두었다. 「유북저동기(遊北渚洞記)」는 그해 봄에 쓴 네 편의 기문들⁷ 중 대미를 장식하는 글이다. 붓이 차분히 주군의 자취를 따라가며 적은 듯한 그의 기문을 읽노라면 18세기 후반 성북동의 어느 봄날 풍경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다가온다. 아래는 필자가 그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읽기 쉽게 6개의 장면으로 나누었다.

#1. 출발

이씨의 정원에서 놀다온 지⁸ 며칠 못되어 여와 목유선(유선은 목만중의 자)이 북저동 꽃구경에서 돌아와 곧바로 나에게 와서는 북저동의 멋진 경치에 관해 진진하게 풀어 그 이야기가 입에 떠나지 않았다. “내일을 보내면 꽃 또한 시들 것이요. 공께서 만약 북저동에 갈 뜻이 있다면 비록 날마다 간다고 할지라도 공을 따르겠소. 남들은 흠미쳤다고 하면서 불쌍히 생각지도 않으리다.” 나는 그를 잡아끌어 하룻밤 내 집에 묵게 하고는 이튿날 날이 밝아올 즈음 나란히 말을 타고 집을 나섰다. 학사 이공회 · 계수(이정운 · 이익운의 자)형제와 서공, 홍선(모두 채제공의 인척), 홍원(채제공의 아들)이 따랐다.

遊李氏園未數日 餘窩 睦幼選 賞花北渚洞歸 直抵余 津津說
北渚勝不離口 且曰 度了明日花且凋 公若有意乎 雖日日往 願從
之 人或謂之狂 當不恤也 余挽以宿 遲明僦馬出 李學士公會季受
兄弟及敍恭弘選弘遠輩從

#2. 혜화문을 나와 선잠단 앞까지

혜화문을 나가 북성을 돌아 꺾으니 몇 리 못가서 골짜기가 입을 벌리듯 열려있으니 이른바 ‘북저’라는 곳이다. 비로소 골짜기 안으로 들어서니 제단이 하나 있는데 남쪽을 바라보고 사면에 계단을 두었으며 담장을 낮게 둘렀고 홍살문을 사면에 세웠다. 해마다 여기서 춘삼월에 선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한다. 백보쯤 더 가니 마을 사람들이 냇물 위로 다리를 놓고 있었다. 다리 아래에는 여러 물길이 모이고 있어서 물소리가 흥흥했다. 다리 남쪽으로 우묵한 곳이 있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복사꽃 무더기가 비단으로 장막을 친 듯 물가 이편과 저편이 온통 붉었다. 마음속으로 필시 이상한 것이 있으리라 여겼으나 짐짓 그런 생각조차 놓아버린 채 반듯한 길을 취하여 걸어가니 아무런 조짐도 없었다.

出惠化門 循北城以折未數里 洞呀然以開 卽所謂北渚也 纔入洞 有壇面南四出陞 繚以短牆 其門彤 四之 每歲春三月祭先蚕云 行可百許步 居人橋其川 橋下衆水所會 水汹汹有聲 橋之南有谷 不知淺深 桃花團作錦障 兩厓通紅 心以爲必有異也 然姑捨之 取直路行無幾

#3. 북둔도화

또 다리를 건너니 어영둔(성북둔)이 막아섰다. 뜰과 건물이 제법 너럭했다. 둔의 밖에 있는 작은 연못은 돌담을 둘렀는데 지음새가 비록 엉성하고 번잡했으나 꽃이 물에 거꾸러져 꽃 그림자가 아물거리고 줄기가 구부러져 암벽과 맞닿아 궁룡 모양을 하고 있어 병풍이나 장막 같았다. 바위 밑을 보니 베짖이 반 모래 반이었다. 혹 가다

가 혹 앓다가 하면서 내려다보니 촌가가 점점이 산기슭에 흠어져 있는데 대체로 복사꽃으로 울타리를 삼았다. 창호의 일부나 처마의 모서리가 언뜻언뜻 울타리 밖으로 드러나 보였다. 도성의 인사들은 달관에서부터 여항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놀고 구경함을 시간이 모자란 듯이 열중하였다. 수레와 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노래 소리 번갈아 일어나며 사이사이 생황과 통소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국가 백년 승평의 모습이 다 여기에 있음이라.

又度橋抵御營屯 庭宇頗寬 屯之外小塘甃以石 制雖略繁 花倒水其影不定 稍迤巖壁窿然 如屏如障 巖之下莎與沙半之 意行意坐俯視之 村家點點分麓 大抵以桃花爲藩籬 隱約露出者 或牕之半 或簷之角也 都人士自達官 至閭巷民庶 遊賞如不及 車馬殷殷轟轟 歌呼迭作 間以笙簫 國家百年昇平之象 盡在是矣

#4. 교남골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 열 내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참지 못하므로 제군들과 함께 왔던 길을 도로 취하여 교남골이라 하는 곳을 찾아갔다. 그윽하고 조용한 골에 물은 더욱 맑고 꽃은 더욱 번성하여 두 다리가 가볍게 들러 춤추는 듯하므로 쇠하고 또 병들을 몰랐다. 여러 번 시내를 위태롭게 건너서 성뿌리에 미쳐 멈추어 서니 그곳에 너댓 칸 규모의 찌집이 있었다. 쓸쓸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의 집이었다. 마침 집주인이 막 술을 빚어 그 향기가 바깥으로 퍼져 나왔다. 공회개 몇 잔을 사서 마시고 곧바로 칭찬하며 이르되 “술맛 참 좋다”고 하였다. 얼마 뒤 성중에서 가져온 떡과 밥이 도착하였으므로

절벽에 자라는 소나무 아래 부들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아 먹었다. 다 먹고 난 뒤에 해를 보니까 신시쯤(오후 3시~5시) 되었다.

余靜者 不耐閤熱 與諸君還取來路 尋向所稱橋南谷者 谷竊以容水益清花盆盛 僊僊然兩脚輕舉 不知衰且病也 屢度溪危 及城根而止 有茅茨四五間 蕭灑可愛 主人方釀酒 香聞于外 公會買數盞飲 亟稱曰美哉 已而 餅飯自城中至 鋪席崖松下列坐以食 食訖 日已晡矣

#5. 북둔 연못에 비치는 달빛

음식을 가져온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나와 더불어 세 사람이 각각 시 한 편씩을 지었다. 싸늘한 산기운을 머금고 석양을 마주하면서 다시 창둔(성북둔)으로 돌아오니 낮에 놀던 사람들은 돌아가고 흰 달만이 텅 빈 하늘에 홀로 떠 있었다. 연못 위에 호젓하게 앉아 있노라니 잠자는 것도 잊었다. 달은 색이고 꽃은 향일뿐이어서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아도 그중 무엇이 많고 적은지 알지 못했다. 공회는 매우 흥이 나서 제 도포까지 전당 잡혀서 술을 사 마셨다. 재차 시 한 편씩을 짓고 나니 서너 번은 북이 울렸을 때가 되었으므로 서로 어울려 창사(성북둔)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잠자리가 향기의 나라에 있는 것만 같았다.

送兒輩還 余與三子者 各賦詩一篇 待山氣向曛 復還倉屯遊人歸 獨素月在空 坐池上 熙熙然忘寢 月以色花以香 目之所寓 鼻之所觸 未知其孰多孰少也 公會興甚 典其袍買酒以飲 又各賦詩一篇 時夜可三四鼓 相與歸倉舍以宿 枕席如在衆香國矣

#6. 감회

내가 누워 이 북저동을 생각함은 지금 북저동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일어나 북저동을 잊어버림은 지난날 북저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북저동에 찾아올라치면 불과 반 식경의 말 타는 노력만 들이면 되는 것인데 한 번도 이르지 못했음은 북저동에 장대하고 기괴한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막 처음 북저동에 이르러 여기저기 배회하며 기쁘게 감상하기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함이 있음은 어찌 뒤늦게 왔다는 아쉬움 때문이겠는가? 깊숙이 들어간 구역에 깊은 골짜기가 기이한 절승을 품은 경치가 이보다 열배 백배 좋은 곳이 있음을 어찌 이루 다 말하겠나마는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황량한 길로 남아 언제까지나 묻혀 있을 것이다. 오호라! 이를 미루어 돌아보건대 어찌 유독 그러하겠는가?(가까운 곳의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말—역자) 간밤에 이를 여와(목만중)에게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니 문득 감개가 밀려와 붓을 드노라.

余卧念兹洞 非今有也 我興 非昔無也 以我而尋茲洞 不過費徒御半餉之勞而曾不能一至者 以茲洞之無蟠木之容也 今乃始至焉 徘徊歎賞 有若得見其不可見者然 何其晚也 深區奧壑 懷奇抱勝 有十倍百倍於茲者何可勝道 而若不見知於人 則荒塗古今 埋沒以終焉耳 嗚呼 推是以反 奚獨山與水爲然 既以是語餘窩 朝起感慨以書

주석

- 1_ 백악 동쪽 성벽에 통진·남양·이천, 낙산 성벽에 옥천·서산·홍산·부여 등의 군현명이 보이는데 이것도 모두 이때에 새긴 것이다.
- 2_ 성북문화원 편, 『선잡단과 길쌈이야기』, 성북문화원, 2010, 112쪽.
- 3_ 둔전(屯田)은 고려·조선 시대에 군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설치한 토지를 말한다.
- 4_ 이들은 평시에는 일반 백성처럼 농사짓고 살다가 유사시에 동원에 응해야 하는 양역을 진 사람들이었다. 일반 주민이면서 동시에 군사인 셈이다.
- 5_ 옛 탕춘대성. 지금의 종로구 신영동 172번지 세검정 위 길가 바위에 ‘연용대(鍊戎臺)’ 석자를 새겼다. (서울지명사전, 200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6_ 유득공은 그의 저서 『경도잡지(京都雜誌)』에서 서울의 대표적 유상지(遊賞地)로 ‘필운대의 살구꽃, 북둔의 복사꽃, 흥인문 밖 버드나무, 천연정 연꽃, 삼청동과 탕춘대의 수석’을 꼽았다. (弼雲臺杏花 北屯桃花 興仁門外楊柳 天然亭荷花 三清洞蕩春臺水石 觴詠者多集于此)
- 7_ 『중유조원기(重遊曹園記)』, 『유오원기(遊吳園記)』, 『유이원기(遊李園記)』, 『유북저동기(遊北渚洞記)』 네 편의 글이 같은 책에 전한다.
- 8_ 『유이원기(遊李園記)』에 자세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일제강점기의 성북동(1910~1945)

1. 일제강점기 성북동의 행정구역 명칭 변화

‘5부 8면제’의 실시 :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 성북동

성북동은 조선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한성부漢城府에 속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이 때 성북동의 명칭은 ‘한성부 동서東署 송신방崇信坊 동소문외계東小門外契 성북동’이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1945년까지 성북동의 행정구역 명칭은 네 번 바뀐다. 첫 번째 행정구역 변화는 1911년에 이루어졌다. 4월 1일 경기도 내에 면의 명칭 및 구역을 정하는 법령인 경기도령 제 3호가 발표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경성부는 동·서·남·북·중 5개 부部와 8개의 면面으로 재편되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5부부 8면제面制’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5개부와 8개 면 아래에는 661개 동洞과 리里가 속하게 되었다. 성북동은 8개 면 중 하나인 송신면崇信面에 속하게 되었다. 송신면은 성북동을 포함하여 40여개의 동과 리로 구성된 면이었다.¹ 1911년 4월 1일 이후 성북동의 주소는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 성북동’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 법령에 따라 형성된 경성부의 총 면적은 약 62.84km²(16方里)이었다. 부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부장을, 면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면장을 두었다. 이들은 경성부의 최고책임자였던 부윤府尹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군과 면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²

부제府制의 실시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조선총독부는 1913년 10월부터 1914년 4월까지 지방제도 개혁을 실시했다. 1913년 10월 30일 제령制令 제 7호로 부제府制를 실시할 것이 발표되었다. 이후 총독부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법령을 발표했다.³ 이에 근거하여 1914년 4월 1일부터 경성·인천·군산·목포·대구·부산·마산·평양·신의주·원산·청진 12개 지역에서 부제가 실시되었다.

이 때 성립된 부府는 이전 부府와 성격이 달랐다. 새로 만들어진 부는 그 산하에 면面이 있지 않았다. 지방행정의 기초단위로서 부가 성립된 것이다. 새롭게 부가 성립되면서 기존행정구역 산하에 있던 면은 분리되어 군 아래로 배치되었다. 이 때 분리된 면은 주로 농촌지역이었다. 면을 제외한 시가지 지역은 새로운 부가 되었다. 새로 성립된 부는 지방행정상 도시지역만을 관할하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면적은 이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경성부의 면적은 약 36km²이었다.

경기도는 1914년 3월 13일 도령道令 제 3호를 발표하여 도내의 명칭과 구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경성부 8면 중에서 일부는 경성부로 편입되었고 일부는 경기도 고양군高陽郡으로 편입되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양군은 총 3개면 155개리로 구성되게 되었다. 고양군으로 편입된 지역은 용강면龍江面, 연희면延禧面, 은평면恩平面, 송인면崇仁面, 독도면蠓島面, 한지면漢芝面 6개 지역이었다. 성북동은 송인면에 속하게 되었으며 명칭은 성북리로 바뀌게 되었다. 송인면은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1914년 발간된 「경성부시가강계도(京城府市街疆界圖)」.
 새로 지정된 동명과 경계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土地調査局)의
 교열을 거쳐 그해 6월에 다시 찍은 것이다. (출처 : <http://gis.seoul.go.kr/>)

새로 만들어진 면이었다. 옛 경성부 송신면崇信面과 인창면仁昌面 중에서 한지면에 속하게 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형성되었다. 송신면의 송崇자와 인창면의 인仁자를 따서 송인면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송인면 아래에는 22개의 리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고양군내에서 가장 많은 리로 구성된 면이었다.⁴

경성부에 편입된 성북리 : 경성부 성북정

1914년 부제 실시 이후 경성부의 면적은 약 36km²이었다. 당시 경성부의 인구는 대략 40만이었는데 이 인구를 수용하기에 경성부의 면적은 매우 좁았다. 경성부의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1930년대에 들어서 이루어졌다.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 경성부 부윤府尹은 1932년 12월 27에 있었던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시계획령都市計劃令의 시행과 함께 경성부의 구역을 크게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성부는 부의회府議會에 경성부 확장에 대해 안을 상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경성부에 편입될 고양군, 시흥군, 김포군 관계자들과 회합을 가지면서 경성부를 확장할 준비를 했다.⁵

경성부의 구역확장에 대해 규정한 총독부령總督府令 제8호가 1936년 2월 14일 발표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경성부의 구역은 동쪽으로 송인면 내의 중랑천中浪川 우안右岸의 지역, 서쪽으로 고양군 연희면 일부와 용강면 전 지역, 남쪽으로 한지면 일원 및 시흥군 내 영등포읍 전역, 북쪽으로 고양군 은평면 지역 일부 및 송인면 정릉천 이남 등의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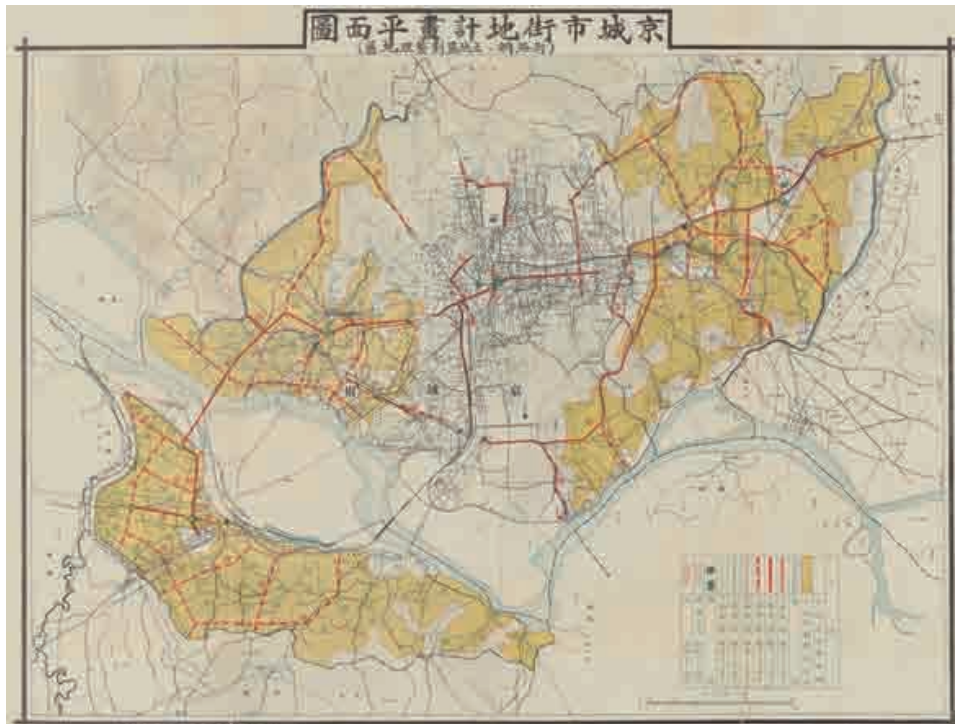
성북리가 속했던 송인면의 일부 리는 경성부로 편입되고 일부 리

는 송인면으로 남게 되었다. 성북리는 돈암리, 신설리 등과 함께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명칭도 성북리에서 성북정城北町으로 바뀌게 되었다.

1936년 구역확장으로 경성부의 면적은 기존의 면적에 비해 약 3.7배가 늘어나 약 136km²이 되었다. 인구도 23만 2천여 명이 더해져 약 63만 6,800명을 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였다.

관할 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경성부는 관리상의 이유로 용산龍山, 동부東部, 영등포永登浦 세 출장소를 설치했다. 송인면에 속했던 여러 동리는 동부출장소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북정은 동부출장소 관할에 들어가지 않고 경성부 본청本廳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⁶ 성북정의 위치가 경성부 본청과 더 가깝기 때문에 행정상의 효율성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바로 지켜지지 않았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 확장안이 실시되고 성북정이 경성부의 본청에 속하게 되었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성북정의 행정사무는 동부출장소에서 취급하였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성북정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동부출장소는 신설정(현재 신설동)에 있었는데 1936년 당시 교통상황 등을 생각해볼 때 성북정에서 신설정까지 왕복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북정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경성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결과 경성부에서는 1936년 6월 22일부터 성북정에 관한 사무를 경성부 본청에서 취급하도록 결정했다.⁷



1936년 편찬된 『경성시가지계획면도京城市街地計畫平面圖』. 1936년 경성부관할지역이 확장된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로확충계획과 관련된 1:25,000 지도이다. 노란색이 경성부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편입된 지역이다.(출처: <http://gis.seoul.go.kr>)

구제區制의 실시 : 경성부 동대문구 성북정

1937년 이후 경성부의 지방행정 분야 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침략정책 때문이었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으며, 1941년 12월 8일에는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업무에 공출 및 식량통제 등과 같은 시국사무가 더해지면서 지방행정 업무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구증가였다. 1930년대 들어서

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경성부의 인구는 1936년 구역확장 이래로 더욱 늘어나 1940년경 경성부의 인구는 대략 100만 가까이 되었다.

이와 같은 늘어나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성부는 경성부 본청 및 각 출장소의 직원을 증원했다. 그리고 1940년 7월 1일에는 새로운 출장소인 서부출장소西部出張所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폭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했다. 조선총독부, 경기도, 경성부는 합의 끝에 경성부에 구區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했다. 1943년 6월 9일 총독부령 163호로 「경성부 구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1943년 6월 10일부터 ‘구제區制’가 실시되었다.

용산, 동부, 서부, 영등포 출장소는 폐지되었다. 동부출장소 관내는 동대문구와 성동구로 개편되었으며, 용산출장소는 용산구로, 서부출장소는 서대문구로, 영등포출장소는 영등포구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함께 경성부 본청이 담당했던 지역은 종로구와 중구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각 구에는 구장區長을 두고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처음 구가 설치될 때 구장은 모두 일본인이었다.⁸

구제의 실시에 따라 성북정은 종로구에 속하게 되었다. 경성부 본청에서 성북정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구제가 실시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1944년 11월 1일에 성북정은 종로구에서 동대문구로 편입되었다.⁹ 성북정이라는 명칭은 해방 이후인 1946년 10월 1일 일본식 동명을 고치면서 성북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남기현)

2. 일제강점기 도시화되는 성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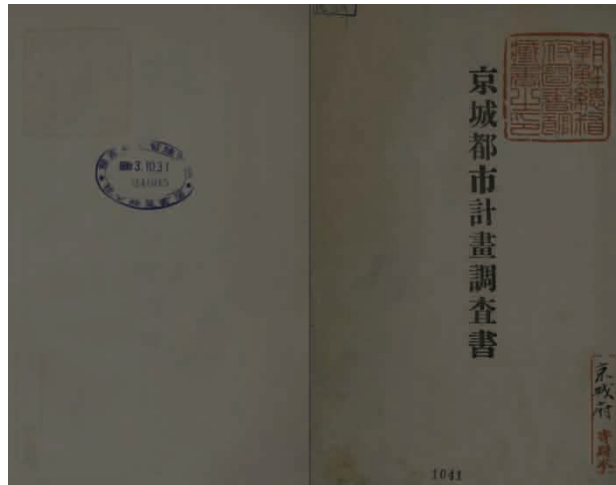
‘경성도시계획’과 성북동

조선총독부는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 도시계획을 세우고 진행했다. 총독부가 진행한 도시계획의 시초는 시구개정사업市區改正事業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기존 도로의 폭을 넓히고 도로 양쪽에 하수도를 만들고 주요도로는 포장을 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실시된 것은 경성, 부산, 대구, 평양 등 몇 개 주요 도시에 불과했다. 경성의 경우에도 대부분 4대문 안으로 한정되었다. 성북동이 있던 혜화문 밖 지역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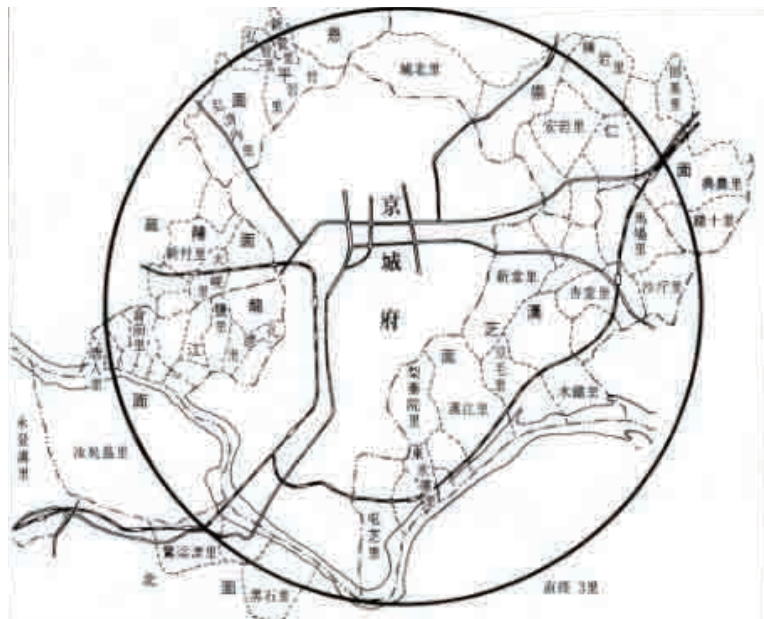
구체적인 경성부의 도시계획안은 1926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다. 이 계획안은 실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성북 지역이 포함된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926년 상반기에 제 1차 계획안이 작성되었다. 이 계획안은 성북 지역이 최초로 포함된 도시계획안이었다. 이 계획안은 구체적인 내용과 도면이 남아 있지 않다.

제 2차 도시계획안을 담은 『경성도시계획조사서京城都市計劃調査書』라는 책자가 1928년 9월에 발간되었다. 이 계획안에는 경성의 동남부였던 고양군 한지면 전체와 송인면 22개 동리 중 11개 동리가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었다. 성북리는 도시계획안에 포함된 지역이었다.

제 3차 도시계획안을 담은 『경성도시계획서京城都市計劃書』가 1930년에 발간되었다. 이 계획서에서 성북리가 포함된 송인면에 대해서 “동부 한지면, 송인면 일대는 청계천이 관류하여 평탄한 토지를 가졌으며 경원선이 남북으로 종관하여 금후 자연적으로 시가지로 발전할



1928년 9월에 발간된 『경성도시계획조사서京城都市計劃調查書』의 표지



『경성도시계획 구역도(1928)』(『성북구지』, 296쪽)

지대이다.”라고 기록되었다. 이 계획안에는 모두 192개의 가로계획선街路計劃線이 제시되어 있다. 이중 오늘날 성북구와 관련된 노선은 총 13개였으며, 성북동과 관련된 노선은 총 2개가 있었다. 성북동이 포함된 총 3번에 걸친 도시계획안은 일본 및 조선 내에서의 냉담한 반응과 재원 조달의 곤란으로 실행되지 못했다.¹⁰

조선총독부는 1936년 3월 26일 고시 제190호로 경성시가지계획구역京城市街地計劃區域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경성부는 1936년 2월 14일 발표된 조선총독부령 제18호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확장된 상황이었다. 성북리의 경우 경성부에 새롭게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경성부시가지계획 구역에 포함되었다. 이 계획에는 경성부 도심에서부터 전차, 자동차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지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 성북리에서 도심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는 3,050m, 가장 먼 거리는 4,400m로,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40분이었다. 한편 성북지역에 2개의 도로가 만들어질 것이 계획되었다. 도로번호 13번은 혜화정 광장에서부터 성북정까지 연결되는 도로였다. 도로번호 14번은 돈암정에서부터 성북정까지 연결되었다.¹¹

조선총독부는 1941년 3월 25일 총독부고시 제337호로 풍치지구風致地區를 고시했다. 이것은 경성부시가지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경성부는 1937년부터 25년 동안 총 예산 1억 원을 들여 근대도시로서의 모든 시설을 완비시킨다는 도시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상공업지대, 주택지역, 풍치지구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당시 발표된 풍치지구는 녹지지역綠地地域 또는 보존녹지지구保存綠地地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풍치지구로 지정되면 원칙

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토석^{土石}의 취급이 금지되거나 억제되었다. 총독부는 풍치지구를 정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먼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근교지역의 토지와 임야가 개발되어 산림의 수목은 벌채되고, 사적 및 기타 명승지라고 하더라도 그 자취를 잃어 가옥 밀집지대로 변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의 위생과 정서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풍치지구는 “부내에 산재한 대소 공원과 함께 부민의 산책지가 되어, 우울한 빛깔인 회색이 농후한 도화에 신선한 녹색지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¹²

풍치지구는 총 20개 지구가 지정되었다. 현재 성북구 관내에 포함되거나 성북구에 걸치는 곳은 총 4개 지역이었다. 성북동 뒷산에서부터 돈암동, 미아리고개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다.¹³

1930년대 성북동 풍경 : 김동섭의 수필 「성북의 향기」

1930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동아일보』에 「성북의 향기」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김동섭^{金東燮}이라는 작가가 수필 형식으로 성북동에 관해서 쓴 글이었다.¹⁴

이 글은 작가가 혜화동에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나가면서 본 광경을 묘사하면서 시작한다. 이 고개를 작가는 아리랑고개라고 칭했다. 고개 왼편에는 학교가 있었다. 작가는 고개를 넘어가면서 훼손된 혜화문을 보며 아쉬워했다. 일제는 혜화문이 하반기에 퇴락했다는 이유로 1928년 하반기에 문루를 헐어버렸다. 김동섭은 이것을 묘



삼선교 쪽에서 바라본 혜화문(1910년대)

사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⁵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면 성북동이 보인다. 김동섭은 성북동이 보이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훨씬 아래 점, 점, 점 보이는 집들이 있는 곳이 성북동이라나! 아
늑한 초가지붕이 무한감無限感을 광문廣聞시킨다.

언덕 밑으로 집이 드문드문 보이고 초가 지붕들이 보인다. 1930년 현재 성북동은 도시라기보다는 조용한 시골 같은 느낌이 든다. 성북동의 전원적인 모습을 작가는 더 묘사한다.

노란 잔디도 속잎이 난다. 잔디! 하면 성북동을 생각하리라 성북동! 하면 잔디밭을 생각해야 말리라. …… 이끼가 낀 폐허의 성 앞에 소녀들의 나물바구니를 어떻게 표시해야 좋을까? 달래도 캐고 냉이도 캐고 씀바귀도 캐고 꽃다지도 캔다. 성 밑으로 흙을 쑤석쑤석 해 논 사리는 소녀들의 나물 캐고 간 자취일 것이다. …… 소 모는 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어서 그런지 조춘정경早春情景이 심금을 울린다. …… 상처도 심고요, 시금치도 심고 며칠 지나면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으렵니다. 이랑 옆에 이른 옥수수도 심고 감자구멍도 파렵니다. 이것은 밭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과 채마전을 가는 사람과의 친절한 대화다.

김동섭은 성북동 하면 잔디가 생각난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성북동의 들판에 새싹이 나고 있다. 소 모는 소리가 들리고 밭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과 채마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여유가 있다. 작가는 성북동에서 마음의 휴식, 안식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가가 생각하기에 정겹고 조용한 성북동의 경치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산책, 피크닉을 온 일본 여자와 남자였다.

처마 저쪽엔 앵두나무가 몇 그루 있는가 하면 진달래나무의 꽃 매듭과 복사나무의 꽃 매듭은 금방에 그만 봉오리가 피려는 듯이 볼록볼록! 하고 있다. …… 이리하여 성북동엔 꿀벌도 모이고 나비는 날고 노고지리 운작雲雀하는 잔디밭 위 상공에서 한껏 울고 노래를 부를 때가 온 것이다. …… 그러나 벌써 ‘산도횃치픽닉’이 시작된다. 일본

여자의 능청거리는 걸음과
그녀 옆에 병정 같은 사나
이의 두 볼엔 산도횃치를
미어질 듯이 씹는다.

김동섭이 생각하기에
정겹고 조용한 성북동의 경
치에 휘방꾼이 있었다. ‘산
도횃치픽닉’, ‘샌드위치픽닉’
을 즐기는 일본 남녀였다.
그들은 성북동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
다. 성북동은 경성부와 가까
운 지역이었다. 자동차를 이
용할 경우 40분 이내에 도착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성북동 주변은 풍치지구로
정해질 정도로 경관이 아름
다운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
에서 인지 성북동은 소풍 장
소로 인기가 있었던 곳으로
생각된다. 경성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성북동 주변의 경관에 대
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¹⁶



1930년 3월 27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수필
「성북의 향기」(1)

이 지역은 북악의 동방에 연속된 산지 및 이것과 한성 성곽과의 사이의 계곡지대로서 산복사면山腹斜面 및 계곡 간에 번무繁茂하는 송수松樹는 수세樹勢가 왕성하다. 또한 기업색택技葉色澤의 생기는 삼청동과 필적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김동섭은 성북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산이 고요해서 태고와 같다!”란 말은 성북동을 두고 이름이 아닐는지.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저녁밥을 먹으면 산사에 와서 이 세상에 둘도 없이 가장 친한 벗과 오붓이 밥 사먹는 느낌이 난다. 그 고요함. 그어 둠. 그 바람. 그 정취 …… 그름밤이 되면 절벽과 같이 껌껌하고 그와 반대로 달밤이 되면 진세塵世가 아니라는 듯이 교교皎皎하다. 멀리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린다 할까. 성북동은 그렇다. …… 봄이 행진하면 할수록 성북동은 성북동의 천재天才를 발휘하리라. 자신은 분장扮裝한 교태嬌態를 자랑하리라. 그리고 한없는 예찬과 끝없는 감탄을 받으리라.

김동섭은 성북동을 고요함, 어둠, 정취, 바람, 오붓함이라는 단어로 묘사했다. 삶에 힘들었을 때 성북동의 정경과 분위기는 작가에게 힘을 주는 존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북동이 변하고 있었다.

성북동에 별장이 많다. 그것은 예전날 일이려니와 요새는 없던 집이

들어서곤 또 들어선다. 늙은 울송鬱松 밑에 양관洋館이 있는가 하면 좌청룡 우백호를 서로 응應하고 화和해서 네 귀를 든 조선식 건물이 있다. 그 뒤로 빠르게 내다보는 아담한 모던빌딩이 보인다. 성북동은 이렇게 기氣를 피우고 있다. 어떤 사람은 십년 뒤 평坪값까지 구구九九를 치기도 한다. 집거간이란 새 직업이 마전으로 먹고 사는 이 동리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성북동을 사랑했던 작가는 성북동이 변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것을 위와 같이 표현했다. 위 인용문의 마지막을 보면 성북동의 땅값이 오를 것을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 필자는 이들을 ‘집거간’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북동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집거간은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업자이다. 성북동은 이제 발전할 운명에 있었다. 그래서 땅값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별장이 많고 마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위주였던, 시골 동네였던 성북동은 이제 변하고 있었다. 서양식 건물과 새로운 조선식 집들이 속속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부동산업자들이었던 ‘집거간’들은 이러한 성북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1930년대 성북동 풍경 : 이태준의 소설 「달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하였다.¹⁷



이태준의 소설 「달밤」이 게재된 잡지
「중앙」의 표지

우리나라의 대표적 단편소설 작가인 이태준의 소설 「달밤」 주인공 ‘나’가 말하는 성북동의 모습이다. ‘나’는 성북동을 시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시냇물 소리와 솔바람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황수건은 못난이였다. 소설 속 ‘나’는 “못난이들은 서울에서 대놓고 살 수 없는데 성북동은 시골이기 때문에 못난이 황수건이 눈에 더 잘 띈다.”고 했다. 시골에서는 황수건과 같은 사람들이 도시에서보다는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이러한 황수건도 이제 성북동에서 살기가 힘들어진다. 성북동에서 ‘노랑수건’하면 자신을 다 알 정도로 유명했던 황수건은 성북동 내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성북동이 신문사의 한 구역으로 배정되면서 신문배달 보조역 직을 잃게 된다. 참외장사는 잘 되지 않고 아내는 달아났다. 소설의 주인공이 보는 황수건은 처량하다. 소설 「달밤」에서 나타나는 성북동은 이제 옛날 시골 동네가 아니었다. 시골이 아닌 성북동에서 황수건이 차지할 곳은 없었다. 1933년 현재 이태준은 변화하는 성북동의 모습을 이 짧은 소설에 담은 것이다.

성북동이 신문사의 한 구역으로 배정되었다는 것은 성북동의 인구가 증가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1915년에 조사된 성북동의 인구는 총 810명이었다. 그 후 5년이 지난 1920년에는 5명 줄어들어 805명이 거주했다. 성북동의 인구는 193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했다. 1930년 조사에 따르면 성북동의 인구는

1,666명으로, 1920년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다.¹⁸

한편 1933년 말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성북리에는 총 589호가 있었다. 이 중 농업호수는 2호로 전체 호수의 0.3%에 불과했다. 일제하 1930년대부터 경성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교외지에는 비농업인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토지도 점포, 주택, 공장 등 비농업적 용도로 전환되었다.¹⁹ 경성부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성북리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남기현)

문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성북동

일제시기 발간된 유명한 잡지였던 『삼천리』에는 성북동에 관한 몇 가지 기사가 실려 있다. 1933년 10월에 발간된 잡지에 따르면 서울 부근은 모두 경치가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성북리는 산수의 경치, 공기의 청정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경성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는데, 특히 성북리는 “한적한 근교이며 지형과 경치가 아름다워 예술을 벗 삼는 문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성북리는 하나의 문인촌文人村인것 같다고 했다. 1933년 현재 성북리에

서 거주하고 있는 문인가는 시인이자 작사가인 김억金億, 여류문인 김일엽金一葉, 평론가이자 소설가였던 김기진金基鎭, 홍효민洪曉民, 단편소설로 유명한 소설가 이태준李泰俊, 언론인이자 소설가였던 이종린李鍾麟 등이 있었다.(『城北洞의 文人村』, 『삼천리』 5권 10호, 1933. 10. 1.)



1929년 6월 창간된 잡지 『삼천리』
창간호의 표지.
삼천리는 일제시기 발간된 잡지 중 가장
성공한 것 중 하나라 평가받고 있다.

부자들의 별장이 모여 있던 성북동

성북동에는 부자들의 별장이 많이 있었다. 1935년 6월에 발행된 『삼천리』 7권 5호에는 성북동에 부자들의 별장이 모여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 근방에는 부호들의 별장이 수도룩하다고 했다. 눈에 띄는 곳은 죽침정(竹漆町) 3정목(三丁目)의 고태(高台), 장충단(獎忠壇) 너머 학구(鶴丘) 일대, 용산(龍山) 너머 명수태(明水台) 일대가 십만장자(十萬長者), 백만장자(百萬長者)의 별장지대였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인 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치가 좋은 성북동 일대였다.

성북동 일대의 대표적인 별장은 다음과 같았다. 가장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집은 일제강점기 기업가로 유명했던 백인기(白寅基)의 별장이었다. 이 집은 후원만 10여만 평이었다. 1925년 5월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일은행에서 은퇴한 백인기는 성북동에 있는 별장에서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백상규(白象圭)의 집이었다. 이 집은 양옥 2층 집이었으며 시가로 치면 몇 만원이 넘었다. 세 번째는 한말 총리대신 한규설(韓圭榘)의 아들인 한양호(韓養浩)의 별장이다. 한양호는 성북동에 있었던 유명한 요리 집인 음벽정의 경영에 관여했으며, 문영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다. 네 번째는 간송미술관을 만든 간송 전형필(全瑩弼)의 별장이었다. 다음으로는 대부업자였던 임종상(林宗相)의 별장이다. 이 별장은 성북동에 있는 자신의 본집보다 더 컸다. 마지막으로 지주였던 이종석(李鍾奭) 별장이 있었다. 이 별장은 마치 왕이 사는 듯이 화려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성북동에는 큰 별장이 여러 개 있었다. 약재상 이유선(李有善)의 별장, 해동은행(海東銀行) 김계수(金季洙)의 별장, 경

성부 내에서 부자로 꼽히던 김동규金東圭의 별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별장을 포함하여 성북동 안에는 총 14개의 별장이 있었는데 모두 십만장자十萬長者의 별장이며 크고 호화로웠다.『富豪의 別莊地帶風景, 城北洞一帶』, 『삼천리』 7권 5호, 1935. 6. 1.



성북동 이종석 별장, 덕수교회 안에 있으며, 현재 영성수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77년 3월 17일 '성북동 이재준가'라는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3. 성북동의 지역주민운동

1920년대 성북구락부의 활동

1923년 당시 성북리에는 청년회 조직이 결성되어 있었다. 이 조직은 ‘성북구락부城北俱樂部’라고 불렸다.²⁰ 성북구락부는 1923년에 조직되었다. 하지만 초기 활동은 매우 미미했다. 창립한 지 2년이 지난 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성북구락부는 1925년 7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부장 및 임원진을 선정했다. 당시 선정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²¹

부장 : 김동근金東瑾, 총무 : 서광훈徐光勳, 재무 : 박성근朴性根,

서기 : 고덕룡高德龍, 간사 : 김윤식金潤植

이 중 성북구락부를 이끌어간 사람은 총무 직에 선임된 서광훈이었다. 서광훈은 성북구락부 임시총회의 임시의장이었으며 성북구락부가 개최하는 회의의 사회를 도맡아 했다. 성북구락부의 부흥을 이끌었고, 조직의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서광훈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광훈의 생년월일은 1901년 10월 17일이다. 성북구락부의 임시총회가 열렸던 당시 그는 25세의 젊은 청년이었으며, 성북리 173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학력을 보면 1913년 어의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으며 오성학교, 철원잠업견습소를 졸업했다. 이후 평강면平康面 서기가 되었는데 1년 후 사직하고 역 앞에서 운송점을 개업했다. 1922년에 성북리에 있던 삼산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서광훈의 이력 중 독특한 점은 백정_{白丁}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설립된 사회운동단체였던 형평사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1924년 서광훈은 형평사 서기가 되었으며 1926년에는 형평사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일제 당국에서는 서광훈에 대해 “영리하고 사회주의적 언사를 일삼고 형평운동에 관여하여 다른 사람을 선동할 우려가 있는” 인물이라고 하고 경계했다.²² 성북구락부는 1925년 8월 8일 총회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조직인 한양청년 동맹에 가입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 때 서광훈의 역할이 컸다.²³ 서광훈은 자산이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락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²⁴

1920년대 중반부터 성북동의 청년들은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청년조직을 결성하고 마을의 일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광훈은 1925년 이후 성북동을 떠나 활동하게 되지만 성북구락부는 성북리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²⁵

성북구락부는 임시총회, 총회, 월례회의 등을 열고 조직 내의 일은 물론 성북리 내에서 필요한 공공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마을 내에 소방구_{消防具}를 구입하는 것과 도난당한 상비상여_{常備喪與}를 구입할 것을 결정했다.²⁶ 또한 이것을 위해 성북리 거주 유지로부터 의연금_{義捐金} 모집 활동을 했다. 다음으로 운동구 및 ‘팜프레트’를 구비할 것에 대해 논의했다.²⁷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밤늦게 물놀이를 하거나 술에 취한 피서객이 많아 주민들에게 방해가 됨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활동을 했다.²⁸

성북구락부는 마을의 공공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계몽과 관련된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먼저 1908년에 만들어진 삼산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성북구락부의 재건에 큰 역할을 했던 서광훈과 재무를 담당했던 김동근은 삼산학교에서 활동을 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리 유력청년 수 명이 침식을 잊어가면서 눈물 섞인 열정으로 삼산학교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²⁹

삼산학교의 유지, 운영과 더불어 성북구락부는 성북소년회(城北少年會) 창립과 성북야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 성북소년회는 1927년 6월 23일에 만들어졌다.³⁰ 이 소년회에서는 동년 7월에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가는 무산어린이를 위해 야학원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보통 학교 1, 2, 3, 4학년의 아동을 모집했다.³¹ 하지만 성북야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아동으로만 한정하지 않은 것 같다. 1928년 3월 성북소년회 야학원의 진급식이 있었다. 우등으로 진급한 여자부 학생의 이름은 김아지(金阿只)였는데 그는 성북구락부 서광훈의 어머니였다.³² 이러한 사실로부터 성북구락부가 성북소년회와 성북야학원의 운영에 참여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성북소년회는 현재 성북구 지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소년단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1929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0여개 세포를 가진 경성소년연맹에서 경성어린이날 거행에 대한 재정 소년단체 대표자회의를 열었고 구역을 정했는데 성북소년회 담당 구역은 동소내외(東小内外) 일대였다”고 한다.³³ 여기에서 동소내외라는 것은 혜화문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성북소년회는 혜화문 주변 지역의 소년단체, 또는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성부 의원에 입후보한 이신구



1939년 5월 4일자 『동아일보』에는 경성부회 의원에 입후보한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간략한 이력과 포부를 실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서 이신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먼저 희뚝희뚝한 머리카락에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

음으로 과거 오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현재는 삼산소학교의 이사장으로 있다고 소개했다. 이신구의 포부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부립 중학교의 설립이었으며, 둘째는 토목 위생 시설의 촉진이었다. 이러한 이신구에 대해 신문 기사에서는 40대에 첫 출마하는 이신구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1930년대 성북정화城北町會의 출범

1930년대 성북동 지역사회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이신구李信龜였다. 그는 1897년 3월 4일생으로 성북구락부를 주도했던 서광훈보다 4살 위였으며, 성북리 189-5에서 거주했다. 이신구는 서광훈에 비해서 상류층에 속한 인물이었다. 일본에 유학하여 1917년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정경학부 예과를 졸업하였으며, 1920년 같은 대학 정경과 2년 과정을 수료했다. 1921년부터 1924년까지 정주오산고등보통학교 교원, 1925년부터 1927년까지 경성협성실업학교 교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1931

년부터 1934년까지 성북리 구장城北里 區長을, 1935년부터 1936년까지 송인면협의회위원을 역임했다. 1936년 성북동이 경성부로 편입된 이후에는 성북정 총대城北町 總代를 담당했다. 1939년에는 경성부회 의원에 당선되었다.³⁴

이신구가 성북리의 구장을 맡았을 때 그의 나이는 35세였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구장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메이지대학 출신에 고등보통학교 교사 출신이라는 점이 기본적으로 작용했다. 이것에 더하여 지역 학교였던 삼산학교를 살려내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삼산학교는 지역 청년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에 빠져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때 이신구는 삼산학교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신구의 삼산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 이 신문기사에서는 이신구를 ‘항상 사회사업에 유의하던’ 인물로 묘사했다. 이신구가 성북동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주민 대표직을 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경력과 함께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능력과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이신구가 성북구 구장이 된 1931년부터 1934년 시기에 성북리에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운동이 있었다. 먼저 주민단합을 공고히 하는 지역축제들이 개최되었다. 1931년과 1932년에는 단오일을 맞아 ‘단오원유회’, ‘단오위안회’라고 불리는 마을축제가 열렸다.³⁵

1933년 7월에는 성북유치원이 설립되었다. 이 유치원은 성북리의 유지들이 설립했으며 원장은 유양호柳養浩였다.³⁶ 성북리에는 성북유치원을 후원하는 후원회가 조직되었다. 구장이었던 이신구, 성북구락부의 구성원이었던 박성근, 이종린 등이 이사직을 담당했다. 이들의

활동에 의해 성북유치원을 위한 의연금이 모집되었다.³⁷

성북유치원이 설립된 지 2년 후인 1936년에는 성북리에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었다. 학교의 이름은 영명학교永明學校였으며 신설목적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령초과아동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이 학교의 원장은 이의석李義錫이었으며 이춘길李春吉, 유일劉鎰, 이희철李熙哲, 김상옥金湘旭 등이 이 학교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무보수로 이 학교에서 일했다.³⁸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1930년대 성북리에는 지역주민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신구의 역할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북정회의 활동 (1) : 신규 요정의 철폐 요구

1936년 4월 성북리가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일정한 명칭이 없던 성북동의 마을운영조직은 ‘성북정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마을 일을 해오던 청년들과 유지들은 성북정회의 평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정회 총대로 이신구가 선출되었다. 성북정회는 성북동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 중 첫 번째는 마을의 주택지에 요정料亭을 허가한 행정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신규 요정의 설립 허가 조치를 취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성북정에는 당시 유명했던 음벽정飲碧亭이 있었다. 성북정 주민들은 음벽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음벽정이 생긴 이후 도로는 좁은데 자동차의 왕래가 심해져 통행에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성북정에는 학교, 유치원, 예배당, 야학 등이 있었

고, 1,500여명의 학생이 머물고 있었으며, 선생과 연구자 80여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에게 요정이었던 음벽정은 풍기상, 위생상 좋지 않은 곳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또 다른 요정이 설치된다는 풍문이 돌았다. 이에 이신구를 포함한 5명은 성북정회를 대표하여 동대문경찰서에 방문하여 요정허가의 부당함을 진정하였다. 그리고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현재 있는 음벽정을 제외한 신규 요정은 허가하지 않겠으며 불편한 도로는 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와 동시에 음벽정에도 요구사항을 제출했다.³⁹⁾ 하지만 음벽정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벽정 측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실천하지 않자 주민들은 다시 정회를 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성북정의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정 추방 운동을 벌이면서 성북동의 요정존화를 막아낸 것이다.⁴⁰⁾

성북정회에서 음벽정에 요구한 사항 요구조건

- 도로진애(道路塵埃)를 방지할 것.
- 도로파착(道路罷鑿)을 수시 보수할 것.
- 업무시간을 준수하여 정민(町民)의 안면(安眠)을 도圖(圖)할 것.
- 요정에 오는 거마(車馬)를 서행(徐行)케 하여 통행인의 위험을 방지할 것.
- 도로 협착처에 가교(架橋)를 완전히 설치할 것.
- 요정에 오는 자동차가 정내 통과시 주의사항을 요정 구내에

게시함을 용인할 것.

ㄱ. 요정 소속인원이 정내에서 후주행악(醜酒行惡)하여 정민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동시에 극해(極害)를 끼치는 때에는 요정주(料亭主)가 절대책임을 질 것.

소화 11년 8월 5일

성북정회 대표 일동

음벽정(飲碧亭)

음벽정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요정(料亭)이다. 성북정 13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잡지 『삼천리』에 게재된 음벽정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음벽정의 경영주는 한양호(韓亮鎬)와 한택수(韓澤洙)였다. 한양호는 한말 참정대신 한규설의 아들이며 한택수는 그의 아들이다. 조선



성북정의 요정촌화에 주민이 반대한다는 『동아일보』 기사

토지조사사업 결과 작성된 토지대장을 보면 한택수는 1934년 7월 4일 성북정 13번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음벽정은 1934년부터 영업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음벽정은 당시 손꼽히는 요정이었다. 이상적인 주택거주지라고 평가를 받았던 성북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1938년 총독부는 오전 1시 이후에는 전

국에 있는 요리집은 영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음벽정은 철야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또한 풍기문란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음벽정의 이러한 행동은 성북정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음벽정은 원래 요정이 아니었던 곳이었다. 음벽정은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별장이었다. 민영환 사후 그의 동생 민영찬(閔泳瓚)의 소유였으나 1931년 가옥 임대업을 하던 일본인 오미안테랑(五味安太郎)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934년에 한택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937년 10월 26일 『동아일보』에 실린 음벽정 광고

성북정회의 활동(2) : 수도부설 진정운동

성북정회의 두 번째 활동은 수도부설 진정운동이다. 수도에 관한 문제는 새롭게 경성부에 편입된 모든 지역의 문제였는데 성북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36년 현재 성북정에는 약 800호,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물 한 개가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겨울철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철에도 혜화문 안에 있는 수돗물을 비싸게 사 먹어야 했다.

또한 불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어야 했다. 주민들은 성북리가 경성부로 편입되면서 수도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성부로 편입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부설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성북정회에서는 이신구, 김창학, 윤병철 등 지역 유력자들이 발기인이 되어 경성부 수도과에 수도부설을 촉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⁴¹ 이러한 활동의 결과 1937년 우선적으로 수도가 부설될 지역에 성북동이 포함되게 되었다.⁴²

성북정회의 활동 (3) : 버스 운전시간 연장 요구

성북리가 경성부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큰 문제 중 하나는 교통문제였다. 1931년 당시 경성부내의 인구수는 36만 5천이었고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대가 되지 않았다. 총독부 경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1934년 성북리가 속했던 송인면을 거주지 주소로 신고 한 사람들 중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³ 당시 성북리에 큰 별장을 가진 부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소유

한 자동차 등은 그들의 월 거주지에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외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송인면 내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이곳 주민들이 경성부 시내로 가려면 도보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1930년대 전반기, 경성을 출발하는 시외버스는 현재 수유리에 있는 화계사와 안암동에 있는 개운사까지 다녔는데 하루에 2차례를 왕복하는데 그쳤다.

시내버스가 성북지역에 들어간 것은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였다. 이때 시내버스는 돈암동과 종암동까지 운행되었다. 시내버스 노선이 확장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는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통 수요의 증가였다. 성북리가 속한 송인면의 경우 1928년 당시 4,593호, 22,185명이었던 인구가 1933년에는 7,416호 36,797명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는 1936년에 있었던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과 시가지계획령의 시행이다. 경성부는 경성부의 구역확장으로 새롭게 경성부에 편입된 지역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⁴⁴

시내버스 운영은 원래 경성부에서 운영했다. 하지만 버스의 운영은 매번 적자에 직면했다. 『동아일보』는 1931년 1월말 기사에서 경성부에서 경영하는 버스의 성적이 좋지 않으며 존폐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2년간 결손액이 약 3만원이라고 했다.⁴⁵ 1931년 8월에는 경성부가 경영하는 버스의 결손액이 10만원이라고 보도했다.⁴⁶ 경성부가 경영하던 버스와 경쟁관계에 있던 교통수단은 전차였다. 이 전차를 운영하던 회사가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였다. 경성전기주식회사는 부영(府營) 버스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존폐여부에 처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버스의 운영권을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성전기주식회사



1928년의 경성전기 사옥. 현재 한전이 을지로 사옥으로 사용 중이다.
(출처 : 한수원 블로그 <http://blog.khnp.co.kr/blog/archives/9582>)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전신은 1898년 설립된 한성전기회사(漢城電氣會社)이다. 이 회사는 1898년 1월에 미국인 H. 콜브란, H. B. 보스워 두 사람이 조선왕실과 공동출자로 설립되었다. 1899년 4월 처음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개통하여 운행했다. 1904년 한미전기주식회사로 개칭되었고 일제에 의해 강점된 이후 1915년 경성전기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해방이후, 1961년에 한국전력주식회사(지금의 한국전력공사)로 흡수, 통합되었다.

경성전기회사의 제안에 총독부와 경기도, 경성부 관계자들은 교통문제 전반에 걸쳐서 토의를 했다. 그 결과 1933년 3월 10일자로 경성전기

주식회사가 21만 8천원을 경성부에 지불하고 버스 운영권을 양도 받는 것이 결정되었다. 경성부 소유였던 버스 54대, 화물차 1대, 차고, 사무소, 공장 등이 경성전기주식회사 소유로 이전되었으며 버스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소속 역시 바뀌게 되었다. 1933년 4월 1일부터 경성부 시내 버스는 경성전기주식회사 소속으로 운행되었으며 버스의 색은 은색으로 바뀌었다.

경성전기주식회사는 버스 노선을 전차 노선과 병행시키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는 전차가 다니지 않는 곳을 운행구간으로 택했다. 버스를 전차의 보조수단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지금과 유사하게 환승제도를 채택한 것이 눈에 띈다. 즉 전차를 내리면 버스를 탈 수 있게 하여 하나의 표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었다. 경성전기회사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 버스와 전차 간에 환승이 자유롭고 요금은 그대로인데 이것은 “당시 일본 국내에서도 그 유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자부했다.⁴⁷

하지만 1936년 당시 성북정 주민들은 경성전기회사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이것은 경성전기회사의 버스 운영 방침에 대한 반발로 폭발되었다. 경성전기회사는 창경원과 종로5정목에서 혜화정 정류소까지 이르는 버스 운행을 전차운행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종료했다. 경성부로 왕래하던 성북정 주민들의 불편함은 매우 컸다. 성북정 주민들의 항의로 기존 9시까지 운영되던 버스는 9시 45분까지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차가 운행되는 시간보다 2시간 30분이나 빨리 종료하는 것이었다. 버스가 끊긴 후 성북정 주민들은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동아일보』는 “비와 눈이 내리는 밤 전차에서 내려 터벅터벅 걸

어가는 사람들의 불평은 발자국마다 커졌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36년 6월 3일 성북정 주민들은 동대문경찰서를 거쳐 경성전기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⁴⁸ 탄원서의 내용은 전차 시간에 맞추어 버스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성북정회의 활동 (4) : 전염병원 설치 반대운동

성북정회의 또 하나의 활동은 마을 내에 전염병원 설치 반대운동을 한 것이었다. 1938년 2월 성북정에 전염병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접한 성북정 주민들은 병원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하수도 설비가 없으며 수도시설이 없어서 우물물을 먹는 성북정에 전염병자를 위한 요양원이 만들어질 경우 주민의 건강상에 많은 위험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병원은 성북동 상류지역에 설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성북정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938년 2월 16일 성북정회 회관에서 임원 35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먼저 교섭위원을 정해서 병원경영자인 정홍섭(鄭弘燮)에게 중지 권고를 하자는 것이 결정되었다. 만약 불응할 때에는 주민대회를 열고 동시에 당국에 진정하기로 결정했다. 교섭위원 6인은 서광전(徐光前), 이휴선(李休善), 국수열(鞠壽烈), 김창학(金昌學), 김순철(金順哲), 이신구(李信龜)였다.⁴⁹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성북정회에서는 정홍섭에게 폐결핵 환자 수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설치하는 것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홍섭은 병원이름을 내과라고 하고 계속 병원설립을 진행했

다. 이에 성북정 유지 85명이 다시 모여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하였다.⁵⁰

이후 정홍섭이 경성보건의원京城保健醫院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열자 주민 630여 명은 병원에 반대하는 진정서에 날인했다. 이 진정서를 가지고 이신구, 김창학, 윤병철 등 8명이 동대문경찰서로 가서 제출했으며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⁵¹

이와같이 성북정회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성북정회의 활동이 모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상당 부분 수용되었으며, 일정부분 경성부의 도시정책에도 반영되었다.

(남기현)

4. 무산아동을 위한 교육기관 ‘삼산학교’

1908년 삼산의숙의 설립과 황수연

현재 성북구 지역 내에는 6개의 종합대학교와 14개의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문 교육기관이 많은데 이것은 성북구 지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북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적 학교는 성북리에 위치했던 사립 삼산학교三山學校였다. 이 학교의 설립과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성북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역주민운동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교육에 있어서도 근대교육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의해 정부에서는 동문학, 육영공원 등을 설립했다. 1895년에는 소학교령, 소학교규칙대강 등이 지정되었고, 1899년에는 중학교관계 등이 제정되었다.

정부에서 세우는 학교 외

『매천야록』은 조선 말기 황현黃玹이 1864년(고종 1)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책이다.



에도 당시 사회의 요청에 의해 민간인에 의해 사립학교들도 세워졌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1910년 국권을 상실하기 전까지 3,000여 개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세워졌다고 한다. 『황성신문』은 1907년부터 1909년 4월까지 만들어진 사립 학교의 수가 무려 3,000여 개에

달한다고 했다.⁵²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1908년 현재의 성북동 지역에도 학교가 만들어졌다. 설립 당시 이 학교의 이름은 삼산의숙三山義塾이었으며, 현재 성북동에 있는 성북초등학교의 기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삼산의숙의 이름은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는 삼산의숙라고 지칭했으며, 1920년대~3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는 삼산학교라고 했다.

삼산의숙은 1908년 성북동에 거주했던 김수영金洙榮의 발의로 만들어졌다. 학교 설립의 목적은 지역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김수영은 교육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성북동에 교육을 할 수 없는 기관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 삼산의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⁵³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904년 이후 대한제국에는 전국에 수많은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졌다. 수천 개를 헤아리는 사립학교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⁵⁴ 삼산의숙이 만들어졌던 1908년은 대한제국의 국가체제가 흔들리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학교설립이라는 공공사업은 국가제도의 틀 밖에서 추진되고 있었다.⁵⁵

당시 설립된 사립학교의 운영은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의 후원으로 유지되는 경우, 향교나 서원의 재산 같은 공공재산으로 유지되는 경우, 잡세 징수와 같은 지방 공공재정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다.⁵⁶ 삼산의숙의 재정 확충과 운영 방식은 개인과 지역사람들의 일부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삼산의숙의 발의는 김수영이 했지만 실제 학교운영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봉시奉侍 황수연黃壽延이었다. 삼산의숙은 황수연의 지원과 지역 유력자들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었다. 1908년에 있었던 소풍 비용을 황수연이 부담했으며, 성북동 노인

계(老人契)에서 공책 및 연필을 제공했다. 또한 삼학의숙 교사였던 이윤희(李允熙)는 연필을 제공했다.⁵⁷ 황수연은 자신의 집에 학생 70여 명이 방문하자 공책과 연필을 제공했다.⁵⁸

삼산의숙은 학령아동을 가르치는 주학과(書學科)와 노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과(夜學科)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야학과는 활동시간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선생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결국 야학과는 폐지되게 되었고 주학과만 운영되게 되었다.⁵⁹

당시 삼산의숙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학교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흥선대원군의 조카인 완순군 이재완이 삼산의숙에 부채 81개를 기부했다는 기사가 있다.⁶⁰

1910년대 삼산학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학교교육에 관한 방침은 크게 네 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이것은 교육령이 개정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먼저 1911년에 발표된 「조선교육령」을 기반으로 식민지 교육제도가 정비되었다. 보통학교(3, 4년), 고등보통학교(4년), 여자고등보통학교(3년), 실업학교(2, 3년) 등이 설치되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3년 후인 1922년에 두 번째로 교육령이 개정되었다. 이때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폐지되었던 한국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1938년에는 3번째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었다. 이 교육령의 핵심은 모든 교육내용에서 일본적인 것을 강화하고 일본어로 수업하는 등, 철저한 황국신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학교들의 명칭도 바뀌

게 되었다. 보통학교는 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것은 일본인 학교와 명칭이 같게 된 것이었다. 1941년에는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1943년에는 네 번째 조선교육령인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이 발표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일제는 한국 내에서의 교육을 철저히 전시교육체제(戰時敎育體制)로 바꾸고 학교교육을 전쟁의 도구로 삼았다.⁶¹

일제강점기 삼산학교는 성북동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운영되었다. 이와 함께 삼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의 교육 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다.

1910년대 일제의 학교정책은 대한제국기에 형성된 교육적 제도와 시설, 기능과 인력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사립학교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식민지 교육체계인 공립보통학교로 편입시켰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사립학교 교육은 부정되었다. 또한 일제는 향교재산 등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것들을 박탈했다.⁶²

사립학교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였던 토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조선총독부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향교 등을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교재산의 소유권은 향교의 명목이 아닌 개인 명의로 토지대장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공동재산이었던 향교의 재산이 개인소유로 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향교재산 등과 같이 공동소유였던 재산을 재정기반으로 한 사립학교의 운영은 매우 어려워졌다.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되었던 지역 학교들이 모두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 단위로 성립하였던 학교들은 일부는 사립 각종학교로, 또 일부는 서당으로 허가를 얻어 ‘강습소’ 형태로 존속하게 되었다. 삼산의숙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사립 각종학교로 존속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사립각종학교는 사립소학교, 사립보통학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보통학교, 사립고등여학교,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립실업학교 및 사립전문학교 이외의 비정규 사립학교였다.⁶³

삼산의숙은 황수연이라는 개인과 일부 지역사람들의 도움으로 유지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일본에 병합된 1910년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삼산의숙은 전적으로 황수연에 의해 유지되었다. 1912년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황수연은 삼산의숙 재학생 60여 명을 인솔하여 인천항으로 소풍을 갔는데 경비 일체를 그가 부담했다.⁶⁴ 또한 황수연은 자신의 비용으로 학교를 설립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⁶⁵ 삼산의숙에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황수연은 삼산의숙을 정식 공립보통학교와 동일한 설비와 제도를 갖추고 운영하려고 했다. 삼산의숙의 첫 졸업생은 1912년에 배출되었다.⁶⁶

삼산의숙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학교의 운영을 도맡아 했던 황수연이 1916년 별세했기 때문이었다.⁶⁷ 이에 1917년부터 학교 운영자금이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성북리 사람들은 삼산의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성북리에는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십장이었던 홍태윤(洪泰潤)을 중심으로 얼마씩을 걷어서 학교 경비를 담당하기로 하였다.⁶⁸ 삼산의숙은 이와 같이 개인의 노력

과 지역민들의 노력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되고 있었다.

1920년대 삼산학교 : 우영난 극복을 위한 노력

1920년대 삼산학교는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25년 3월 9일자 『동아일보』의 〈자유종自由鐘〉이라는 란에 삼산학교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기사가 실렸다.⁶⁹⁾

이 지면은 독자가 투고하는 글을 실는 란이었다. ‘성북적천(城北赤泉)’이라는 가명을 쓴 사람이 삼산학교의 상황을 알리는 글을 투고했다. 이 기사의 시작 부분을 길지만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군아 보라! 배우겠다고 부르짖는 현재의 향학열을 보라.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여 애쓰는 저분들은 누구며, 제군과 같이 소작인



三山學校外崇仁
面富豪

◇諸君아 보라! 明호겠다고
 부르지 않는 現代向學熱은 보라
 ! 이 와것치向學熱이 慷慨하며
 이를救濟키爲하야 慘風快雨를
 不顧하고東奔西走하며 애쓰는
 커분네는는 누구며諸君과가치
 小作人의勞作物을가치고 錦衣
 玉食으로 지나는者는 누구인가
 ? 覺醒하라! 다가가白衣人으
 로同歸인 諸君은實地努力은모

합창창 第十四回の卒業生內의
城北里三山學校에對한가 한것
의同情하는 宗를을을리지 아니
하니 寒心하지 아니한가

◇前校主黃氏의 烈々한 教育熱
로維持하여오든바 不歸의客이
뒤後 城北里住民의 熱誠과忠
仁而授金基宅氏 安慶善氏의 努
心魚思로 僅々維持하여그의 遺
業을繼承한 金東瓊氏의 努力과
十餘年이나 汗과 淚를 흘린 업
시 犧牲의 教鞭을 잡은朴明煥氏
는 누구를爲한인가? 우리의 소
으로된 三山學校를 누가 잊어
것을救하야 주며 우리의 것을누
구가救할가?

◇다른사람이救하야 줄者가이
는가 依賴心이 많은諸君아 내배

만물이라도 고하는諸君아 우리의
것은우리가 救하여야 할責任在
이있는것을들은가 생각해보아
라崇仁普通風樓建築當時에 多
大한 金錢을 融出하여도 君들의
意思에 適合치 아니한山村窮僻의
한곳에서야 夫도 嘆如한마디
못하고 後悔한지三山校를다
기 交通이便利한三山校를다
한반 同想하여同情의 눈물을
기지마라 農村生活 向上과
無產階級發達을爲하여야하는
山校는五里霧中에서 形體가
일라 말라하니 이것이누구의
리외 잘 못된過去를 못치고 우리
子弟의將來를爲한다하면 一
二食을 할지라도 三山校를 救
濟하여야 할것이다(城北赤泉)

1925년 3월 9일자 동아일보에 성북적전城北赤泉이라는 사람은 삼산학교를 도울 것을 호소하는 글을 기고했다.

의 작물을 가지고 금의옥식錦衣玉食으로 지내는 자는 누구인가. 각성 하여라 다 같은 백의인으로 동족인 제군은 제14회의 졸업생을 내는 성북리 삼산학교에 대하여 한 점의 동정하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니 한심하지 아니 한가. 전 교주 황수연씨가 죽은 뒤 성북리 주민의 열성과 승인면 면장 김기택金基宅씨, 안응선安應善씨의 노심초사로 겨우 유지하였다. 김동근金東瑾씨의 노력과 10여 년간 변함없이 희생적 교편을 잡은 박명환朴明煥씨는 누구를 위함인가?

위의 기사에서 삼산학교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운영 상황은 좋지 않았다. 승인면 면장과 일부 지역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산학교의 선생이었던 박명환은 무급이거나 매우 적은 봉급을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러한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기사에서 ‘제군’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소작인들의 작물을 가지고 사치스럽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삼산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부 지역사람들과는 달리 학교의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다. 기사를 투고한 사람은 이들에게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삼산학교에 동정을 보이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다.

다른 사람이 구하여 줄자가 있는가. 의뢰심이 많은 제군야.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제군야. 우리의 것을 우리가 구하여야 할 책임감이 있

는 줄 모르는가? 생각해 보아라. 송인보통학교 건축 당시에 다대한 금전을 각출하여도 군들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은 산촌 궁벽한 곳에 지어졌음을 탄원 한마디 못하고 후회만 하지 않았는가? 교통이 편리한 삼산학교를 생각하고 동정의 눈물을 아끼지 말아라. 농촌생활의 향상과 무산계급발달을 위하여 있는 삼산교는 형체가 보일락말락하니 이것이 누구의 죄일까? 군들에게 일언을 고하니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고치고 우리 자제의 장래를 위한다면 일일이식-日二食을 하더라도 저 삼산교를 구제하여야 할 것이다.

투고자는 삼산학교는 성북리 지역 사람들이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총독부가 보통학교를 지을 때 기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내었음에도 원하는 지역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일제는 1920년에서 1925년 사이 3면마다 보통학교 1개를 건설한다는 ‘3면1교’ 정책을 표방했다. 이러한 원칙을 따라 송인면에 보통학교가 만들어졌다.⁷⁰ 3개면에 1개의 보통학교가 설립되는 실정에서 송인면에 보통학교가 설립된 것은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성북동에 있는 부호들은 많은 돈을 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보통학교가 설립된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었고 이것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른 것이었다. 삼산학교는 새로 설립된 보통학교에 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 성북리에 위치해 있었다. 기사를 투고한 성북적천은 이러한 삼산학교를 구하는 것은 지역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며 하루에 2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삼산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체가 없어

질 듯이 오리무중인 삼산학교를 위해 부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기사가 실렸던 시기인 1925년 이후에도 삼산학교의 운영상황은 여전히 열악했다. 1927년 현재 삼산학교의 학생은 총 145명이었고 교장은 장인근(張寅根)이었다.⁷¹ 1928년 삼산학교의 어려운 상황이 신문에 다시 한 번 보도되었다.⁷² 20여 년간 수 백 명의 졸업생을 내면서 사회에 공헌한 삼산학교가 역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였다. 당시 교육협성회의 윤갑병과 김동근의 주도로 운영되는 삼산학교는 위기를 맞이했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두 사람이 사직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삼산학교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성북리의 청년 몇 명이 열성을 가지고 삼산학교를 운영했다. 앞서 살펴본 서광훈 등이 주축이 된 성북구락부의 일원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삼산학교 학생과 선생들의 겨울나기의 어려움에 대해 보도했다. 12월 혹독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없어서 2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선생들이 불도 피우지 못한 교실에서 목불인견의 비참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북리에 부호들의 별장이 20여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장을 가진 부호들은 삼산학교의 비운에는 냉담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삼산학교의 존재 여부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근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주민들의 걱정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등장했다. 성북정회를 이끌었으며 후에 경성부의회 의원이 된 이신구였다. 이신구는 삼산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신구의 이러한 노력은 삼산학교 학부형들과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⁷³

한편 경비가 부족해서 겨울철 불도 피우지 못한 삼산학교의 소식을 들은 이원우李元雨는 겨울철에 필요한 석탄을 제공했다.⁷⁴ 이신구의 활동과 지역 사람들의 도움으로 삼산학교는 유지될 수가 있었다.

1930년대 삼산학교 (1) : 6년제 승격운동, 보통학교로 변경 추진

1930년 현재 삼산학교는 4년제 사립각종학교였다. 당시 삼산학교의 학제는 학교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첫 번째는 이유는 삼산학교가 보통학교가 아니었다는 점에 있었다.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많았다. 각종학교 졸업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별도의 검정시험을 거쳐야 했다.⁷⁵ 두 번째는 4년제 학교라는 점이었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었고, 이 법에 따라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에는 보통학교의 6년제 승격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 이유는 4년제 학교는 6년제 학교와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있었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졸업자격에 미달하였으므로 학부형과 학생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⁷⁶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여 삼산학교의 학교 체제를 변화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 고등사범과를 졸업했으며, 보성고보普成高普의 선생이었던 하운실河允實이었다. 그는 1930년 3월 20일 삼산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했으며, 교장이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쳤고 삼산학교의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하운실의 그러한 활동은 성북리에 있던 일부 유지들의 후원을 이끌어냈다. 하운실은 이러한 후원을 바탕으로 삼산학교를 새로운 학정체제에

편입시키려고 했다. 먼저 4년제였던 삼산학교를 6년제로 연장하려고 했다. 또한 학교 건물도 증축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하운실의 아내였던 유명한 여류작가 김일엽(金一葉) 역시 스스로 삼산학교의 교편을 잡았다.⁷⁷

6년제로 학교를 개편하려는 노력과 함께 하운실은 삼산학교를 각종학교에서 보통학교로 승격시키려고 했다. 그는 총독부에 삼산학교를 보통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북리의 인구가 늘고, 학교에 가야 하는 아동들이 많아졌으며, 시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하운실의 적극적인 활동은 성북리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지지를 이끌어냈다.⁷⁸

하지만 하운실과 성북리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삼산학교는 보통학교로 승격되지 못했으며, 6년제 학교로도 개편되지 못했다. 1933년 4월 1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삼산학교는 4년제 보통학교로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 3·4학년 합반 1개 학급이 있었다고 한다. 총 학생 수는 약 48명이었다.⁷⁹ 학생수가 1920년대에 비하여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4년제 사립각종학교를 졸업할 경우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 여러 불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삼산학교의 6년제 학정체제로의 전환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6년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비 확보가 매우 중요했다. 학년연장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 교원, 운영경비 등이 필요했다. 지방비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교실증축비와 매년 경상비가 확보되어야 4년제에서 6년제로 승격이 가능했다.⁸⁰

삼산학교가 각종학교에서 보통학교로 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 역시 매우 어려웠다. 각종학교가 보통학교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총독부에 제출해야 했다. 총독부는 이 서류를 검증한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가 여부를 통보했다.⁸¹

이와 같이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들로 인해 삼산학교의 체제 변화 노력은 좌절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은 삼산학교의 장래를 두고 내부 구성원 간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1930년대 삼산학교 (2) : 공립학교 승격방법을 둘러싼 논란

1938년 12월 삼산학교 구성원들 간의 마찰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크게 보도되었다.⁸² 삼산학교를 공립으로 만드는 방법에 관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삼산학교를 경성부에 기증하여 새로운 심상소학교의 모체가 되게 하자는 학교 당국자 측의 주장에 대해 삼산학교 설립자 측과 삼산학교유지후원회 및 성북정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어난 논란이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38년 12월 현재 지역주민들과 일부 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산학교는 여전히 사립 보통학교로 남아 있었다. 이에 성북정 주민들과 삼산학교 학부형들은 삼산학교를 정식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삼산학교 유지후원회를 조직했다. 이러한 와중에 경성부에서 아동들을 위한 공립 심상소학교를 동소문 밖에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학교의 위치는 돈암정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삼산학교의



삼산학교의 분규를 보도한 1938년 12월 6일 『조선일보』 기사

행정을 담당했던 교무주임 이상봉과 교장 김홍규는 삼산학교 전체를 경성부에 기부하고 “삼산학교가 새롭게 돈암정에 건설되는 심상소학교의 모체가 되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현재 학교 예산으로 는 자격 있는 학교를 승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학교를 부 당 국에 기부하여 새로운 학교의 모체가 되는 것이 학교의 장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학부형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은 1938년 12월 4일 학부형회를 열었다. 하지만 학부형 회의는 잘 진행되 지가 않았다. 그 이유는 먼저 삼산학교 당국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학 교 기부 계획 설명 때문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를 기부한다는 목적 을 손쉽게 진행시키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학부형들을 만나 그들의 계 획을 말하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설명하면서 다른 기준을 들어

설명했다. 즉 돈암정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형에게는 삼산학교를 돈암정으로 이전할 것이며, 학교는 공립학교로 승격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성북정에 거주하는 학부형에게는 현 장소에 삼산학교는 계속 있을 것이며, 학교가 공립으로 승격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석상에서 학교 측의 이러한 행동이 밝혀지면서 소란이 일어났다. 학교 측의 진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인신공격도 이루어졌다. 또한 삼산학교 설립자 측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왔다. 회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입회해 있던 경관에게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되었다.

삼산학교를 경성부에 기부한다는 계획에 대해 삼산학교 설립자 측과 유지후원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삼산학교유지후원회의 최종 목적은 삼산학교를 자격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삼산학교를 경성부에 기부하자는 사람들의 논리와 어느 정도 일치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완전히 달랐다. 삼산학교유지후원회는 성북정 지역사람들의 힘으로 자격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학교 교무주임이 설립자 측 및 후원회와 논의 없이 학교를 독단적으로



삼산학교 교주 성명 광경 (『동아일보』 1938.12.12.)

경성부에 기부해야 한다는 논의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삼산학교를 경성부에 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삼산학교유지후원회 이사 1명과 성북정 총대가 12월 6일 오전에 경성부 학무과장을 방문했다. 그들은 학무과장에게 경성부가 새롭게 돈암정에 신설되는 심상소학교에 대한 예산에 삼산학교를 기부 받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학무과장은 “절대로 오는 봄에 신설하는 심상소학교와 삼산학교와는 별개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후 유지후원회 이사와 성북정 총대는 학무과장에게 성북정의 인구가 매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성북정에 심상소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삼산학교를 심상소학교로 승격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학무과장과 면담을 마친 삼산학교유지후원회는 삼산학교를 경성부에 기부하려는 계획에 대해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돈암정에 새롭게 설립된 심상소학교는 삼산학교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삼산학교를 이 학교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은 학부형들을 기만하는 태도라는 것이었다. 삼산학교유지후원회 이사장 하윤실은 매년 입학 학생들을 모집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삼산학교에 대해 힘을 다해 지원하고 키워가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삼산학교를 현 위치에 두고 이것을 기본으로 수 년 내에 심상소학교로 만들 것이며, 이것을 위한 경비를 마련할 곳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산학교유지후원회의 입장에 대해 학교 설립자 측은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학부형회의가 종료된 후 성북정회와 삼산학교유지후원회에서 성북정회사무소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산학

교를 경성부에 기부하자는 주장을 한 교장 김흥규와 교무주임 이상봉에게 사직권고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⁸³

삼산학교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학교를 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삼산학교유지후원회 측과 설립자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당시 학교의 교주였던 강진구姜振九는 12월 11일 삼산학교유지후원회와 학부형을 초대하고 삼산학교는 선조의 유업으로 설립된 곳으로, 학교를 경성부에 기부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의 장소를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래 훌륭한 학교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⁸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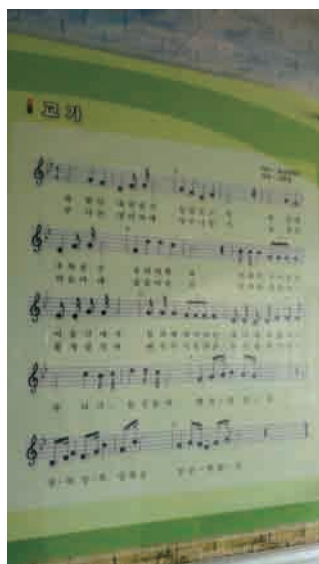
공립학교 승격방법을 둘러싼 논란 이후의 삼산학교

1938년 삼산학교 기부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은 후 교주였던 강진구는 약속대로 학교의 경영에 힘썼던 것 같다. 1939년 1월 29일 『동아일보』는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산아동의 유일한 교육기관 삼산학교의 교주 강진구가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학교 승격 신청을 위해 경성부 학무과를 방문했음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강진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연 3,000원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삼산학교유지후원회에서는 교사를 책임지고 건축하기로 했다.⁸⁵ 이 때 삼산학교는 6년제 사립심상소학교로 승격이 된 것으로 보인다. 1939년 이후 삼산학교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일제의 전시체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었기 때문이다.

삼산학교는 1942년 3월 3일 공립국민학교로 바뀌게 되었다.⁸⁶ 삼산학교는 설립 이래 개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운영했던 것으로



성북초등학교(2015)



성북초등학교 교가

보인다. 하지만 1943년 삼산학교가 있던 토지는 경성부의 소유로 이전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변경되었다.⁸⁷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후인 1946년 2월 삼산학교는 공립으로 승격되었으며 교장은 하윤실이 담당하게 되었다.⁸⁸ 7개월 후인 1946년 9월 삼산학교의 이름은 경성성북공립초등학교로 변경되었으며 통학구역으로는 성북정과 동소문정이 지정되었다.⁸⁹

삼산학교는 대한제국시기였던 1908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그 명맥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삼산학교는 성북동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지켜져 왔다. 또한 지역사회의 핵심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남기현)

김경중의 『조선사』

1936년 5월 20일 『동아일보』에는 “성북정에 사는 김경중 씨가 20여년에 걸쳐 편찬 작업을 했던 『조선사朝鮮史』를 탈고했으며 이 책을 인쇄하여 민간 중등이상 남녀학교와 각 도서관에 기증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조선사朝鮮史』는 조선 태조 원년(1392)부터 철종 14년(1863)까지를 편년 순으로 정리한 책이었다. 1936년 2월 20일 발행되었으며, 총 17권 17책으로 구성되었다. 판권사항에 따르면 발행인은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41번지에 사는 김경중이었으며, 발행소는 지산서실芝山書室이었다. 김경중(1863~1945)은 조선의 문신, 학자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역사가, 작가, 교육인으로 생활했다. 전라북도 고부군 출신으로 김성수의 생부이며, 기업인 김연수의 아버지이다.



김경중의 조선사



지산 김경중(1863~1945)

이병도와 진단학회, 『진단학보』

이병도는 한국역사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학자이다. 1934년 진단학회가 창립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하는 관변적 연구풍토에서 벗어나 한국학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풍토를 구축하기 위해 진단학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병도가 주도해서 발간한 『진단학보』는 국문으로 된 최초의 학술지이다. 창간호부터 3호까지 계동 98번지 이병도의 집에서 발간되었다. 이후 1936년 4월 발간된 4호부터 1941년 14호까지 성북리 132번지에서 발간되었다. 이병도는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사관보와 촉탁으로 참여하였다. 이때의 경력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진단학보』 4호



두계 이병도(1896~1989)

5. 이태준의 눈으로 본 1930년대 성북동

단편소설을 잘 써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기도 한 상허 이태준은 1933년 성북동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다. 일제강점기 말, 잠시 세상을 피해 고향인 철원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태준은 월북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 성북동에서 지냈다. 성북동 집은 이태준에게 단순한 안식처만이 아니라 작품을 집필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의 집 이름 ‘수연산방(壽硯山房)’은 벼루가 다할 때까지 글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집이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었듯 성북동도 그에게 그냥 사는 마을이 아니었다. 성북동에 사는 이웃들의 이야기는 그의 소설의 단골 주제가 되곤 했다. 「달밤」, 「손거부」, 「토끼 이야기」, 「장마」 등은 성북동 사람들, 그리고 성북동에서 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소설을 따라가면 그가 살았던 1930년대 성북동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다.

그가 성북동에 자리 잡은 1933년 무렵의 성북동은 비교적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우선 당시 경성 바로 밖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혜화문과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했다. 그 때문인지 문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문인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당시에 이미 김일엽, 김기진, 이종린 등이 성북동에 살았고, 만해 한용운도 이태준과 같은 해에 심우장을 짓고 성북동 생활을 시작했다. 또한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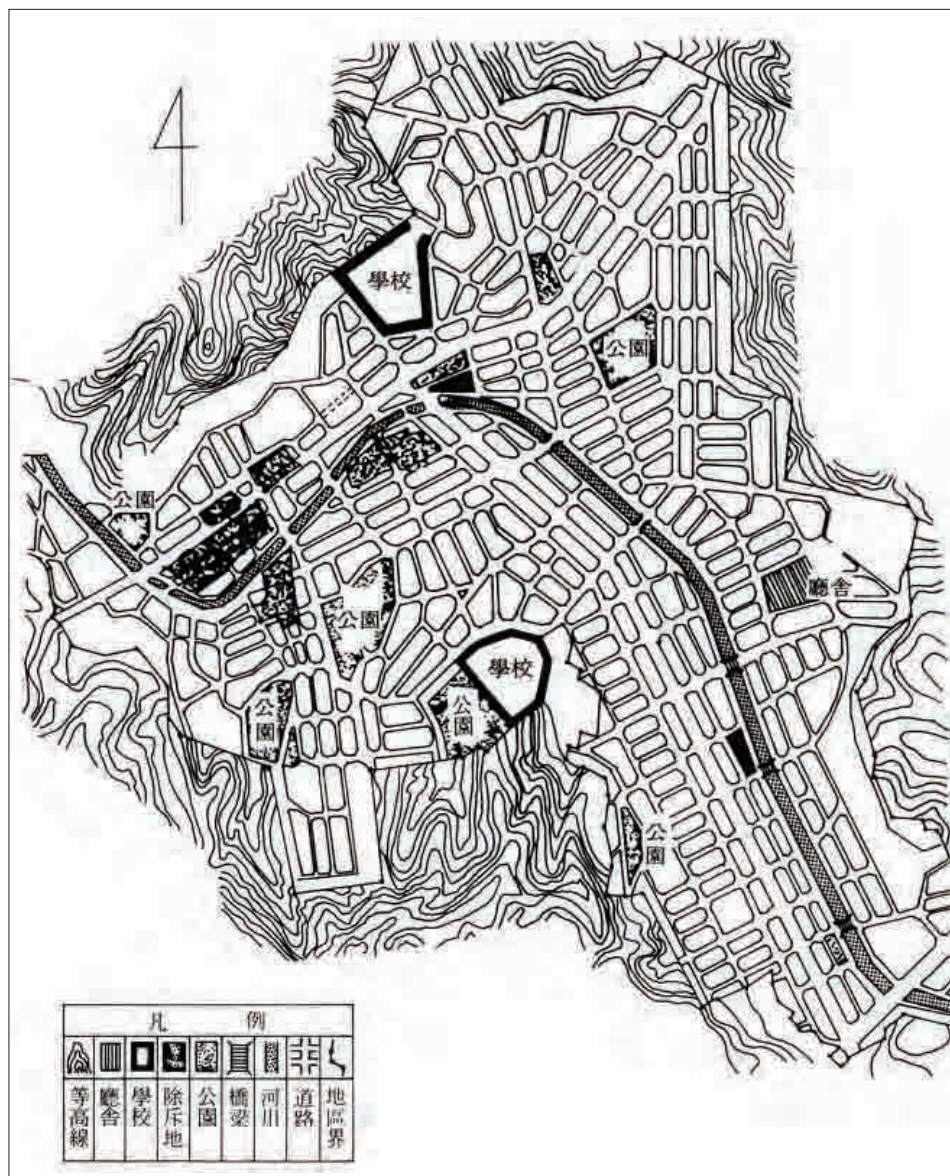
김복진이 그린 이태준의 소묘

들의 진정으로 술집이나 요정의 수가 제한되었고, 상수도 설치, 버스 시간 연장 등의 주민 진정이 일부 받아들여져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다.⁹⁰

하지만 이태준의 집 수연산방이 있던 지역은 이런 주택단지는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 초반 ‘대경성계획’을, 후반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발표하는데 성북동이 포함된 돈암지구는 그중 주택지구로서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당시의 계획도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보면 성북동은 현재 마전터가 있는 간송미술관 앞까지만 개발이 계획되어 있었다. 즉 수연산방 지역은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태준은 그의 단편소설 「달밤」에서 성북동에 온 소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수연산방 앞에는 성북천이 물소리를 내며 흘렀고 ‘술바람이 쏘—하고’ 불었다.⁹¹ 수연산방에서 성북천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마전터가 있었다. 조선이 국권을 빼앗기며 마전을 하여 납품할 상점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마전은 1910년대까지도 성북동의 몇 안 되는 생업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옆으로는 1908년 만들어진 삼산학교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일반 주택들이 이어져 있었다. 이 주택의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 총독부에 상수도 개설 등의 청원운동을 하는 등 상당한 주민 자치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36년 개발이 시작되기 전 성북동은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을지언정 조용하면서도 사람이



돈암지구 구획정리계획 평면도(『성북구지』, 332쪽)



상허 이태준 가옥(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1호)

살기 좋은 마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1933년부터 성북동에 자리 잡은 이태준의 글에는 주민자치를 하고, 청원 운동을 하던 성북동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태준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렸을까?

이태준 소설에 비친 성북동 사람들의 주거문제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성북동은 예로부터 문인들의 사랑을 받는 동네였다. 특히 계곡이 깊고 물이 맑아 조선시대부터 양반들의

별장지로 사랑 받았다. 의친왕 이강의 별장인 성락원, 여흥 민씨 집안인 충정공 민영환의 음벽정 등은 지금까지도 이름을 남기고 있고, 부호 이종석의 별장, 안동 김씨 집안의 별장 등도 이곳 성북동에 있었다. 성락원과 이종석 별장은 아직도 남아 당시 양반들의 호화로운 삶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성북동 사랑은 그들이 남긴 많은 시와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시와 글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혜화문 밖에서 무엇을 보겠는가. 惠化門外何所見
 푸른 숲 흰 모래밭에 연하여 있네. 點綴有林白沙嘴
 북둔의 복숭아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 北屯桃花天下紅
 푸른 시냇가에 집집마다 낮은 울타리. 短籬家家碧溪止

— 이덕무, 『성시전도(城市全圖)』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제20권) 중에서

맑은 계곡과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복숭아를 심어 생업을 삼고 있다. 매년 늦은 봄이면 놀이를 나온 사람들과 거마가 두 줄을 지어 가득하게 산 계곡 사이를 메우고 깨끗한 초가집이 많다.

淸溪狹岸 居人種桃爲業 每於晚春 遊人車馬 駢闐山谷間 亦多精麗之茅屋

— 유본예, 『한경지략(漢京識略)』 명승조 중에서

푸른 숲과 흰 모래밭이 있는 마을, 봄이면 복사꽃이 활짝 피어 붉게 물드는 마을, 그래서 봄이면 놀이를 나온 사람들이 탄 수레와 말이 줄을 지어 계곡을 가득 채우는 곳이 바로 성북동이었다. 그밖에도 추사

김정희, 변암 채제공, 풍고 김조순, 초정 박제가 등도 성북동에 관한 시와 글을 남겼으니 조선시대 선비들의 성북동 사랑은 대단했다. 그들의 별장이 성북동에 많았던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양반들의 주요 거처는 사대문 안 북촌 일대였다. 성북동 별장은 봄에서 가을 사이, 날 좋은 날 잠시 이용하는 곳이었으니 이를 당시 성북동의 일반적인 주거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태준의 수연산방과 한용운의 심우장이다. 공교롭게도 두 집 모두 1933년에 지어졌다. 두 집 모두 큰 규모의 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번듯한 기와집이었고 상당한 공사비가 들었다.⁹²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태준의 경우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부장이라는 번듯한 직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한용운은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의 도움 등 주변 지인들의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 정도의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36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된 이후 성북동에는 집장사들이 지은 ㄴ, ㄷ, ㄹ자 한옥들이 대거 들어섰다. 당시 혜화동은 많은 셀러리맨들의 중상급 주거지로 사랑받았는데,⁹³ 그와 멀지 않은 성북동 역시(성북동뿐만 아니라 돈암지구) 중산층 주거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한옥도 그 당시 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성북동에 중산층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역시 성북동의 주민이었다. 이태준이 그린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의 소설 「손거부」를 보자. 주인공 손서방은 주인공(아마도 이태준)을 찾아와 문패를 써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나는 이런 문패를 처음 써볼 뿐만 아니라 호구조사 나오는 순사한테
방패막이로 한다는 그의 말이 우습기도 하고 또 그의 어리숙함에 일종
의 취미도 느끼었다. 우선 첫머리엔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라고 쓰고,
“거기가 몇 번지요?”

물었다.

“번지 그까짓 안 쓰면 어떻습니까?”

“왜 안 쓴단 말이요? 아, 장자, 차자 이름을 다 쓴다면서 정작 번지를
안 쓰면 되우?”

“우린 아직 번지가 없답니다.”

“번지가 없다뇨?”

“그게 개천독에다 진 집입쥬. 이를테면 국유집쥬.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면에서 나와 번질 매겨 주기 전엔 아직 모릅니다.”

이 대화를 보면 개천가 국유지를 따라 무허가 집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무허가 건물이 손서방의 집 하나밖에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까지도 수연산방 앞, 지금은 도로가 된 옛 성북천
개천둑 자리에는 오래된 건축물이 늘어서 있었다. 이 건물들이 1930년대
건물은 아니었을 것이나, 예전 국유지 자리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유지에 집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경성의 급격한 인구 증가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20년에 25만 명이었던 경성부의 인구는 1926
년에는 33만 6천명으로 34.43%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다.⁹⁴ 인구는
급격히 늘었지만, 경성에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할 주택이 없었고
그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당시 경성부로 몰려든

사람들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그곳에 아주 기초적인 주거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토막’ 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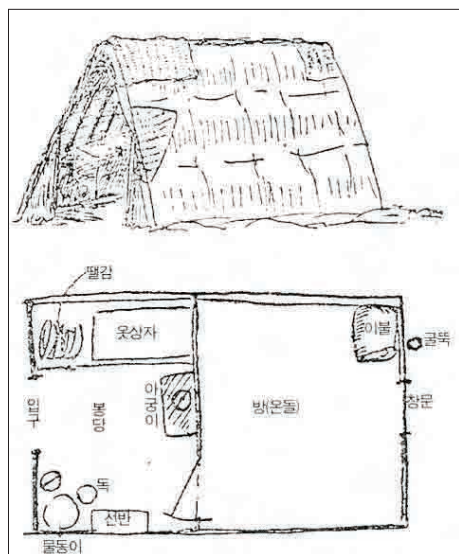
이런 토막이 경성부 내에 마구 들어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일제강점기 주택문제는 심각했다. 1926년 5.77%였던 주택 부족율은 1930년대 전반에는 10~15%, 1930년대 후반에는 20%로 계속 증가하며 1944년에는 40.25%라는 엄청난 수치에 이른다. 조선인들의 사정은 훨씬 나빴다. 1933년 현재의 경성부의 인구·주거·가구수 등을 조사하여 담고 있는 1935년 『조선연감』을 살펴보면, 경성부내 일본인의 주거 부족율은 2.75%에 불과했지만 조선인의 경우에는 15.15%에 이르렀다.⁹⁵

조선총독부도 이런 주택문제를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총독부는 경성부 내의 토막민들을 당시 경성부 외의 국유지(돈암정, 아현정, 홍제외리 등)에 이주시키려 하였고, 일부는 이주시키기도 하였다.⁹⁶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경성부의 인구는 조선 전체의 인구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농촌의 생산량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조선인들의 궁핍은 갈수록 심해졌고⁹⁷ 결국 도시로—특히 경성으로—몰려들었다. 토막민을 경성부 밖으로 이주시켜도, 그 자리에는 다른 토막민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⁹⁸ 사실 총독부의 주택문제에서 토막민 정책은 주된 의제가 아니었다.⁹⁹ 총독부의 토막민 정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서민주택의 건설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작정 토막민을 경성부 밖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한계가 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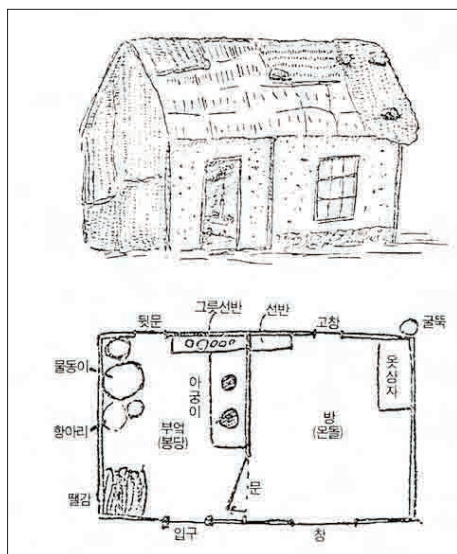
손서방의 집은 이런 주택문제의 결과 경성부 주변에 만들어진 여러 토막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어느 토막처럼 ‘국유지’

에 지은 집이었고, 그 때문에 번지도 없는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손서방 등이 살았다고 추정되는 토막은 어떤 형태였을까.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보고서는 토막을 ‘하룻밤 사이에 가마니, 나무판자 조각 등을 대충 모아 재성한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다.¹⁰⁰ 물론 온돌 등이 갖춰진 곳이 많아 위의 묘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허름한 것은 사실이었다. 우선 토막은 매우 협소했다. 좁은 곳은 1평~1.5평 내외의 1실(단칸 방) 구조가 대부분이었으며, 방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1인당 평균 평수는 0.6평 이하가 전체의 79.4%에 달했다. 기본적인 온돌 시설마저 없는



A형 토막



B형 토막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에서 인용



토막의 화장실(경성제국대학위생조사부,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2010, 8쪽)

곳도 6%나 됐다.¹⁰¹ 한 세대에 4인~6인이 사는 경우가 전체에 57.9%에 달했고, 한 세대의 평균 인원수는 4.8명이었다. 「달밤」의 황수건은 7식구가 한 집에 산다고 하였는데, 당시 그의 집이 토막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토막민 평균보다 더 많은 식구가 한 집에서 사는 셈이었다.

자연히 위생문제도 심각했다. 전체의 51.8%는 전용내지, 다세대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지만 나머지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다.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었다.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가 22.6%, 두 달에 한 번하는 경우가 29.1%였고, 한 번도 목욕탕에 가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11.5%에 달했

다. 물론 목욕탕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씻지도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 이외에 전신을 다 씻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¹⁰²

「달밤」과 「손거부」의 두 주인공—황수건과 손서방—의 생활은 위에 언급한 토막민들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농촌의 궁핍을 이기지 못하고 경성으로 올라왔고, 거기서 다시 쫓겨 성북동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좁은 집에서 여러 식구가 깨끗하지 않



1955년 성북천에서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이하 복자수도회)을 찍은 사진이다.
 복자수도회에서 조금 성북천을 따라 더 올라가면 수연산방이며,
 천변으로는 초가집들이 보인다.
 『달밤』의 황수건과 『손거부』의 손거부가 살던 집은 이런 초가집보다 나을 게 없었을 것이다.
 (사진제공 : 문화재청)

은 환경에서 거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을까?

이태준 소설에 비친 성북동 사람들의 직업

지금도 그렇지만 성북동은 1930년대에도, 생산의 장소는 아니었
 다. 벼를 표백하던 마전은 1930년대에는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잃
 은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태
 준과 같은 문인들(혹은 엘리트들)은 사대문 안에 좋은 직장이 있는 경



경성일보 배달원들이 입었던 핫피法被, 보조배달원이었던 황수건은 이런 '멋진' 옷을 입는 신문배달원이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사진제공,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우가 많았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했다.

「달밤」의 황수건은 조금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나름 열심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성북동에 있던 삼산학교에서 급사로 일하기도 했고, 거기서 쫓겨난 이후에는 신문사의 보조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형님 내외, 자신 내외, 이렇게 7식구가 같이 살아 쉬이 놀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나중에 보조배달원마저 잘리게 되자 그는 다시 삼산학교 급사로 들어갈 요량으로 운동도 하고 학교 사무실을 찾아가 조

고 일 잘하는 급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거부」의 손서방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부인과 아들들을 둔 가정이다. 딸도 하나 있었지만 어려서 죽었다. 아들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그는 아들의 책값과 월사금을 대느라 ‘일정한 직업은 없지만’ ‘진일 마른일 다 쫓아 댕’기다 하루는 채석장에서 일하다 손이 찢엄지손가락 하나를 못 쓰게 된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도 아들을 하나 더 낳는다. 이태준의 눈에 비친 성북동의 토막민들은 항상 취업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1930년대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비단 황수건과 손서방뿐만이 아니었다. 1910년에 약 1천 3백만 명이었던 인구는 1930년이 되면서 이미 2천만 명을 돌파했고, 1930년에는 2천 3백만 명에 육박한다. 25년 만에 약 77%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¹⁰³ 이런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것도 아니었다. 1930년 조사를 보면 경성의 무업자는 무려 65.32%에 달했다. 물론 당시의 무업자에는 학생, 지주, 종속자 등 직업 없이 다른 사람들의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을 곧 실업률로 볼 수는 없다.¹⁰⁴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직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유업자, 즉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경성부 인구의 34.58%였는데 이것을 일본인과 조선인,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를 해 놓으면 그 안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 가운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13.94%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 일자리가 가사도우미, 여급, 간호원, 전화 교환원, 점원 등으로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회 분위기도 이에 한 몫을 했다. 이케다 키요시는 ‘말을 바꾸어 직업여성에게 다시 고한다. 장래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직장을 버리고 여성 본래의 사명인 가정으로 돌아가 심창(深窓)의 현모양처 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라!’라고 말하고 있다.¹⁰⁵ 이 글은 당시 사회가 여성의 사회생활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면을 보여준다. 직업도 많이 없고,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진출—특히 조선인 여성—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선인 여성에 비하면 조선인 남성들의 상황은 나은 편이었지

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다. 취업률로만 보면 남성 유업자의 비율은 53.52%로 여성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조선인 남성의 경우 거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단순한 막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지위가 높은 공무 자유업 종사자는 9%에 불과했다.¹⁰⁶

하층으로 가면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되었다. 1940년의 자료이긴 하지만 토막민으로 불리는 당시 사회 최하층 사람들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남성은 736명이 유업자임에 반해, 여성은 83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성 유업자에 40%가 넘는 301명은 날품팔이 노동자였다. 소설 속 손거부는 여기에 속했다. 나머지 직업도 수레꾼, 마차꾼, 청소 인부, 운송 인부, 운반 인부, 화물운반 짐꾼, 구두공, 냇마주이 등 단순 노동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 할 수 없는 직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래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려웠다. 여성의 경우 작부(酌婦)와 여급 등이 직업으로 확인되었다.¹⁰⁷

한 세대 당 유업자 수는 1명인 경우가 63%, 2명인 경우가 26%로 거의 90%에 육박했다.¹⁰⁸ 조사에서는 여성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그들의 기술에 상응하는 직업이 가까이에 없기 때문’¹⁰⁹이라고 하는데, 한 세대 당 유업자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전체적인 유업자 비율이 낮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들의 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1940년 기준 토막민 남성 유업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1.30원이었다. 재봉사, 벽돌공, 미장이 등 기술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토막민들이 토막민 이외의 조선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았다. 막노동과 인부 등 힘쓰는 직종의 직업을 갖은 사람들은 토막민 이외의 사람들보다 수입

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나마도 전체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¹¹⁰

황수건과 손서방은 직업으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토막민들의 사정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은 몸을 쓰는 막노동 이외에 다른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결국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막노동(채석장 일)이나 신문배달 혹은 학교 급사뿐이었다. 그리고 식구는 많은데 임금은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가난은 그들의 운명처럼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태준의 시선은 이렇듯 가난한 사람들을 향했다. 마치 이태준의 시선으로 본 성북동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성북동은 ‘문인촌’이라 불렸을 만큼 문인들이 많이 살았고, 서슬 퍼런 총독부에 청원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산과 실력을 가진 소위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 또한 부자들의 별장과 그들이 노는 요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태준의 시선은 왜 가난한 자들을 향했을까? 지금으로선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혹 이것이 해방 이후 이태준의 행적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않을까? 1930년 이태준의 눈으로 본 성북동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다.

(박수진)

주석

- 1_ 조선총독부,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1~10쪽.
- 2_ 京城府 編, 『京城府史』2권, 1936, 520~521쪽.

- 3_ 「總督府令 제111호 道の 위치 · 관할구역 및 府郡의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1913.12.29.
「總督府令 제2호 府制 및 學校組合令 시행에 관한 件」1914. 1. 25.
「總督府令 제3호 府制 施行細則」1914. 1. 25.
「總督府令 제28호 府制 및 學校組合令 施行細則」1914. 3. 31.
- 4_ 서울특별시 성북구, 『城北區誌』, 1993, 117~119쪽.
趙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53~58쪽.
- 5_ 『동아일보』 1932. 12. 29. / 1934. 3. 14. / 1934. 5. 21.
- 6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120~121쪽.
- 7_ 『동아일보』 1936. 6. 17.
- 8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122~124쪽.
- 9_ 『朝鮮總督府官報』 1944. 10. 23.
- 10_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98~176쪽.
- 11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300~304쪽.
- 12_ 『동아일보』 1938. 1. 22.
- 13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305~307쪽.
- 14_ 『동아일보』 1930. 3. 27. / 1930. 3. 28. / 1930. 4. 2.
- 15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128쪽.
- 16_ 京城府, 「경성부시가지계획 풍치지구지정자료조사서」, 1937, 37~38쪽. (서울
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431쪽에서 재인용)
- 17_ 이태준, 「달밤」, 『중앙』 1933. 11.
- 18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334쪽.
- 19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429쪽.
- 20_ 김영미, 「일제시기 도시문제와 지역주민운동」, 『서울학연구』 28, 2007, 53쪽.
- 21_ 『조선일보』 1925. 5. 30.
- 22_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setId=77087&position=0>)
- 23_ 『동아일보』 1925. 8. 12.
- 24_ 『조선일보』 1925. 8. 12.
- 25_ 김영미, 위의 논문, 2007, 55쪽.
- 26_ 『조선일보』 1925. 6. 20.
- 27_ 『조선일보』 1925. 7. 15.
- 28_ 『조선일보』 1925. 8. 18.
- 29_ 김영미, 위의 논문, 2007, 55쪽.
- 30_ 『동아일보』 1927. 6. 28.

- 31_ 『동아일보』 1927. 7. 6.
- 32_ 김영미, 위의 논문, 2007, 56쪽.
- 33_ 『동아일보』 1929. 4. 30.
- 34_ 김영미, 위의 논문, 2007, 56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setId=79125&position=0>)
- 35_ 김영미, 위의 논문, 2007, 57~58쪽
- 36_ 『동아일보』 1933. 7. 1.
- 37_ 『동아일보』 1934. 1. 14.
- 38_ 『동아일보』 1936. 4. 12.
- 39_ 『동아일보』 1936. 8. 9.
- 40_ 김영미, 위의 논문, 2007, 59쪽.
- 41_ 『조선일보』 1936. 6. 3.
- 42_ 김영미, 위의 논문, 2007, 60쪽.
- 43_ 總督府 警務局, 『乗合自動車運轉狀況』.
- 44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133~134쪽.
- 45_ 『동아일보』 1931. 1. 31.
- 46_ 『동아일보』 1931. 8. 4.
- 47_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로와 자동차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연구』4집, 1989.
- 48_ 『동아일보』 1936. 6. 4.
- 49_ 『동아일보』 1938. 2. 28.
- 50_ 『동아일보』 1938. 4. 8.
- 51_ 『동아일보』 1938. 4. 20.
- 52_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7206&cid=40942&categoryId=31723>)
- 53_ 『황성신문』 1908. 7. 18.
- 54_ 정승교, 「대한제국기 지방학교의 설립주체와 재정」, 『한국문화』22, 1998, 298쪽.
- 55_ 이기훈, 「1920~30년대 보통학교와 지역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54, 2008, 126쪽.
- 56_ 정승교, 위의 논문, 1998, 306쪽.
- 57_ 『황성신문』 1908. 10. 24. / 1909. 6. 6.
- 58_ 『황성신문』 1909. 6. 6.
- 59_ 『황성신문』 1908. 12. 5.
- 60_ 『황성신문』 1909. 6. 22.
- 61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454쪽.

- 62_ 이기훈, 위의 논문, 2008, 126쪽.
- 63_ 權寧培, 「일제하 사립각중학교의 지정학교 승격에 관한 일연구」 『조선사연구』13, 2004, 210쪽.
- 64_ 『매일신보』 1912. 5. 9.
- 65_ 『매일신보』 1912. 5. 21.
- 66_ 『매일신보』 1912. 3. 29.
- 67_ 『매일신보』 1916. 2. 22.
- 68_ 『매일신보』 1918. 1. 29.
- 69_ 『동아일보』 1925. 3. 9.
- 70_ 『동아일보』 1921. 5. 6. 1921년 고양군 송인면에 보통학교가 만들어졌다. 이 기사에 따르면 高陽郡 崇仁面 停門里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1914년 일제가 시행한 행정구역 개편 결과를 정리한 책인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는 송인면에 정문리가 존재하지 않음. 신문기사에서 里門里를 停門里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 71_ 『동아일보』 1927. 2. 5.
- 72_ 『동아일보』 1928. 12. 13.
- 73_ 『동아일보』 1928. 12. 17.
- 74_ 『동아일보』 1929. 1. 30.
- 75_ 權寧培, 위의 논문, 2004, 220~221쪽.
- 76_ 박진동, 「일제강점하(1920년대) 보통학교 6년제 승격운동의 전개와 귀결」 『역사교육』102, 2007, 119쪽.
- 77_ 『중외일보』 1930. 3. 29.
- 78_ 『동아일보』 1931. 2. 22.
- 79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993, 124쪽.
- 80_ 박진동, 위의 논문, 2007, 114쪽.
- 81_ 權寧培, 위의 논문, 2004, 222~223쪽.
- 82_ 『조선일보』 1938. 12. 6.
- 『동아일보』 1938. 12. 8.
- 83_ 『동아일보』 1938. 12. 8.
- 84_ 『동아일보』 1938. 12. 12.
- 『조선일보』 1938. 12. 12.
- 85_ 『동아일보』 1939. 1. 29.
- 86_ www.sungbuk.es.kr(성북초등학교 홈페이지)
- 87_ 『토지대장』 성북동 66-1.
- 88_ 『자유신문』 1946. 2. 24.

- 89_ 『조선일보』 1946. 9. 12.
- 90_ 성북동의 인구는 1920년~193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다. 1915년 810명, 1920년 805명이었던 성북동의 인구는 1930년 1,66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서울特別市 城北區, 『城北區誌』, 藝文社, 1993, 334쪽.). 여러 문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도, 사람들이 모여 청원운동 등을 시작한 것도 이 사이의 인구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91_ 상허학회 편, 이태준, 『달밤』, 소명출판, 2015, 272쪽.
- 92_ 심우장은 김벽산 스님이 땅을 제공했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건축할 때 지은 빛은 그를 죽을 때까지 쫓아 다녔다(고은, 『한용운평전』, 향연, 2004, 342~344쪽).
- 93_ 최병택, 예지숙 지음, 『경성리포트』, 시공사, 2009, 19~20쪽.
- 94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1940년, 경성의 풍경,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2010, 79~81쪽.
- 95_ 「대한제국시대의 주택사정」(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 史』 200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편찬원→서울육백년사→일제침략하의 서울→시민생활→주택→대한제국시대의 주택사정 참고.
- 96_ 성북문화원, 『동소문 밖 능말 이야기』, 학연문화사, 2013, 136~139쪽.
- 97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128쪽.
- 98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83쪽.
- 99_ 전진성,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 도쿄, 서울』, 천년의 상상, 2015, 465쪽.
- 100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174쪽.
- 101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173~182쪽.
- 102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186쪽.
- 103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38쪽.
- 104_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인구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5, 491~492쪽.
- 105_ 이케다 키요시(池田清士), 「여성들이여,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라」 『중앙공론』 제281호, 1936.8(김효순 외 『조선 속 일본인의 에로경성 조감도』, 도서출판 문, 51쪽에서 재인용).
- 106_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인구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5, 499쪽.
- 107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141쪽~146쪽.
- 108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146~147쪽.
- 109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146쪽.
- 110_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지음, 박현숙 옮김, 앞의 책, 149~151쪽.

현대의 성북동(1945~현재)

1. 정치·문화의 1번지 성북동(1945~1950)

동회와 동회를 이끈 인물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마을이라고 부르는 최소단위가 바로 동네 혹은 ‘동洞’이다. 서울의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이는 18세기 이래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온 생활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 서울, 즉 경성부 역시 행정의 최소단위를 바로 이 동으로 삼았고, 당대에는 이를 ‘정畵’이라고 불렀다. 1936년 4월 경성부로 편입된 ‘성북정’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아래 있다.

성북정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였다. 그리고 이들은 곧 성북구락부라는 청년조직과 총대/정회라는 청년조직과 지역조직을 만들어 지역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해방 이후로 이어졌다.¹

1946년 왜색을 일소하는 움직임 하에 성북정은 곧 성북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성북동에는 동회와 이를 이끈 동회장들이 있었다. 동회는 1933년 10월 3일에 설치되었던 정회가 그 기원이 된다. 1943년 구제가 실시된 이래 동대문구에 속했던 성북동은 그해 8월 1일에 성북 1, 2

정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해방 이후인 1946년 10월 1일 정회는 동회로, 정회를 이끄는 정총대는 동회장으로 그 이름을 바꿨다. 성북 제 1, 2정회 역시 제 1동회와 제 2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² 이는 1955년 4월 18일 동제가 실시되어 성북 제 1동과 제 2동의 구역이 재정의되기 이전까지 근 십년간 유지되었다.

1955년 이전까지 행정의 최소단위에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이들 동회, 그리고 동회장이었다. 원래 행정조직이 아닌 동회는 1949년 7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폐지될 뻔했었다. 그러나 예산 문제, 그리고 연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정식 행정조직의 산하에 속하지 않고, 반관반민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물론 성북동에는 예로부터 마을 문화가 강했고, 해방 이후에도 동민들의 자치조직인 ‘자성회’가 조직되어 동민단합과 문화적 계몽활동을 펼쳤다.³ 그러나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3년, 그리고 주민동이 일상화되어 있던 이승만 정권 하에선 이들 동회를 중심으로 여러 조직들이 난무했다. 5.10선거를 수행하기 위한 향보단(후일의 민보단),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유숙계, 애국반(후일 국민반) 등이 그것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에 동회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떠맡는 등 지역 활동에서 핵심을 담당했다.

성북동에도 동회 아래 제 1향보단 등 향보단이 결성되었고, 이른바 해방 정국 우익 4대 청년단체 중 하나인 국청 성북동 제 1분회, 제 2분회 등이 활동을 시작했다.⁴ 이들 청년단의 활동은 특히 1948년 1월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조선 방문을 계기로 격화되었다.⁵

동회장 중에는 후일 국회의원이 된 이도 있었다. 1951년 당시 성

북 제 1동의 동회장은 조태우(趙泰友)씨, 그리고 제 2동의 동회장은 김일(金一)씨였다.⁶ 이 중 제 2동의 동회장 김일은 1954년 제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서울시 국회의원 16인 중 1인으로 9,838표로 당선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만주 봉천 삼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남경 금릉대학을 중퇴한 이후 국민회의 선전부장, 자유당 성북구 당위원장 등을 역임했었던 인물이었다.⁷ 이는 일제강점기 이래 주민조직의 핵심을 담당했던 동회의 위상이 1950년대 중반까지는 여전했음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다.

좌우의 소용돌이, 그리고 상처

일제강점기 이래 성북동은 문인들의 이주로 유명하다. 아직 성북동이 고급 주택가의 이미지로 기억되기 보다는 호젓한, 문인의 품격과 평의 바다와 같은 풍경과 이미지로 기억되던 시기였다. 성북동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삼선교, 돈암교를 거쳐 흐르던 이른바 ‘안감내(安甘內)’라는 천이 흐르는 시원함이 성북동의 정취를 돋우었다. 그런 곳에 해방 후의 여러 문인, 화가, 작가들이 자리를 틀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성북동은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오늘날 정갈한 사찰의 풍광과 법정스님의 말씀으로 기억되는 길상사는 한때 요정대원각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 대원각은 백석의 ‘나타샤’ 김영한(金英韓)이 1951년 650만원의 거금을 주고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청암장’을 인수한 것이 시작이었다.⁸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길상사로부터 나타샤의 애환과 백석의 치기어린 사랑이 법정스님의 말씀으로 정화되는 이미지를 기억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 공간에 스며들어 있는 중요한 역사



대원각(1990)

적 장면 하나가 잘리워져 나갔음을 간과하곤 한다. 김영한이 인수하기 전 청암장은 이봉재李鳳載가 요리집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이 요리집은 해방 공간에서 이런 저런 곡절 속에서도 제법 그 위세를 자랑했다. 특히 통일된 남북한 정부수립을 위해 내한해 온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인도대표 ‘싱’씨에 대한 환영회가 이곳에서 열렸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⁹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 성북동이 바로 정부 수립 후 한국정치의 가능성을 내포했던 중도파의 희망과 아픔이 함께 했던 곳이라는 점이다. 성북동, 조금 범위를 더 넓혀 성북구 전체에서 가장 유명했던 중도파 정치인을 꼽으라면 조소앙 선생을 꼽을 수 있다. 선생의



조소앙(趙素昂, 1887~1958)

일화는 1950년 5월 30일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전 비사를 통해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한국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 이후 두 번째였던 이 선거는 당대에 바람의 선거라고 불리기도 하였지만 국회 내 제 3세력이라고 불리웠던 중도파, 남북협상파들이 대대적으로 당선되었던 선거였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조소앙은 당대의 유력자이자 미군정청 경무국장을 역임했던 조병옥의 갓은 선거 공작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당시 조소앙은 “공산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쓴 게 탄로나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월북했다.”라는 벽보와 뼈라 때문에 30일 새벽 지프차에 확성기를 달고 자신의 존재함을 알리는 등,

갓은 고초 끝에 당선되었다.¹⁰ 조소앙을 필두로 한 이들 중도파들은 한국 정치에서 큰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에 상처를 크게 입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한국전쟁의 발발이었다. 미아리에서의 초창기 전선이 무너지면서 서울에 살던 사람들에게 지옥이 찾아왔다. 인민군이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 사이에 대통령도 없는 서울 하늘 아래 사람들은 발길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한강철교는 너무 일찍 끊어졌고, 정부의 왜곡된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 피난길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른바 도강파와 잔류파의 소용돌이는 아마도 그 후 성북동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이다.

이 소란의 와중의 모습은 일관되지 않다. 저 간송 전형필 선생에게 한국전쟁의 초입은 문화재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긴장감으로 기억된다. 전쟁 초입 인민군들은 남침 경로의 중앙에 있는 돈암동과 성북동에 진을 쳤다. 이어 서울이 함락된 이후에는 저 유명한 간송 전형필의 문화유산의 보고인 ‘보화각’이 그네들의 손에 들어갔다. 최순우 선생 등의 기지로 이를 지켜내기는 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선생은 기억한다.¹¹ 그러나 이 혼란의 시기에 김용준 등 후자는 북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주로 많은 문인들과 화가들이 북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걸음 걸음에는 아마도 이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없었을 터이다.¹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기치 못하게 납북된 인사들이 많았다. 오늘날 납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당시 서울 시민들의 경우 2~4천명 사이로 납북자 수가 추정되고, 성북구의 경우 225명 정도가 납북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안재홍, 조소앙 선생, 역사학자 손진태 선생 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름 없는 청년단원, 여학생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¹³

연구와 증언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당시 성북동은 당시 이들 중요 인사들이 연금되어 있던 안가가 있었던 곳이었다.¹⁴ 이들은 이전까지 주로 인민군의 대남방송에 활용되었다가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에 납북되었다. 그러나 많은 납북자들이 피신하는 도중 공습에 명을 달리하였고, 나머지도 전쟁 후 북에 남겨나 소식만 간간히 들려오는 등 중도파들의 명맥은 이때를 기점으로 크게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중도파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다간 땅이 바로 여기 성북동이었던 것이

다. 당시 중도파의 가장 저명한 인물이었던 조소앙은 이후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참여하지만, 1958년경 수상스럽게도 물에 빠져 그 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한봉석)

대하소설 『한강』에 나오는 1959년의 성북동



조정래 대하소설, 『한강』
(2003년 완간)

대하소설 『태백산맥』으로 이름을 알린 소설가 조정래(1943~)는 1959년 보성고등학교 입학차 상경한 후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성북동 산동네에 살며 매일 물지게를 지고 산비탈을 오르내렸다. 대학 졸업 후엔 아내인 김초혜 시인과 함께 부부 교사로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현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재직한 적도 있다. 조정래는 이 학교에

서 국어교사로서 근무하던 중인 1970년 『현대문학』 6월호에 단편소설 「누명」이 첫회 추천되어 등단하였으며, 같은 잡지 12월호에 「선생님 기행」이 추천 완료되었다. 1998년 한겨레신문에 연재를 시작한 대하소설 『한강』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1959년 성북동의 풍경 묘사는 소설가 자신의 고학생 시절 자전적 체험이 바탕이 되어 씌어진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소설에서 형 유일민이 막 광주에서 상경한 동생 유일표에게 성북동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싼 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멀고 불편한 것은 각오해야 돼. 우리가 갈 곳은 이 골짜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전에 여기가 어딘지부터 대충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말야, 이 지역 전부가 옛날로 치면 성 밖으로, 산짐승들이나 살고 호랑이가 오가던 산골이었지. 저기 오른쪽에 돌출대 보이지? 저게 바로 한양성의 성터야.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산이 그 유명한 삼각산 백운대와 북악산이 이어지는 산줄기고. 그래서 성북동엔 이 지점까지도 아직 수도가 없어. 수도는 삼선교와 여기의 중간 지점쯤 와 있지, 아마. 언제쯤 수도가 여기까지 뻗을지, 그걸 누가 알겠어. 한마디로, 너나 나나 수도물 못 먹고 서울 사는 서울 촌놈인 거야. 곧 알게 되겠지만, 사실 이 성북동 골짜기마다 시골서 물려온 사람들로 만원사례지. 신설동 산동네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날마다 서울역에 내리지, 어디다 움막이라도 쳐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변두리인 미아리나 중암동, 청량리 같은 데로 밀려가는 수밖에. 나라나 서울시에서 속수무책인 채로 무허가 판자촌이 생겨나고 있는 판이지. 그런 곳에 비하면 여긴 천국인 셈이야. 시내 가깝겠다, 전차 탈 수 있겠다, 버스에 비해 값싼 전차를 탈 수 있다는 건 가난뱅이들한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거든. 그런 건 차차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거고, 그럼 슬슬 움직여 볼까.”

— 조정래, 『한강』 1권 1부 중에서

2. 성북동의 전쟁피해 : 전후의 살림살이와 판자촌(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 복구의 과정 속에 성북동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흥이 많았던 예술가들은 이 시절을 그래도 아늑하게 기억했다. 운보 김기창과 우향 박래현 부부는 외진 곳이라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꾸렸다. 부인도 천생연분, 자연도 천생연분이라고 기록으로 남긴 그의 글에 사랑이 담뿍 배어 있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후일 유럽을 뒤흔들 작곡가 윤이상도 길 건너 조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¹⁵

그러나 이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

운우미술관과 김기창·박래현 집터 표석(2015).





성북동의 오래된 한옥들(2015)

었다. 이기붕 시장을 필두로 한 행정건설대 300여명이 서울로 입성한 것이 1951년 3월 18일이었다. 그리고 서울의 시설물들이 복구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다.¹⁶

당시 성북동에 남아 있던 사람들 외에 피난을 갔던 사람들은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행정처가 임시로 꾸려졌으며, 관할 구청별로 구호양곡이 지급되었다. 성북동 사람들도 성북구에 속해 이 피난살이를 견뎌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컸다. 우선 주민의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다. 1949년 13,372명에 달하던 주민수가 1953년에는 5,546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피난민 등이 더해지면서 인구는 점점 급증했다.¹⁷ 무엇보다 주택수가 부족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거의 7만 9천여 동의 주택 피해가 있었다. 개 중에서 성북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1951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성북동은 건물의 피해 측면에서는 “일부 피해 및 건재동(健在洞)”인 지역으로 평가되었다.¹⁸ 보다 구체적으로 성북 제 2동은 한국전쟁 당시보다 15% 정도 손실이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¹⁹

그러나 전화가 가라앉으면서 성북동의 인구 역시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다. 토착민 외에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이들이 성북동 곳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도 문제는 주택수요였다. 1952년부터 서울시는 새서울 건설을 위해 기존 서울의 공간을 도심지대, 중간지대, 교외지대 등으로 구획하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국립공원 등의 녹지공간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22만 6000호의 난민용 구호주택을 건설, 보급하였지만 그것이 전체 인원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사람들은 시가 보유한 땅이나, 녹지공간으로 설정된 국립공원 등의 지역에 이른바 불량주택이라고 불리우는 토막, 판자집, 바라크 건물(빠락) 등을 세우게 되었다.²⁰

성북동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성북천, 정릉천변에 피난민들이 정착했고, 공원개발로 예정된 청암장(현 길상사 자리) 부근, 즉 배밭골과 이어진 골짜기에 사람들이 정착하였다. 오늘날 북정마을 역시 당시 서울로 일을 찾아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여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던 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²¹ 이 시기에 함경도 함청 사람들 역시

성북동에 정착하였다고 한다.²²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른바 ‘불량건물’들 혹은 판자촌들이 1960년대 후반까지 이곳 성북동에서 그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불량건물이라 불렀던 바라크(빠락) 등을 현실적인 주거 형태로 인정한 탓도 크다.²³

그렇다면 이들 피난민 외에 원래 주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1958년도 보건사회부의 주택조사보고서가 그 단면을 보여준다. 1958년 본 조사보고서에 응답한 성북동 총 가구호수는 403호였다. 그런데 당시 응답자 중 한 가구당 인원수가 주로 5~10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2,500명 남짓한 이들이 응답한 것이다. 1961년 성북동의 인구가 18,535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를 다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주택을 자가소유한 이들이 응답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응답을 통해 당시 성북동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을 살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성북동이 전쟁 당시 마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은 이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조사에 응답한 이들 중 주택을 자가한 이들 중에서 전쟁 중 피해를 입은 가구수는 총 82호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총 193호로 훨씬 많다. 이들 중 일부는 전재(戰災)를 복구하고 사는 이들도 있고, 그대로 피해를 유지한 채 살림을 꾸려가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1950년대 정부주도의 도시개발과 주택보급에서 유독 성북동이 제외되어 있던 것에 대한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정부는 대한주택영단, 미 원조기구 등과 더불어 부흥주택, 재건주택, 난민주택, 희망주택, ICA주택 등 갖은 유형의 주택을 민간에 보급하였다.²⁴ 이는 성북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암동의 재건주택, 운

크라의 1957년 미아리 난민정착촌사업 등이 대표적이다.²⁵ 그러나 성북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시기 서울시의 도시개발, 즉 구획정리사업에서 성북동과 관련한 개발은 주로 환경정비사업이었다. 즉 종래 파괴된 전화국, 수도시설의 재정비를 위한 증설 공사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²⁶

그래서 주민들은 주로 전전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했던 듯하다. 주택의 대체적인 규모는 11평~30평 사이가 많았고, 대체로 온돌처리가 되어 있는 집들에 살고 있었다. (227호) 그러나 저마다 주택에 사용된 재료는 달랐는데, 콘크리트 바닥인 집이 138호, 흙 바닥인 집이 113호, 마루 바닥인 집이 152호 등 각양각색이었다. 중요한 수도의 경우 전용 수도를 사용하는 이가 309호, 공용을 이용하는 이가 34호로 분류되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주택개발, 새로운 주택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선망은 작지 않았다. 당시 주민들은 대체로 전쟁 이전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희망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총 164호가 주로 서

구호물자 배급



원조 시찰단과 어린이들





(좌) 중구 동동 일대 판자촌(1957), (우) 미아동 난민정착지 전경(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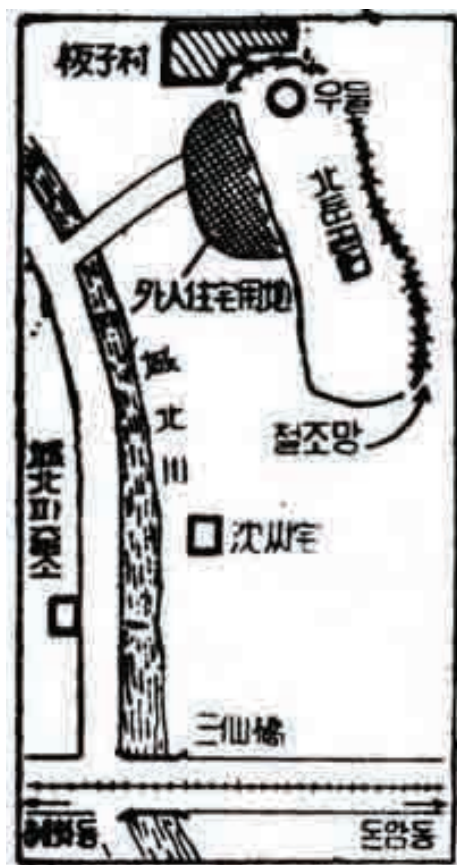
양식을 선호했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임시가옥인 ‘빠락’에 주거하는 이도 3호가 있었으며 또 셋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모두 54호였다. 생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고 응답한 이가 140호, 상업이라고 응답한 이가 163호로 반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상업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응답자 중 일부인 3호가 ‘빠락’에 거주했고 비율이 크진 않지만 농업에 종사한 자가 5호, 공업에 종사하는 자 27호가 있었다.

이 조사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동민 전체를 대표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당대 성북동에 허다했던 ‘불량주택’에 거주했던 이들이 모두 포함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피난민 이외 성북동 원주민들의 삶의 일단을 살펴 볼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봉석)

3. '풍치지구'를 벗어나 북악스카이웨이 시대(1960년대)

문인들의 회고에 등장하는 성북동의 풍경에서 집들이 점차 현대적인 꼴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1960년대 중반경은 넘어야 했다. 윤이상이 조지훈과 마주보고 즐겼던 성북천이 복개된 것 역시 1967년 이후이다.²⁸ 김광섭의 시「성북동 비둘기」는 바로 이 본격적인 회고의 이전 시대를 읊조리는 이야기이다. 김광섭은 1961년 건축가 김중업에게 부탁한 설계대로 집을 짓고 성북동에서 5년을 거처했다. 그리고 이때의 기억을 후일 시집에 실었던 것이 바로 「성북동 비둘기」였던 셈이다. 성북동에 대한 문인들의 정서는 이렇듯 김광섭에 의해 절묘하게 드러났지만, 그것은 또한 당대 문인들이 성북동을 바라보던 시선이기도 했다. 송지영 선생이 소개한 정한모의 글줄에는 당시 성북동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성북동에 거주했던 정한모는 지금은 고급 주택지대라고 간주되는 곳이 당시에는 “성북초등학교에서 개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와야만 하는 약수터나 빨래터를 찾는 사람들만이 올라오는 곳이었다.”라고 회고한다.²⁹ 즉 1960년대 초중반까지 여전히 성북동은 비록 정·재계의 별장터이고 ‘뽕의 바다’로 불리기는 했지만 아직은 오늘날의 모습보다는 과거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셈이다.³⁰ 그래서 과거 유명했던 배나무, 복숭아 등의 흔적은 점차 사라져갔지만 몇몇 성북동 산 위의 집들, 그리고 보통사람들로 구성된 지역 문화는 60년대 중반까지 엇비슷하게 이어져갔다.³¹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상 성북동의 위치 때문이었다.



1967년 당시 성북동 판자촌의 위치
 (『경향신문』 1967. 12. 20.)



1968년 공사 중인 북악스카이웨이
 (『경향신문』 1968. 6. 26.)

해방 이후 서울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61~80년 사이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구획정리만 27개 지구에, 60~70년대에 집중된 택지조성사업 등을 대규모로 진행했다. 그러나 종로, 중구, 성북, 서대문, 용산 등 일제하에서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던 지역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³² 특히 성북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김광섭 시인이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살았던 성북동 옛집.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를 맡았다. 2층의 서재에서 대표작 「성북동 비둘기」가 구상됐다.
 (『경향신문』 1996. 9. 8.)
 1990년대 후반 이 집은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

이르러 사정이 변했다. 정부는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건설부가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보급을 서둘렀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기존 무허가건물들, 즉 흔히 판자촌이라고 불리는 ‘불량건물’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4년간의 불도저식 개발을 통해 유명해진 서울시장 김현옥의 추진력 아래 서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³³

그리고 이런 와중에 있었던 대표적 조치가 바로 1967년부터 약 5년간 진행되었던 이른바 ‘판자촌’의 철거와 재배치였다. 특히 서울의 도심부의 현대적 재개발을 위해 정릉 등 기존의 도심 반경에서 5~10km내

외의 무허가 정착지들이 철거 대상이 되었다. 정릉과 등을 맞대고 있었고, 또 그 골짜기에 많은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성북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967년 6월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의 숲속 풍치지구 약 10만 평이 대규모 외국인 주택단지로 책정된 것은 그야말로 오늘날 성북동 부촌의 전조를 알린 신호였다.³⁴ 성북천은 복개되었고, ‘풍치지구’로 개발이 불허되었던 숲의 나무들이 집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를 위한 대대적인 공사의 진행이 이루어질 무렵 김광섭이 「성북동 비둘기」를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성북동의 산전을 보호하고 있었던 ‘풍치지구’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풍치지구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정책에서 연원한 것이다. 1941년 일제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통해 구 시가지 내 북악과 성북, 무학 등 20군데 약 1천 만평을 이른바 ‘풍치지구’로 선정했다. 특히 성북동의 경우, 이보다 앞서 풍치지구 이외에 ‘보안림’으로 개발이 규제되어 있었다. 보안림이란 1937년 경성부가 도시의 녹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의 보안, 위해의 방지 등등을 위해 벌채 등 난개발을 공권력을 금한 것을 말한다. 당시 성북동 지역의 약 200헥타르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책 위에 1941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고시 제 377호로 새로 풍치지구가 설정되었는데, 북악산과 인접한 성북동의 일부 지역이 다시 여기에 중복 적용되면서 난개발에서 성북동이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이러한 성북동 산림에 대한 보호는 해방 이후 서울시의 도시개발에 그대로 이전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서울시는 도시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풍치지구에 근거, 서울의 시유지로 간주된 성북동



성북동이 중요 배경으로 등장한
박완서의 소설집 『그 여자네 집』

산 지역 등 일부를 공원화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의 극심한 주택난으로 인해 이러한 시유지에 해당되는 성북동, 즉 청암장 인근 부지들에는 무허가 주택들, 즉 판자촌 등이 난립해서 건설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 말 서울시는 이러한 시유지들을 정리할 계획으로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했는데, 이로 인해 무허가 건물에 주거하던 성북동, 돈암동 주민들이 이른바 ‘집달리’들에 의해 내쫓기는 등 사회문제를 양산하기도 하였다.³⁶

물론 1960년대 중반 이전에도 성북동의 개발이 완전히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쿠데타 이후 일부 시유지들이 개인에게 불하되었고, 성북동 지역의 중요 문화재 주변의 필지 등은 소유권 변화 등을 겪으며, 공간상의 변화를 맞이했다.³⁷ 그러나 역시 1970년대 성북동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비했던 것은 풍치지구의 본격적인 해제였다.

1967년 6월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가 정부에 의해 외인 택지로 책정되면서 이른바 풍치지구의 축소와 종래 이곳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십여 년을 넘게 살아오던 주민들의 철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특히 성북동 산 14번지와 산 26번지 일대의 1백 호 가량의 무허가 건물들, 성북동 산 1번지 일대의 3백여 동의 무허가 건물들이 강제적 철거의 대상에 놓였다.³⁸ 이는 서울시의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로 인해 성북동 산 18번지와 산 25번지 일대의 필연적 철거로 인해 일부 무허가 판자집의 양성화 계획에서 예외로 상정되는 주민들이 발생했기 때

문이다.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은 일부 판자촌을 양성화하는 한편 판자촌으로 상징되는 무허가 건물들을 규정에 맞게 철거하거나 개량하고자 하였다. 1968년 12월 현재 성북동에는 여전히 2백 동의 불량건물이 존재했고, 이 과정에서 바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와 같은 시들이 급격한 변화를 노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1960년대 중반에 이어 두 번째로 대대적인 풍치지구가 해제되었고, 성북동 330번지 일대 등을 포함해서 서울 시내 34곳 풍치지구는 25개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³⁹

그리고 1977년 12월 8일 처음 구획된 이래 40여 년 만에 드디어 일제의 풍치지구의 대대적 변동이 발생했다. 총 34곳 중 25개 지구로 풍치지구는 축소되었고, 이 중 성북동 330번지 일대 등이 추가로 해제되면서 이른바 대개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봉석)

4.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형성과 변화(1970년대~2000년대)

성북동의 풍경은 성북초등학교를 전후로 해서 확연하게 구분된다. 성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보이는 동네들이 주로 대지 50평 미만의 중소형 주택들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교사 뒤쪽 양지바른 비탈 지대는 대체로 규모가 200~300평 이상의 대저택들로 채워져 있다. 흡사 로마 귀족들의 빌라를 연상케 하는 널따란 지붕을 이고 있는 이 대저택들은 대체로 성인 평균키의 두세 배는 뒹직한 높은 담장을 두르고 있어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기는 힘들다. 담장 밖으로 보이는 우람한 침엽수, 늘 닫혀 있는 커다란 창문들, 이따금씩 드나드는 값비싼 외제 세단 등등으로 미루어볼 때 보통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굉장한 부잣집들이 바로 이런 집들 중 하나이겠거니 짐작할 뿐이다. 뜰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그 위를 대형견들이 한가롭게 뛰어놀며, 그 옆에서는 누군가 안락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지 모른다. 어떤 집엔 풀장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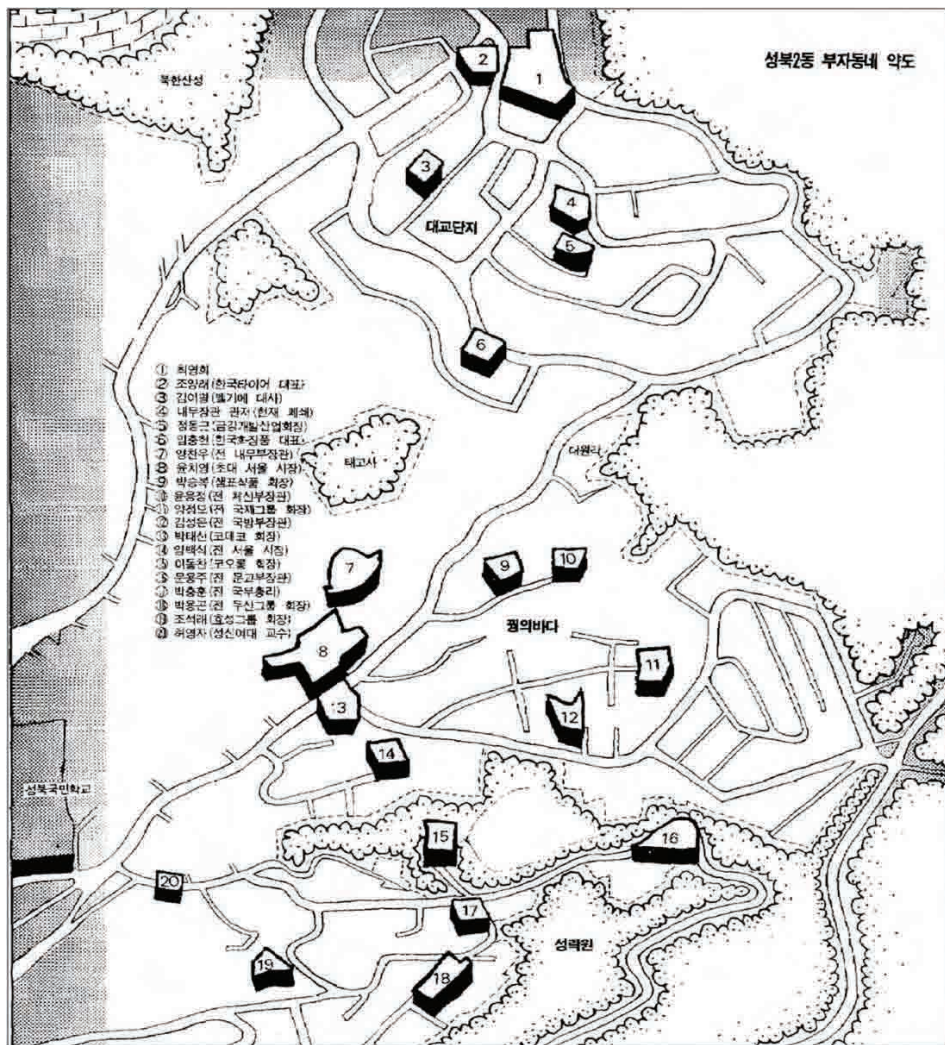
196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성북동 고급주택지는 1970년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확대되었다. 성락원 마을(5통), 뽕의바다 마을(8통), 대교단지(9통)가 그것이다. 입주민은 대체로 국내 대기업 총수, 전·현직 고급 공무원, 언론인, 대학교수 등 내로라하는 사람들, 이른바 한국 사회의 ‘주류’였다. 무엇보다 1970년 삼청터널의 개통이 부촌 형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성북동-세종로 간 거리를 10분 이내로 단축시켜 준 이 터널 덕분에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인기는 한층 높아갔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이르면 현대, 럭키금성, 롯데, 국제, 효성,



삼청터널 개통(1970)

두산, 코오롱, 한국타이어, 남양유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회장들이 모여 사는 한국 제일의 부자동네가 되었다. 그밖에 1974년 일본대사관저와 1976년 서독대사관저를 필두로 주한 외교관들의 사택들도 속속 들어서서 일대의 풍경을 한층 다채롭게 만들었다.

1970~80년대 성북동 고급주택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명패도 없는 대문, 철옹성 같은 담장, 슈퍼 하나 없는 골목, 곳곳에 초소와 감시카메라가 있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이 동네를 찾은 취재기자들은 순찰을 도는 경찰들에게 수상한 사람으로 몰리기 일쑤였다. 이 일대의 ‘호화주택’은 심심치 않게 언론의 도마에 올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지탄 받았다. 심지어 ‘도둑촌’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서민 주택가격의 20~30배가 넘



1994년 당시 성북동 부자동네 약도
 (출처 : 정지환, 「부자들의 성, 성북동 별천지엔 누가 사나」, 『월간 말』 1994년 9월호).
 한양도성이 북한산성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태고사는 현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로,
 대원각은 길상사로 바뀌어 있다.



외룡공원에서 내려다본 성북동 고급주택지(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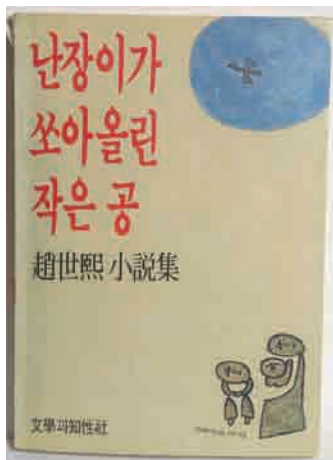
는 호화주택을 지어 살 수 있겠느냐는 데서 생겨난 말이었다. 가까운 서민들의 주거지와 동떨어진 채 어떠한 교류도 허용치 않는 한국 최고 부자들의 동네는 좋게 말하면 별천지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만의 성채였다. 갈수록 인간의 얼굴을 잃어가는 고도 자본주의의 속성이 삭막한 경관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1978년 조세희가 펴낸 연작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러한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아주 밝고 깨끗한 동네였다. 아버지가 행복동 삼층집을 팔고 북악산 산허리 숲속 단층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누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싫다고 했었다. 비서를 따라 갔다 와서는 반대로 이사갈 날만 기다렸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네였다. 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들이 차를 세워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거리는 깨끗하고, 집들은 그림 같았다. 걸어서 이 저택촌을 드나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봄이 되자 동네는 향기로 가득 찼다. 겹벚꽃·덩굴장미·라일락·백목련·산철쭉·가막살나무·박태기나무 등이 꽃을 피웠다. 벌들이 잉잉 소리를 내며 날았다. 그 동네에서는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비 온 다음의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윤호는 거기서 작은 혼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듣고는 했다.

—「궤도 회전」중에서

조세희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78)



윤호네는 ‘행복동’ 3층집을 팔고 북악산 산허리 숲속 단층집으로 이사를 갔다. 윤호네가 이사를 간 동네에서는 더 이상 3층 다락방 바깥으로 ‘난장이’의 동네가 보이지 않았다. 방죽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무허가 건물들도 벽돌 공장의 굴뚝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난장이의 가족을 만날 일도 없어졌다. 거리는 깨끗하고 집들은 그림 같은 북악산 산허리 숲속의 동네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이웃의 ‘은강그룹’ 회장집도 마찬가지로

였다. 이들이 사는 아주 밝고 깨끗한 동네는 저 멀리 서해안의 공업도시 ‘은강시’와 대조된다.

(은강) 시내에는 많은 구름이 기복을 이루며, 동서로 뻗은 중앙부의 구름에 의하여 시가지는 남북으로 나뉜다. 공장 지대는 북쪽이다. 수없이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오르고, 공장 안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간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죽은 난장이의 아들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 공기 속에는 유독 개스와 매연, 그리고 분진이 섞여 있다. 모든 공장이 제품 생산량에 비례하는 흑갈색·황갈색의 폐수·폐유를 하천으로 토해낸다. 상류에서 나온 공장 폐수는 다른 공장 용수로 다시 쓰이고, 다시 토해져 흘러 내려가다 바다로 들어간다. 은강 내항은 짙은 바다로 괴어 있다. 공장 주변의 생물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중략) 수많은 공장, 그 공장을 움직이는 경영인들, 그리고 그 경영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었다.

—「기계 도시」 중에서

흔히 성북동을 부자동네와 일반 서민들의 동네가 서로 마주보고 공존하는 기묘한 동네라고들 한다. 그러나 조세희의 소설은 성북동을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본다. 소설에서 성북동 고급주택지는 어디까지나 저 멀리 떨어진 공장지대의 대칭점으로서 여기에 존재한다. 밝고 깨끗한 이 동네에서는 ‘과거의 소리’가 그렇듯이 노동자의 소리도 차단된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성북동 고급주택지는 이들, 성북동 주민들과 마주보며 있는 마을이라기보다 저들,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과

거리를 두기 위한 안전지대이다. 물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소설은 아니다. 그러나 성북동 고급주택지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잘 지적인 훌륭한 문학적 보고서임에는 틀림없다.

1997년 12월, 길상사의 개원은 성북동 고급주택지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 군사정권 시절 요정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대원각의 소유주 김영한(1916~1999) 여사가 법정(1932~2010) 스님의 책 『무소유』를 읽고 감명을 받아 스님에게 7천여 평의 땅과 건물을 모두 시주하겠다고 10여 년 동안 간청한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1995년 송광사의 분원으로 등록한 절은 2년여 동안 예전 음식점과 유흥장으로 쓰던 건물을 법당, 선원, 요사채 등으로 개조, 단장한 끝에 길상사라는 이름을 내

걸고 신도들을 맞이했다. 존경 받는 승려이자 수필가로 이름이 높은 법정 스님이 회주로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자는 물론 많은 일반인들이 길상사를 찾았다. 바로 절 앞에 닿는 버스가 없어 마을버스에서 내린 후 약 1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곱다시 걸어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와 방문객들은 기꺼이 수고를 감내했다. (지금은 한성대입구역에서 나와 성북02번 마을버스를 타면 된다.) 유령 도시처럼 적막했던, 기껏해야 대원각을 찾아온 시커먼 차량들만 줄지어 다니던 성북동 고급주택지 골목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다. 때마침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로 성북동 부자들의 기세도 한풀 꺾여가던 시기여서 길상사는 그 존

법정, 『무소유』(1976, 범우사판)





길상사의 가을(2012)



성북문화원 창립총회(1996, 예향)

재만으로 일대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골목은 외관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저 위쪽 무소유의 산문山門을 향하여 난 순례의 길이 되면서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96년 말 성북문화원의 개원이 그것이다. 지방문화원의 개원이 뭐 그리 중대한 사건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 이는 ‘제2의 전경련’이라고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다. 고 구두회 LG그룹 창업고문이 초대 문화원장을 맡고 성북동의 대기업 회장들과 원로 문화예술인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해서 성사된 성북문화원의 개원은 성북동 상류층들이 힘을 합쳐 만든 새로운 문화 커뮤니티의 탄생이란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제3의 물결’로 불리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기업인 스스로 문화의 가치와 지식정보의 중요성을 자각했음을 알려주는 시대적 지표이기도 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환원 활동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었다. 아래쪽 세상과는 단절된 드높은 성채처럼 보였던 저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사람들도 사실은 시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장면이기도 했다.

(백외준)

5. 성북동의 길 – 2015년 성북동의 풍경과 사람들

얼마 전 작고한 건축가 정기용(1945~2011)은 오래된 길은 ‘의미 깊은 그림일기(figurative journal)’라고 했다. 세대의 끊임없는 교차 속에서 저마다의 추억이 길 위에 포개지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에 그치지 않고 길의 두꺼운 역사 속에 편입되는 의미 깊은 행위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더불어 모든 길은 다른 길과 연결된다. 홀로 있는 길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길은 반드시 다른 길과 만나면서 새로운 장소와 의미를 획득한다. 그런 점에서 길은 과거로부터 왔으



성북동 설경(2015)

면서 현실의 공간이자 미래의 입구가 된다. 성북동의 수많은 거리, 골목들 역시 그러하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만남과 의지가 그 길들 위에 아로새겨져 있다.

성북로



성북동 초입의 뻥뻥한 이정표들(2015)

성북동의 한복판을 지나는 도로이다. 1980년대 성북천을 복개해서 만든 길이다 보니 복류하는 물길의 곡선을 그대로 따라간다. 길이는 약 2킬로미터로 한성대입구역 교차로에서 시작해 일본대사관저 앞까지 이어진다. 원래 왕복 2차선이었던 도로는 1998년 한성대입구역 교차로에서 홍익중·고 입구까지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되었다. 1111번을 비롯해 네 종류의 버스가 이 도로를 지나며 성북동의 오래된 장소들이 길 양옆으로 포진해 있다.

길의 시작점,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앞의 나폴레옹과자점이 해사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1968년 2월 삼선교에 처음 문을 연 이 제과점은 우리나라 7명의 제과 명장 중 3명을 배출한 한국제빵사들의 산실이다. 고 강인정 초대



성북로 초입의 나폴레옹과자점(2015)

사장은 제과제빵 선진국인 일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창업했으므로 처음 ‘동경제과’란 상호로 업소 등록을 신청했지만 ‘왜색’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불허 통보를 받았다. 빵집 이름을 다시 정해야 했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이 즐겨 읽던 나폴레옹 위인전에서 힌트를 얻어 지금의 상호를 달았다고 한다. 2007년 성북천 복원공사로 삼선상가가 헐리면서 여기로 이전 확장했다.

동구마케팅고 입구 맞은편엔 이승만 대통령이 1957년 식목일에 심었다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부근에 조선의 천재화가 오원 장승업(1843~1897)이 말년에 살았다는 초가집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장승업이 살았다는 것은 원로화가 산정 서세옥(1929~)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1995년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집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으나 파손되어 지금은 가까운 성북예술창작터에서 보관 중이다.



1957년 식목일에 이승만이 심은 느티나무. 오원 장승업의 집이 이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홍익중 · 고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 골목에는 앞서 언급한 최순우 옛집과 조지훈 집터 표석이 있다. 2002년 빌라 건축 붐 속에서 자칫 사라질 수 있었던 최순우 옛집이 시민문화유산 1호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내셔널트러스트 활동가들의 노력과 이를 도운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었다. 2년간의 보수와 복원 공사를 거쳐 2004년 4월, 일반에 공개된 가옥은 길상사의 뒤를 이은 성북동의 또 하나 열린 공간이 되어 시민들을 맞이했다. 미술사학자 고 최순우(1916~1984) 선생의 애정 어린 손길 위에 순수 민간의 힘으로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더해진 이 근대하옥은 길상사와 함께 성북동 방문객들이 가장 자주 찾는 명소이다.

성북초등학교 주변으로도 유서 깊은 장소가 많다. 선잠단지, 마전터, 간송미술관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간송미술관 하면 봄, 가을에 보름씩 열리던 특별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1971년부터 시작된 특별전은 매년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관람객의 행렬이 미술



성북로에서 보이는 북한산 형제봉과 보현봉



시민문화유산 제1호 최순우 옛집



조지훈 시인의 집터 표석(2015).
시인은 1941년부터 작고한 해인 1968년까지 이 자리에 있던 작은 한옥에서 살았다.



2014년 3월 홍익중·고 입구 버스정류장 옆에 조지훈 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이 들어섰다. 정식 명칭은 '시인의 방-방우산장'이다.
조지훈의 수필 '방우산장기'에서 이름을 따온 이 조형물의 한쪽 벽면에는 조지훈의 시 「낙화」가 새겨져 있다.



간송미술관 '진경시대 회화대전'을 보기 위해 선잠단지 옆 도로까지 길게 늘어선 줄(2012. 5.)

관 입구부터 큰길가까지 길게 이어지는 진풍경을 자아냈다. 간송미술관 전시의 좋은 점은 우리 옛 그림을 은은한 자연광 아래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뒤따라오는 행렬에 밀려 미처 오래 감상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짧은 일별이 오랜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동대문에 있는 디자인플라자의 상설전시로 옮겨가면서 예전과 같은 줄서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간송미술관이 다시 성북동의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 곁에 다가올 날을 기다린다.

간송미술관 앞을 지나면서 도로는 2차선으로 좁혀지고 ‘쌍다리’라고 하는 곳이 나온다. 덕수교회(이종석 별장),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성북구립미술관, 수연산방(상허 이태준 가옥) 등이 마주보고 있는 이 지역은 복개 전 성북천 위로 두 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아래쪽은 돌다리, 위쪽은 나무다리였다. 지금은 쌍다리 돼지불백이란 상호를 단 식당만이 옛날 지명을 알려 준다. 큰길과 한국순교복



「성북동 쌍다리 풍경」, 성기점(1939~)의 1960년 작품.

자성직수도회 구 본원(현 피정의 집)을 잇는 복자교는 1968년에 준공되었다. 성북구청은 2014년 이 다리 아래쪽으로 약 100미터 구간에 있던 가옥과 상가를 철거, 쌍다리지구 특화거리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1111번과 2112번 버스의 회차지점 주위로는 만해 한용운 심우장, 근원 김용준의 노시산방 터, 성북 우정의 공원 등이 있다. 우정의 공원에는 향시 형형색색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는데 모두 성북동에 대사관저를 둔 국가들의 국기이다. 일 년 내내 성북로 양쪽에 걸려 있는 세계 국기들의 정체를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성북동의 각국 대사관저는 1998년 22개국에서 2015년

현재 42개국으로 늘었다.

1998년 성북구청은 성북로를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사업을 펼쳤다. 성북로 주변의 문화공간들을 연결한 탐방 코스 운영과 성북동 주민센터 맞은편 벽화거리 조성이 주된 내용이었다. 1999년 6월 인근 한성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그린 벽화는 가로 55미터, 세로 2.2미터의 크기로 성북동의 역사와 인물들을 담았다. 퇴색한 벽화는 지금 보면 유행에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으나 하나하나 뜯어보는 맛이 있는 싱겁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2015).
2015년 10월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예고했다. 아래는 쌍다리지구 공사현장.

얇은 그림이다. 2013년 성북동이 ‘성북동역사문화 지구’로 지정된 이후 구청에서는 관련 사업들을 연달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벽화 거리와 같은 과거의 성과들도 찬찬히 검토하면서 안고 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성북로 옆에 등지를 튼 ‘성북동의 아름다운 사람들’—일명 성아들—은 성북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학생들에게 이 동네의 역사문화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이다. 성북동과 한양도성 탐방코스를 주로 맡아 한다. 성북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모임이 역사탐방 부모 커뮤니티로 발전하였고 해설 수요가 증가하자 서울시 마을기업 만들기 공모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정식 출



성북 우정의 공원(2015)



성북동 벽화의 일부 (2015, 성북동 주민센터 맞은 편)



최순우 옛집에서 탁본 체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
성아들에서 진행하는 성북구 역사문화탐방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다.



선잠단지에서 누에고치를 만져보는 아이들(2015 성북구 역사문화탐방)

범을 본 경우다. 2013년 11월 성북동의 주택 한 층을 빌려 정식 사무실을 개소한 이래 해마다 전문 해설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다. 성북동의 오래된 장소들이 볼거리로만 머물지 않고 생생한 배움의 장으로 남게 된 데에는 성아들에 속한 해설사들의 남모르는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선잠로

성북초등학교 옆 선잠단지에서 시작해 성북동 성당을 지나 한국 가구박물관 입구까지 1킬로미터 가량을 잇는 도로이다. 성북동 고급주택지를 관통하는 중심 골목이기도 하다. 가파른 비탈인데다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오가는 때가 많으므로 걸어서 다니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2015년 길상사까지는 인도가 완공되어 이 구간만은 한층 걷기 편하게 되었다. 길상사 외에도 정법사, 연화원, 금강사와 같은 사찰들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성북동 성당, 작은형제회 수도원과 같은 카톨릭 종교시설들이 있다. 이만하면 ‘믿음의 거리’나 ‘명상의 골목’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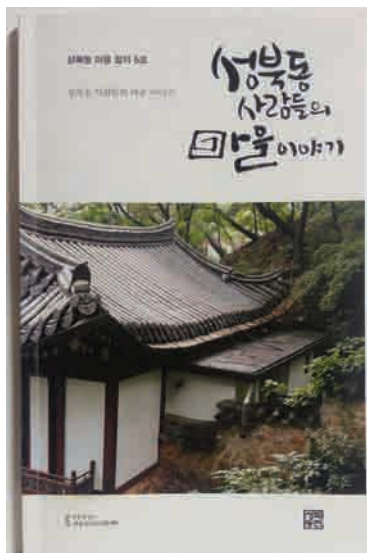
선잠로에는 근래에 들어선 소규모 문화공간들이 많다. 효재, 스페이스 오뉴월, 캔 파운데이션이 대표적이다. 효재는 길상사 앞에 있는 한복집으로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씨가 주인으로 있다. ‘보자기 아티스트’, ‘한국의 마사 스텐터트’, ‘자연주의 살림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씨는 가게 운영뿐 아니라 저술, 전시회, 아트쇼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 살림 문화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있다. 2009년 탤런트 배용준과 일본 도쿄도를 찾아 보자기 아트쇼를 펼친 후로 한복 집 효재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성북동의 숨은 명소가 되었다.

작은형제회 수도원 앞 오거리 한 구석에는 갤러리 스페이스 오뉴월(Space O'NewWall)이 있다. 미술이론을 전공한 젊은 기획자들이 의기투합해 세운 이 갤러리는 2011년 6월 개관전을 열었다. 서준호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다양한 장르·연령·매체·국가·시대가 화합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워크숍·프로젝트·세미나·스크리닝 등의 활동을 병행해 지역사회, 도시, 국제사회와 통하려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힌 바 있다.

2008년 문을 연 캔 파운데이션(CAN foundation)은 현대미술을 통하여 미술계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과 사회를 아우르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CAN’은 ‘Contemporary Art Network’란 뜻이다. 국내작가의 예술활동 지원사업, 어린이 미술체험교육, 창작활동 지원사업, 해외 문화교류사업, 문화예술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한 ‘아트버스 프로젝트’는 문화나눔희망지역 및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미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아트버스와 작가가 직접 찾아가서 예술창작 등의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캔 파운데이션의 대표적 사업 가운데 하나다.

‘성북동천(城北洞天)’은 성북동 주민, 단체, 예술인들이 결성한 마을 공동체 모임이다. 선잠로 12-6에 조그마한 모임장소를 두고 마을잡지 발간, 마을탐방, 마을학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오고 있

성북동천에서 펴내는 마을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





성북동 사람들. 성북동 내 여러 주민공동체들의 모임이다.

다. 2013년 11월 창간호를 낸 마을잡지『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는 2015년 11월에 제6호를 발행했다. 잡지는 성북동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 골목 기행, 문화재 탐방과 같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북동 주민센터와 성북동의 작은 가게들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얇은 책이지만 성북동 주민들의 나날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미래에 전달할 유일한 매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히 두툼하다.

대사관로

각국 대사관저가 이 도로 주변에 많이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삼청터널 입구부터 정릉 뒤편 북악골프연습장까지 이어지는 약 1.8킬로미터의 길이다. 선잠로와 달리 삼청각, 변종하미술관, 우리옛돌박물관, 한국가구박물관 등 큼지막한 문화공간들이 들어서 있다. 안전상 도로로 이동하기에는 좋지 않아 마을버스나 택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삼청각은 해당 홈페이지 창에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역사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 다소 긴 설명을 요한다. 원래 삼청각 부근에는 청룡암靑龍庵이란 절이 있었다. 조선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안동김문의 세도가 김좌근金左根(1797~1869)이 1853년(철종 4)에 창건한 절이다. 1934년 8월 30일 국어학자 이운재李允宰(1888~1943)가 『동아일보』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청룡암은 비구니 승방으로 당시 박묘상朴妙相 스님이 주지로 있으면서 3~4인의 상좌를 거느리고 절 살림

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지척에 있지만 인적이 드물고 소란스럽지 않아 숙세를 벗어난 별유천지의 경관이 빼어나므로 풍류를 즐기는 인사들이 왕왕 들러 놀다 가고 혹 정양차 기숙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1934~1935년 무렵 춘원 이광수(1892~1950)가 이 절에 머물면서 『그 여자의 인생』이란 소설을 집필했다고 한다. 춘원은 소설 쓰는 틈틈이 가까운 심우장에 들러 만해를 보고 가기도 여러 번이었다고. 김용준, 이태준 같은 성북동의 예술가들도 청룡암과 미륵암(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리)을 산책 삼아 찾고는 하였다. 8.15



동소문동으로 옮겨간 청룡암(2015)



삼청각(2015)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는 와중에도 곳곳이 법맥을 유지해 오던 청룡암은 1969년 산지개발계획에 밀려 토지를 매각하고 동소문동으로 도랑을 옮겼다.

1972년 청룡암이 있던 곳 조금 위쪽에 삼청각이 들어섰다. 6천여평의 넓은 대지에 4층짜리 한옥 본관과 별관 4개를 갖춘 당대에 보기 드문 규모였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11월 30일 남북조절회의 만찬이 이곳에서 열렸다. 남측 대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대표 박성철 부수상이 공동성명의 발표를 축하하는 건배를 했다. 그 후 삼청각은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과 국빈 접대를 위한 장소로 즐겨 사용되다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개방되면서 고급 요정으로 운영되었다. 상주하는 호스티스만도 300명이 넘었던 삼청각은 대원각, 오진암과 함께 장안의 3대 요정으로 꼽혔다. 그러다가 1983년 여주인이정자 씨가 외화밀반출 및 탈세 사건에 연루되는 악재를 겪은 이후

시내 고급 룬살롱 등에 밀려 손님이 크게 줄어드는 경영난에 부딪히게 되자 결국 1993년 부지와 건물 일체를 내놓고 문을 닫았다.

1996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해 ‘예향’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이어 오다 1999년 예향이 폐업하자 2000년 서울시가 삼청각 부지와 건물을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001년 전통 문화공연장으로 개장했다. 2009년부터 (주)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아 한국의 식문화 및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에 술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2015년 2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우리옛돌박물관은 2015년 11월에 문을 연 민간 박물관으로 천신 일 세종 회장(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이 40여 년에 걸쳐 수집한 석조유물, 전통자수, 근현대 한국회화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공간이다. 약 6천여 평 대지에 일본에서 환수해온 문인석 47점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옛 돌조각 1,242점, 자수 300점, 현대회화 80점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 석조유물의 수수한 아름다움을 쾌적한 숲 공기를 마시며 감상할 수 있으며 야외전시장에서 성북동이 내려다보이는 톱 트인 시야도 좋다. 성북 02번 마을버스가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우리옛돌박물관 정문까지 운행한다.

한국가구박물관(관장 정미숙)은 한국의 전통 목가구와 실내 장식품을 수집해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1996년에 개관했다. 10여 채의 전통 가옥과 2,000여 점의 전통 목가구, 유기 및 용기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통 가옥은 1970년대 창경궁 일부가 헐릴 때 가져온 기둥과 기와를 살려 재건축한 건물을 비롯해 사대부집, 경주 최부자집 공간, 순천



우리옛돌박물관(2015)



한국가구박물관 입구(2015)

송광사의 부엌 등을 본 떠 지었다. 한국 전통 의식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 한국을 방문한 외국 VIP들을 초대하기에 적합하다.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고 2015년 10월에는 프랑스 플뢰르 펠르랭 문화통신부 장관이 방문해 화제가 되었다.

북정마을 순환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북정마을은 심우장 뒤편 한양도성 성곽이 보이는 평퍼짐한 언덕에 있다. 마을 이름 ‘북정’은 조선시대 포백훈조계가 여기 있던 시절, 인부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소리 또는 메주 쏘 때 ‘북적북적’ 끓는 소리를 따서 지었다고들 한다. 오늘날처럼 큰 마을이 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과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무너진 한양도성 성곽 아래 판자촌을 이루어 살면서부터다. 1970년대 성곽 보수·복원공사로 성벽 가까이에 살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지만 다시 마을로 돌아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로 주민 숫자가 늘어났다. 마을을 한 바퀴 빙 두르는 도로는 1983년에 완공한 소방도로인데 이 도로 안팎에 500여 가구가 모여 산다.⁴⁰⁾

마을 꼭대기 성북 03번 마을버스가 서는 정류장에 있는 작은 슈퍼는 ‘북정카페’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정류장 앞 너른 길은 ‘월월월^{Wall} 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마을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축제는 주민들뿐 아니라 마을에 입주해 살고 있는 예술가들도 참여한다. 겨울에는 이곳에서 마을 아줌마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기도 한다. 슈퍼 건너편 북정노인정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마을의 중요한 일



만해 공원에서 북정마을로 올라가는 길(2015)

들을 논의하는 곳이다.

마을 곳곳 담벼락에는 아직도 재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적은 벽보가 붙어 있어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계획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의 한 자락을 읽을 수 있다. 2004년 서울시는 마을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성북2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을 한옥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한옥과 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한옥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서울시는 2012년 성북2구역을 신월곡1구역과 묶어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범 재개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마을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유보된 상태로 있다. 더구나 2017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어 성곽 주변을 공사장으로 만드는 것도 난감한 일이라 한동안 재개발 소식은 쑥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북동 2구역 재개발 조감도(2005)



북정마을 안내도(2015)



제1회 북정마을 월월축제(2009).
처음엔 달밤에 치르는 축제로 시작했다.
'월월'에는 '달月', '넘다越', '벽Wall'이란 복합적인 뜻이 담겨 있다.



월월축제 때 전시된 성북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동시 중 한 편(2015)

순성길

성북동에서 가장 오래된 길이다. 1910년경 성 밖에서 혜화문을 찍은 사진을 보면 성문 앞으로 세 갈래의 길이 나 있는 것이 보인다. 정면으로 나 있는 길은 돈암동을 거쳐 미아리고개를 넘는 길ियो, 하나는 비스듬히 S자 모양으로 내려가 지금의 성북1치안센터 앞에서 성북천변을 타고 오르는 길이다. 또 하나는 아예 내려갈 생각을 않고 성벽에 바짝 붙어 북서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박제가(1750~1815)의 시제목에 ‘혜화문을 나와 성을 돌아 서쪽으로 2리(약 800미터)를 가면 성북둔이 나온다(出惠化門 循城而西二里 有倉曰城北屯)’고 했을 때의 그 길이다. 신통하게도 이 세 길 모두 지금도 옛날 그 위치 그대로 남아 있으며 순성길 역시 정비가 잘 되어 있다.



혜화문 바깥으로 보이는 세 갈래 길과 성북천(1910년경)



해설사를 따라 북정마을을 지나
한양도성의 암문을 향해 가는 어린이들(2014)

성북동의 순성길은 혜화문에서 숙정문을 최단거리로 잇는 길로서 성곽은 물론 좌우로 아름다운 풍광을 실컷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혜화문-혜성교회-경신고등학교 뒤편까지는 유실구간이 많아 여느 골목길과 다름없어 심심할 정도이지만 성북동 쉼터부터는 가파른 오르막이 연달아 이어져 웬만한 체력으로 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성북동과 한양도성을 연달아 보여주고 싶은 마을해설사들은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최순우 옛집-선잠단지-수연산방-심우장을 거쳐 북정마을 공중화장실에 한 번 들른 다음 암문(暗門)을 통해 성곽 안으로 들어가 곧장 성북동 쉼터로 내려가는 길을 택한다. 잠시 생활의 여백이 필요할 때 순성길 걷기를 추천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파도

2015년 성북동의 화두를 꼽으라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의 극복 문제일 것이다. 지역재생사업 또는 예술가들의 활동에 힘입어 해당 지역의 상권이 발전하면서 오랜 기간 지역을 발전시켜 온 상인이나 예술가들이 뛰어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를



성북동 초입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2015)

떠나는 것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비단 성북동의 문제만은 아니다. 올해 11월 서울시는 임대료 폭등이 극심한 시내 9개 지역(대하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을 선정,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성북동은 빠져 있어 다른 인기 상권에 비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훨씬 급박하게 돌아간다. 거리에 나가면 문득 예전에 없던 산뜻한 가게가 들어서 있고, 노후된 상가와 주택을 허문 자리에 어느새 고층의 상가와 빌라가 올라가는 것이 목격된다. 병원, 약국, 세탁소가 있던 공간은 주민 생활과는 관계없는 카페나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다. 변화는 뚜렷하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성북동 역시 서울의 다른 인기 상권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소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거리의 경관 또한 지금의 수수한 표정을 잃고, 화사하지만 물개성적인 파사드로 뒤덮일 것이다.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민간 자본의 흐름과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까닭이다. 앞서 말한 서울시가 내놓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방안도 언뜻 모범 답안처럼 보이나 찬찬히 뜯어보면 뻔한 원칙론의 반복에 불과한 느낌이다. 내놓은 방안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을 주민 개개인이나 마을공동체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은 관대로 민은 민대로 문제점을 찾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실천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성북동의 경우 다시 건축가 정기용의 말을 경청함이 좋을 성싶다.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근대의 유적들이란 누가 선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나간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던 것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재창조되어 또 다른 시간대로 지속된다. 역사적 가치란 다시 생산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가치를 말한다. 단순한 회상이나 기억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창조적 힘이 가해질 때 유적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동시대의 예술적 가치로 환원될 것이다. 파괴로부터 시작하는 건설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부터 재창조되

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들은 이제 파괴의 발톱에서 신음하는
시간과 기억들을 구출하여 그들이 존재할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
다.”

— 정기용, 『사람 건축 도시』(2008) 중에서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을 지키고 재창조함으로써 사라져가
는 시간과 기억들에게 존재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막강한 현실의
힘 앞에서 너무 이상적이고 허술한 말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절
문근사(切問近思)’라 했다.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각하면 길
은 열린다. 성북동이 볼거리 많고 돈 쓰기 좋은 ‘상권’이 아니라 과거의
소리가 낮게 들려오는 수수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우리 곁에 남아 있
기를 바란다.

(백외준)

주석

- 1_ 김영미, 『해방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 동원과 저항』, 푸른역사, 2009, 212쪽.
- 2_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1993, 765쪽.
- 3_ 김영미, 위의 책, 220쪽.
- 4_ 『동아일보』 1948. 2. 18.
- 5_ 『경향신문』 1948. 2. 17.
- 6_ 서울특별시 성북구, 1993, 위의 책, 174쪽.
- 7_ 서울특별시 성북구, 1993, 위의 책, 211쪽.
- 8_ 대원각은 일제강점기 백인기 씨의 별장 건물 3채가 그 시작이었다. 해방 정국

- 에서는 요릿집으로 ‘청암장’으로 활용되었던 듯하다. 『동아일보』 1999. 11. 15. / 9. 26.
- 9_ 『동아일보』 1948. 3. 31. 이후에도 한동안 청암장은 정계 인사들의 중요한 행사장으로 활용되곤 했다. 『경향신문』 1955. 8. 8.
- 10_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996, 316쪽.
- 11_ 송지영 · 심지혜, 『성북동 길에서 예술을 만나다』, 연두와 파랑, 2015, 24쪽.
- 12_ 문인과 화가들은 주로 인맥과 현실에 대한 환멸, 그리고 낭만적 이유로 월북을 택한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로부터 한 세기는 남과 북의 예술가들에게 모두 힘든 시기였다. 특히 월북작가들의 작품은 판금으로부터 일반으로 나오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야 가능했다. 성북동에 살던 인물들 중 오늘날 이름을 남긴 김용준은 1967년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했고, 사회주의에 대한 낭만을 지니고 있던 문필가 이태준은 1956년 소련파의 숙청 당시에 제일 먼저 희생되는 비운을 맞아야 했다. 조영복, 『월북 예술가 오래잇혀진 그들』, 돌베개, 2002, 283쪽.
- 13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171쪽. 이신철, 『북한 민족주의 운동연구: 1948~1961, 월북 · 남북인들과 통일운동』, 역사비평사, 2008, 235~243쪽.
- 14_ 남북인사들의 중요 거처가 성북구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임정요인들의 경우 조소앙 선생의 집에서 중요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모두 모였다가 북행길에 올랐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경완의 증언집에서는 이들이 성북동 안가에서 머물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조금 더 자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신철, 2008, 위의 책, 262쪽. 이태호 저 · 신경완 증언, 『압록강변의 겨울 - 남북 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 다섯수레, 1991, 39쪽.
- 15_ 송지영 · 심지혜, 위의 책, 70쪽, 183쪽.
- 16_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 한울, 2003, 81쪽.
- 17_ 1961년이 되면, 18,535명으로 더 늘어나고, 1971년 되면 27,988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334, 339쪽.
- 18_ 『동아일보』 1951. 3. 16.
- 19_ 『동아일보』 1951. 3. 24.
- 20_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옥,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63~167쪽.
- 21_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의 책, 496쪽 ; 『경향신문』 1952. 5. 1.
- 22_ 성북문화원, http://tour.isbcc.or.kr/history/dong01.php?board_idx=26.
- 23_ 1958년 보건사회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막과 천막을 포함한 가주택, 빠락은 종래의 절충식 주택 등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건물 양식이었다. 보건사회부 편, 『도시(서울)주택조사보고서』, 서울 : 보건사회부,

- 1958, 5쪽.
- 24_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10년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1999.
- 25_ 대한주택연단과 원조기구 등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정은경, 「1950년대 서울의 공영주택 사업으로 본 대한원조사업의 특징」, 『서울학연구』 (5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5 참조.
- 26_ 『경향신문』 1954. 9.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1993, 위의 책, 380, 384쪽.
- 27_ 이상 보건사회부 편, 1958, 위 보고서, 55~61쪽.
- 28_ 『경향신문』 1967. 10. 23.
- 29_ 송지영 · 심지혜, 위의 책, 217쪽에서 재인용.
- 30_ 방경만 구술 참조,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
- 31_ 나폴레옹 제과점에 대한 한 주민의 기억이 대표적이다. 나폴레옹 제과점이 처음 들어섰을 때 그 제과점에서 제과에 책정된 가격은 서민에게는 부담스러운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제과점은 성북동의 부자들을 고객으로 상정하고 가게를 열었다고 한다. 신종범씨 구술 참조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
- 32_ 서울특별시 성북구, 1993, 위의 책, 324쪽.
- 33_ 서울시의 자세한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손정목, 2002, 위의 책 참조.
- 34_ 『동아일보』 1967. 6. 26.
- 35_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600년사』5, 서울특별시, 1993, 642~643쪽.
- 36_ 『동아일보』 1959. 5. 31.
- 37_ 당시 성락원 주변의 필지 변화에 대해서는 이원호 · 이세미, 「성락원(명승 제 35호) 주변지역 필지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성북동 문화재 주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 31, No.2, 2013 참조.
- 38_ 『경향신문』 1968. 5. 2.
- 39_ 『동아일보』 1977. 12. 8.
- 40_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편, 『2014년 한양도성 마을 특별전 : 도성과 마을 1』, 42~43쪽.
- 41_ 「젠티리피케이션 방지 서울시가 팔 걸었다」, 『한겨레』 2015. 11. 24.

2부

꿈의 공간들

심우장과 노시산방

1. 1937년 봄, 심우장 - 한용운, 김동삼, 조지훈

선생을 마지막으로 뵈은 것은 일송 김동삼 선생이 서대문감옥에서 옥사하셨을 때 때가 때인지라 일송 선생의 시신을 돌볼 사람이 없어 감옥 구내에 버려둔 것을 선생이 망명시절 고인에게 받은 권우眷遇와 지사志士 선배에 대한 의리에서 결연이 일어나 성북동 심우장까지 일송 선생의 관을 옮겨다 놓고 장사를 치르시던 모습이다.

위 글은 시인 조지훈이 1954년 잡지 『신천지』에 쓴 「한용운 선생」의 일부이다. 이 짧은 글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한용운, 김동삼, 조지훈. 그리고 조지훈은 이 장례를 아버지와 함께 갔으니 아버지 조현영을 더하면 넷이 된다. 실제로 조현영은 장례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한용운을 대신해서 조사弔辭를 낭독했으니 총 4명이 이 글의 당사자가 된다. 과연 당시의 상황은 어땠으며, 이들은 무슨 관계였을까?

한용운이 성북동에 자리 잡은 것은 1933년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1929년 한용운은 권동진, 홍명희 등과 함께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했다. 좌우합작운동으

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던 신간회는 1931년 5월 해체됐다. 박금동 스님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 무렵 만해와 나는 제법 의기가 상합하여 곡차를 무진무진 마셔
땀지”¹

여기서 만해의 좌절은 끝나지 않았다. 신간회 해체 후 다시 힘을 내어 열성을 쏟았던 잡지 『불교』는 1933년 초에 이미 폐간 위기에 놓여 있었고—결국 같은 해 7월 폐간된다—그가 당수로 있던 불교비밀결사 만당(萬黨)의 청년들은 1933년 무렵부터 일제와 타협하고 순응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를 ‘세간의 열패자’라고 규정하기도 했다.²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 것도 1933년의 일이다. 간호사 유숙원과의 만남이었다. 둘은 결혼했다. 지치고 떠돌던 한용운에게 부인이 마음의 안식처였다면 떠돌던 그의 육신에도 안식처가 필요했다. 김벽산 스님에게 52평의 땅을 받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래도 모자란 것은 빗을 내어 집을 지었다. 그리고 이름을 심우장이라 했다. 지친 순간 안식이 찾아왔다.

심우장에서 한용운은 딸 영숙을 낳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옛 친구들이 하나 둘 변절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도 이곳 심우장에서였다. 그러던 중에 김동삼의 옥사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한용운과 김동삼의 관계는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권을 상실한 직후 한용운은 만주로 떠났고 둘은 이곳에서 만났다. 김동삼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찍은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1879~1944)의 사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등과 함께 서간도에 경학사耕學社와 신흥강습소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한용운은 바로 이곳을 찾아간 것인데, 이때 젊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스파이로 오해 받아 총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³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들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한용운은 오래지 않아 조선으로 돌아간다. 그러며 김동삼과 서로 마주할 인연은 끝이 났다. 하지만 만나지 못한다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동지同志라 한다. 동지 사이에 중요한 것은 뜻이지 잦은 만남이 아니었다. 둘은 나이차도 크지 않았다. 김동삼은 1878년생, 한용운은 1879년생. 한 살 한 살 나이 따지는 것이야 요 근래에 생긴 문화였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는 나이차가 조금 있어도 서

로 벗어나 삼는 것이 우리 전통이었다.

한용운은 조선에서 동지인 그의 소식을 계속 접했을 것이다. 1919년 서로군정서에서 참모장을 맡은 것도, 1920년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를 지원한 소식도, 1929년 김좌진, 지청천 등과 함께 '민족유일당촉진회'를 결성한 것도, 그러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군에 의해 체포된 것도, 이후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것도 모두 한용운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체포 소식에 한용운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그의 부고 소식을 접한 후의 모습은 알 수 있다.

“김 장군의 관 위에 앉아서 울부짖으시는 것을 보고 나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분은 식음을 폐하고 마지막 화장하던 날 빈 속에 술만 마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⁴

제자 김관호의 증언이다. 최린, 최남선 등 독립운동의 동지들의 변절 소식이 들려오던 시절 그의 호처럼 한 그루 푸른 소나무 같았던 동지 김동삼의 죽음은 한용운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식음을 폐하고 술만 마셔 기운이 빠져서였을까? 아니면 김동삼의 죽음을 안 그 순간부터 온 몸에 힘이 빠졌기 때문일까? 일본경찰의 눈치 때문에 장례식에 유일하게 허락된 조사 낭독마저 한용운은 김동삼의 고향 후배라는 이유로 조현영에게 맡긴 채 (조사는 한용운이 직접 썼다) 우두커니 서서(佇立) 지켜볼 뿐이었

일송—松 김동삼金東三
(1878~1937) 선생



다.⁵ 한용운은 심우장을 자신의 마지막 거처로 선택했듯, 김동삼의 마지막 동지가 되기를 자처했다.

심우장에서 치른 김동삼의 장례를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 가운데 한명이 바로 조지훈이다. 그는 조사를 낭독한 아버지 조현영을 따라 한용운을 만나러 다녔다. 그에게 한용운은 여러모로 어려운 사람이었다. 조지훈은 1920년생, 조현영은 1901년생이었으니 1879년생인 한용운은 조지훈에게 할아버지뻘이었다. 거기에 이미 한용운은 신화적 인물이었다.

난초 중에도 풍란의 매운 향기를 능가하는 한용운 선생의 향기를 나는 일찍이 어려서 들었다.

조지훈의 말이다. 청년 조지훈은 한용운이 이미 3.1운동 민족대표로 활약한 것, 3년간의 치열한 감옥생활, 신간회 활동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용운은 이미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뿐 아니다. 1926년 발표한 시집 『님의 침묵』은 그를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문학가의 대열에 올려놓았다. 그런 한용운을 조지훈이 만난 것이다. 당시의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추정하기 힘들지만, 오래 남았던 것은 확실하다. 1954년 『신천지』에 「한용운 선생」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사조』 1권 1호에 「한용운론」을, 1966년 『사상계』 14권 1호에는 「폭풍암흑속의 혁명가-한국의 민족시인 한용운」을 발표한다. 같은 해 ‘근대명언초’란 코너의 「방우한담」이라는 칼럼

청년 조지훈의 모습



에선 한용운을 언급했고, 「지조론」이란 글에선 단재 신채호와 함께 민족의 지조를 지킨 대표인물로 한용운을 꼽았다. 「민족주의자 한용운」이란 글에서는 “선생의 님은 중생이요, 또한 한국”이라고 이야기하여 그의 문학도 이야기했다. 조지훈은 해방 이후 최초의 한용운 연구자였던 셈이다.

그의 아버지 조현영은 한용운뿐만 아니라 김동삼과의 관계도 깊었다. 한양 조씨인 그의 집안은 대대로 경북 영양 주실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김동삼의 고향은 안동이었고 이 두 집안은 인척 관계로 엮이는 경우가 많았다. 조현영은 단순한 고향 후배의 자격으로 조사를 낭독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성균관 뒤편에 살던 조현영은 1941년경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다(기록이 없어 이유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혹 한용운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은 한 번쯤 해봄직 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거하며 제헌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의 활동을 한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자 그는 북한의 이른바 ‘모시기 공작’에 의해 잡혀가고 만다. 지금 성북동에 남아 있는 조지훈 집터는 아버지 조현영이 살던 집이다. 조지훈은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⁶ 혹여 아버지가 돌아오실까 죽는 날까지 이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명지도 바꾸지 않았다. 지금 성북동 ‘조지훈 집터’는 사실 조현영의 집터인 셈이다.

1937년 봄, 심우장에서는 일송 김동삼 선생의 장례가 있었다. 차가운 관속에 누워 있었을 김동삼 선생의 시신, 그 관 위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한용운, 묵묵히 조사를 읽어갔을 조현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을 청년 조지훈이 그곳에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年	月	日	事	故	住	所	氏	名	又	ハ	名	籍
昭和十七年	五月	十八日	所有權	移轉	明倫町三之三	李龍世	李龍世					
昭和十八年	六月	廿七日	所有權	移轉	明倫町三之三	趙憲承	趙憲承					
昭和十九年	三月	廿七日	所有權	移轉	明倫町三之三	曹重煥	曹重煥					
昭和二十年	二月	廿七日	所有權	移轉	明倫町三之三	趙憲承	趙憲承					

조지훈 집터의 폐쇄토지대장이 있는 페이지.
 1941년(소화 16년) 이사를 와서 1974년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조헌영의 명의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 성북구청)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상황이었고, 식민지 안에 심우장만이 조선 땅으로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다.⁷

(박수진)



한용운이 김동삼의 장례를 치른 그 심우장은 여전히 옛 모습을 지키며
성북동 한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2. 노시산방의 두 예술가 - 근원 김용준 수화 김환기

근원^{近園} 김용준과 수화^{樹話} 김환기의 인연은 고즈넉한 성북동에 깃들여 있다. 그 중 노시산방^{老柿山房}은 근원과 수화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살았던 곳으로 두 예술가를 함께 기억하기 위한 발원지다. 지금은 무심히 시간이 흘러 표석조차 없는 곳으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늙은 감나무는 그 시절을 사색하듯 그 곳을 지키고 있다.

마당 앞에 한 칠팔십 년은 묵은 성심은 늙은 감나무 이삼 주^株가 서 있는데, 늦은 봄이 되면 뽕뽕뽕 잎이 돋고, 여름이면 퍼렇다 못해 거의 시꺼멓게 온 집안에 그늘을 지워 주고 하는 것이, 이 집에 사는 주인,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지, 지금에 와서는 마치 감나무가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인이 감나무를 위해 사는 것쯤 된지라, 이군⁸이 일러 노시사^{老柿舍}라 명명해 준 것을 별로 식여 볼 여지도 없이 그 행세를 하고 만 것이다. (중략)

아무튼 나는 내 변변치 않은 이 모옥을 노시산방이라 불러 오는 만큼 뜰 앞에 선 몇 그루의 감나무는 내 어느 친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무들이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오 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여 문전에 구루마 한 채도 들어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 뒤에는 뽕이랑 늑대랑 가끔 내려오곤 하는 것이어서 아내는 그런 무주 구천동 같은 데를 무얼 하자고 가느냐고 맹렬히 반대하는 것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암말 말구 따라만 와 보우 하고 끌다시피 데리고

온 것인데, 기실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 늙은 감나무 몇 그루를 사랑한 때문이었다.

— 김용준, 「노시산방기」중에서⁹

그의 수필 「노시산방기」로 미루어 근원이 노시산방으로 이사한 것은 1934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수화에게 집을 물려준 것이 1944년 즈음이니 근원은 그의 삼십 대를 온전히 노시산방에서 머물렀다. 이는 그가 1931년에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중앙고보와 보성고보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술사학자로서 그 입지를 구축해 가던 시절이다. 길진섭과 함께 1939년에 창간된 문학잡지 『문장』의 표지화를 그리기도 했으며 이태준과 더불어 골동 취미에 빠지기도 하였다. 주목할 것은 1936년부터 「서울 사람 시골 사람」, 「백치사(白痴舍)와 백귀제(白鬼祭)」 등의 작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수필을 발표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딸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시기이다. 근원 김용준이 노시산방에 머문 시절은 비유하자면 그의 수필과도 같이 순수하고 담백하여 그 인생 전체에 있어 자양분이 되어주는 삶의 한 장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수화 김환기가 노시산방을 물려받은 것은 1944년 김향안과 결혼식을 올린 직후이다.

1944년 5월 1일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고희동 선생 주례로 정지용, 길진섭의 사회로. 성북동 274-1. 근원 선생이 손수 지으신 노시산방을 물려받아 보금자리를 꾸미다. 섬에 내려가서 가족을 데려오다.

홀어머니와 아이들을.

— 김향안, 『월하의 마음』중에서¹⁰

노시산방은 이렇게 두터운 인연의 매듭으로서 새로운 주인장의 신흠집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근원은 노시산방을 수화에게 넘겨주면서 그 이름을 수화의 수樹자와 김향안의 향鄕자를 따서 ‘수향산방’이라 부르고 〈수향산방 전경〉이란 그림으로 남겼다. 그 그림 속에는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김환기와 김향안 부부가 오랜 감나무 아래 정겹게 마주하고 있다. 비록 수화가 그 곳에 살았던 시간은 짧았지만 근원과 수화를 묶어주는 근원지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근원은 노시산방을 떠나며 하나의 수필을 남겼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예술가로서 소통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수화는 예술에 사는 사람이다. 예술에 산다는 간판을 건 사람이 아니요, 예술을 먹고 예술을 입고 예술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노시산방이 지금쯤은 백만 원의 값이 갈는지는 모른다. 천만 원, 억만 원의 값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노시산방은 한 덩어리 환영에 불과하다. 노시산방이란 한 덩어리 환영을 인연삼아 까부라져 가는 예술심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현대가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의 예술가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다.

— 김용준, 『육장후기』중에서¹¹

근원과 수화의 삶이 깃든 노시산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

라져 간다. 한국의 미술을 개척한 두 거장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노시산방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가 당면한 문화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근원 김용준

근원 김용준(1904~1967)은 미술사학자이자 화가이며 수필가이자 교육자이다. 그는 근대에서 현대로 이르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고유한 미학을 고취하고자 노력한 순도 높은 예술가이다. 김용준은 한국 미술사상 탁월한 업적들을 이루었고 가장 앞서간 선구자로서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한다.

김용준은 1904년 2월 3일 경상북도 선산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세 살에 개울에서 본 송사리를 마당에 그렸다는 일화가 있다. 그는 1920년 17세가 되던 해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면서 통학을 위해 지금의 성북동(당시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65-2번지)으로 이사하면서 이 곳과 인연을 맺게 된다.

그는 이미 중앙고보 시절 이종우로부터 미술수업을 받았고 학생 신분으로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동십자각>(원제 <건설이냐, 파괴냐>)이 입선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당시 경복궁 동십자각을 총독부 청사 신축에 따라 현 위치로 옮기는 공사 과정을 그린 것으로 이 작품을 이종우가 인촌 김성수에게 가져가 동경 유학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는 본래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서양화 1세

대인 고희동, 김관호에 이어 김주경, 길진섭, 이마동 등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유학시절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하게 되었고 어떤 지인의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오원 장승업의 병풍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겸재와 단원 등 대가들의 그림을 찾아서 공부하다가 결국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화면에 칼로 베어낸 생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생선의 살코기 무늬, 육질이 붓을 몇 번 안 댔는데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됐는지 살아 있는 생선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대한 화가가 있었구나.’ 감동하셨습니다. 또 붓이 한번 지나가면서 나뭇가지의 볼륨, 입체감이랄까, 농담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힘차게 올라가면서 끝에 꽃과 과일이 달린 표현들을 보고 굉장한 경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또 그릇의 원근법적 표현, 붓 한 번 찍어서 빛을 받는 부분과 그늘을 받는 부분을 농담으로 표현한 이파리 부분 등, 그 그림에 작가가 살아 움직이고,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때 오원 장승업이라는 화가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우리나라 그림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 서세옥, 「나의 스승 근원 김용준을 추억하며」 중에서¹²

오원 장승업은 근원 김용준보다 앞서 성북동에 살았던 예술가로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았으나 작품을 통해 교감하는 관계로 그 인연이 인상적이다. 근원은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전향한 이례적인 작가이다.

그는 이미 서구의 사상과 문학을 익히 잘 습득하고 있었고 미술의 세계적인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동양화를 통하여 찾고자 했던 것이 민족 고유의 미학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전통적인 정신세계와 그 맥을 함께 하는 것이다. 김용준은 구체적인 이론을 더하여 작업 세계를 펼쳐 나갔다. 예를 들어 고구려 고분벽화 <사신도>와 단원 김홍도를 거론하면서 우리 미술을 되찾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붓끝에서 일어나는 호방하고 힘찬 선, 투명하고 분명한 색채, 그리고 대상의 조형적 형태 원리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쾌한 표현력 등 어느 누구도 제창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 미술을 개척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표를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미술 교육자로서 근원 김용준의 활동은 간과할 수 없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발족하면서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로 선임되어 동양화 실기와 이론을 강의하였고 커리큘럼 등 미술학부 학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립서울종합대학안’에 반대하여 동맹휴학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근원은 사태를 온건히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격론이 벌어져 결국 이듬해 사직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가르치게 된다. 짧은 기간 재직하였으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설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육 과정에서 민족미술을 되살리는 교육론과 교육방법을 제시하면서 세계로의 확장된 개안을 확립하고자 한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는다.

김용준은 뿐만 아니라 수필가로서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집필 활동을 지속하였다. 1948년 출간된 『근원수필』은 저자의 내면으로부터 담백하게 드러나는 주제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오랜 시간 머물

도록 한다. 이 수필집은 근원의 삶과 가치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의 인격과 지식의 깊이가 더해져 한국 최고의 수필가로 위치하게 한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다양한 평론을 시도했고 시대적 지성에 몰입하였다. 1949년 출간한 『조선미술대요』는 오랜 시간을 준비해온 미술사 저서로 한국의 미술사를 한글로 집필했다는 가치를 갖는다. 고대부터 당대까지 우리나라의 미술사를 다루면서 대화하듯이 쉽게 읽히도록 구어체를 사용한 점은 주시할 만하다.

현실과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근원 김용준의 일관된 민족정신과 올곧은 순수성은 결국 월북과 그 이후의 삶에 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예술가로서 그 모습은 결국 문화민족으로서 우리가 가는 길을 굳건히 이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수화 김환기

수화 김환기(1913~1974)는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서 또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서 세계 속에 한국의 미술을 이끌어 올린 독보적인 예술가로 각인된다.

수화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 물론 그의 그림이나 글은 모조리 향아리 예찬으로 시종하는 것이지만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수화의 그림이나 글도 필경 싱겁기 짝이 없으려니 했더니 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그의 화와 문은 요외로 감각이 예리하고 색채가 풍부하고 범속한데서 한층 뛰어난 짓을 곧잘 한다.

— 김용준, 「키다리 수화 김환기론」중에서¹³

김환기는 1913년 2월 27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1927년 서울로 올라와 중동중학교를 다니던 중 1933년 동경 일본대학 예술학원 미술부에서 공부하였다. 아방가르드 연구소를 조직하는 한편 신미술 운동에도 참석하였으며, 1937년 귀국한 이후 당시 고답적인 사실주의 화풍에 반하여 ‘신사실파’를 조직하고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는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분기점으로 써 또한 한국 현대미술의 1세대로서 신사실파의 활동을 그 축에 두기도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김환기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서 1952년부터 1956년 파리로 건너가기 전까지 홍익대학교 교수



김용준, 〈수향산방 전경〉, 수묵담채, 24×42cm, 1944.
© (재)환기재단 · 환기미술관

로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한국 현대회화의 선각자로서 수화 김환기는 자연을 통하여 한국적인 감성을 담고자 그 일관된 작업 세계를 펼쳐 나갔다. 그는 주로 항아리, 달, 별, 학, 구름, 밤하늘 등 문학적이고 음악적인 소재를 다루었다. 크게 뉴욕 체류를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작업세계를 나누는데 전기는 한국적인 소재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고 후기는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절대 추상으로 나아간다.

그는 동경 유학과 이후 파리와 뉴욕에서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을 서양의 문화 속에서 보냈으나 그가 늘 추구했던 한국적인 정신과 소재는 변치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동양의 중심에서 그 본질과 내적인 모습들에 마음을 쏟은 예술가였다.

나는 동양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비약하고 변모하더라도 내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다. 내 그림은 동양 사람의 그림이요, 철두철미 한국 사람의 그림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이려면 가장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이란 강렬한 민족의 노래인 것 같다. 나는 우리나라를 떠나 봄으로써 더 많은 우리 나라를 알았고, 그것을 표현했으며 또 생각했다. 파리라는 국제경기장에 나서니, 우리 하늘이 더욱 역력히 보였고, 우리 노래가 강력히 들려왔다. 우리들은 우리의 것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것이 아닌 그것은 틀림없이 모방 아니면 복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김환기, 「편편상」중에서¹⁴

김환기에게 성북동은 각별한 곳이었다. 노시산방을 물려받아 살다가 가족들의 불편함 때문에 종로구 원서동 양옥으로 잠시 이사하기도 했지만 머지않아 다시 성북동으로 돌아와 파리로 떠나기 전까지 머물게 된다. 1956년 김환기는 파리로 떠나고 가족들은 1960년대까지 그 집에 살게 된다. 현재 ‘노시산방’은 성북동 274-1번지(성북로 168) 수월암 부근이며 김환기의 두 번째 집은 성북동 32-1번지(선잠로 56)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옛 번지와 모습은 남아 있지 않다.

집을 구하는 친구마다 나는 성북동으로 오기를 권한다. 그러면 대개는 성북동은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심한 친구는 성북동은 못 살 곳으로 안다. 교통이 불편한 것을 첫째 흠으로 잡는다. 실은 성북동이 좋다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중략)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뻥뻥 도는 세상이다. 현대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차 머리에까지 도보로 20분. 그렇게 멀지 않는 것, 성북동은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숲이 있고 단풍이 들고 새가 운다. 달도 상현의 달은 월광이 다르다.

— 김환기, 「산방기」중에서¹⁵

근원과 수화

1947년 근원 김용준은 수화 김환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이 작품 〈수화소노인 가좌부상〉은 수화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되어 근원의 수화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산정 서세옥의 회고에 따르면 수

화는 항시 짐 속에 이 작품을 싸서 갖고 다녔고 끝까지 애장하였다고 한다.

서울로 올라온 뒤로 한번은 노시산방의 새 주인 수화를 만났더니 그의 말이 ‘노시산방을 사만 원에 팔라는 작자가 생기고 보니’ 나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후로 수화는 가끔 나에게 돈도 쓰라고 집어 주고 그가 사랑하는 좋은 골동품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옛날 시인 송씨의 집을 산 사람을 연상하게 되고, 옛날 세상에만 그러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각박한 세상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은 있구나 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오늘에도 가장 큰 보물을 얻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함을 느낀다.

— 김용준, 「육장후기」중에서¹⁶

근원 김용준과 수화 김환기는 1930년대 김환기가 일본에서 돌아와 고향과 서울을 오가던 시절 만났으리라 추측한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전해지며 서울대학교 설립 시절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학생들과 함께한 승가사의 바랜 사진 속에는 김용준과 김환기가 나란히 앉아 있다. 분명 두 예술가는 서로의 마음속에 공감이라는 소통의 단어를 품고 있었을 것이다. 근원과 수화는 한국의 미술 문화를 고결하고 독창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렸고 격조 높은 민족적 미학을 새로이 정립했다. 두 예술가를 만나기 위한 여정 속에는 한국의 멋이 깃든 그림과 글이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삶과 사람이 울림으로 퍼져 있

음을 느낀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의 인연으로 가득 찬 성북동 갈림길. 이곳은 근원 김용준과 수화 김환기의 마음을 빼앗은 순수하고 아련한 마을이다. 이제 노시산방은 관념의 공간으로서 근원 김용준과 수화 김환기의 상징적인 터전으로 남게 되었다.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두 예술가가 남긴 정제되고 순도 높은 미적 향취가 여전히 성북동에 남아 있다는 것을.

(김보라)

3. 식민지 문인 · 화가들의 사랑방 - 노시산방 사람들



근원 김용준의 자화상
〈검려45세상〉
(1948년 『근원수필』에 게재)

김용준은 성북동에 살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다. 그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상허 이태준이다. 이태준은 김용준의 집에서 그리 머지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지었다. 1933년의 일이다. 김용준이 성북동에 자리 잡은 해는 그의 글에 따르면 기묘년(1939년)에서 5년 전의 일이니 1934년이 된다.¹⁷ 그러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순서로만 보면 그가 이태준을 따라 성북동에 자리 잡은 셈이다. 그 둘은 1904년생으로 나이도 같았다. 한 명은 산문의 일인자로 불렸고, 한 명은 회화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으니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점도 비슷했다.

이태준은 김용준이 자신과 한 마을로 이사 온 것이 반가웠는지, 그의 집 마당에 나이 든 감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늙은 감나무가 있는 산방’이라는 뜻에 노시산방(老柿山房)이라는 당호(堂號)를 지어준다. 어떤 이는 노老라는 글자가 주는 늙은 이미지가 별로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노시산방이란 이름을 좋아했다. 아니 실은 김용준은 ‘노老’라는 글자를 좋아했다. 그의 글을 보면 그는 노경(老境)이란 경지, 노련(老練)이라는 말을 모두 사랑했다. 혹 이태준이 그런 김용준의 취향을 알고 당호를 지어준 것이라면 그 둘의 관계는 보통은 넘는 것임에 틀림없다.

좋은 당호를 받았으니 자신도 무언가 선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김용준은 같은 해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집의 표지를 장

정裝幀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표지 디자인을 해준 셈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39년에는 이태준이 그의 또 다른 친구 정지용과 함께 발행한 잡지 『문장』의 표지도 장정해 준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웃사촌으로 지내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 인연 때문이지는 알 수 없지만 김용준은 정지용의 『지용 시선芝溶詩選』의 장정도 맡게 된다. 이태준이 산문의 일인자였다면 정지용은 운문의 일인자였다. 이태준이 성북동에 이사 오기 전부터 친구사이이기도 했다. 지금도 그렇듯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알음알음 이어진다.



1934년 김용준이 장정한
이태준 단편집 『달밤』

한편 이 세 사람과 모두 인연이 닿은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다. 시인 조지훈이다. 처음 상경해서 그는 성북동과 가까운 명륜동에 살았다. 지금도 복구되지 않은 성북동과 명륜동 사이의 험려버린 한양도성은 두 곳을 같은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1943년 조지훈의 아버지 조현영은 성북동 한켠에 자리를 잡는데, 이때 조지훈도 같이 보금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인연의 공교로움은 가까운 집의 거리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문장』이 발행되던 그해, 조지훈은 정지용에 의해 「고풍의상古風衣裳」이라는 시가 『문장』에 실리며 등단한다. 『문장』의 또 다른 중심인물이 이태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전부터 이들이 알던 사이였기에 좋게 봐줬을 것이라는 불온한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등단 이후 한 번 인사라도 하러 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은 피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다. 이태준, 정지용 등의 구인회가 그러했듯, 조지훈은 박목월, 박두진과 같이 청록파라는 문학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게



조지훈이 시 「고풍의상」으로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데뷔한
『문장』(통권 3호)의 표지(1939. 4)

된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들의 시집 『청록집』이었다. 이 『청록집』의 장정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용준이다. 『청록집』이 발간되던 해가 1946년이었으니 김용준은 당시 독보적인 장정가(혹은 북디자이너)였을 것이다. 소위 ‘청록파’들은 단순히 독보적 장정가인 김용준에게 장정을 부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지훈→정지용→이태준→김용준으로 이어지는 성북동 인맥도를 거꾸로 찾아올라 가보고 싶은 욕심은 떨치기 힘들다. 그리고 보니 그들의 집도 그렇게 성북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이태준, 정지용, 조지훈을 이야기 했지만 김용준, 그리고 노시산방과 뗄 수 없는 사람은 노시산방을 물려받은 수화 김환기이다. 김환기는 1913년생이니 김용준보다 9살 어리다. 하지만 당시는 만나면 ‘민중부터 까라’고 하며 한 살 두 살 나이를 따지는 악습이 생기기 이전이었다. 예부터 선비들은 뜻이 같고 마음이 통하면 그것을 벗이라 여겼다. 그래서였을까? 김용준은 김환기를 각별히 생각했다. 그는 김환기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오늘에도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는 인물로 묘사한다.’¹⁸ 김환기 역시 김용준을 각별히 생각했다. 노시산방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환기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런 일이 생긴 것 자체를 김용준에게 미안하게 생각했



김환기, 〈삼각산〉, 1954, 캔버스에 유채, 54×35cm. © (재)환기재단 · 환기미술관



노시산방이 있던 자리에 남아 있는 감나무(성북로 168)

다. 그래서 김용준을 만나면 돈도 주고 아끼는 골동품도 주곤 했다.¹⁹

그 둘이 각별한 사이임은 김용준이 아끼던 그의 집 노시산방을 김환기에게 넘긴 것에도 드러난다. 김용준이 노시산방을 떠난 후 혹 아끼던 늙은 감나무가 지나가는 자신을 행인처럼 볼까 남의 시를 빌려가며 두려워했다. 김용준은 노시산방을 떠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집을 팔고서

鬻廬

어쩔거나 근래 들어 뼈를 에는 가난으로
내가 살던 집 이젠 벌써 이웃에게 넘어갔네.
다정하게 뜰에 선 버들에게 묻노니

自歎年來刺骨貧
吾廬今已屬西隣
慇懃說與東園柳

위 시는 이름 모르는 시인의 것이지만, 김용준은 이 시를 빌려 집을 떠나는 안타까움을 말한다. 특히 작품 속 주인공이 버드나무가 하여 자신을 행인처럼 볼까 두려워했듯, 김용준도 자신이 떠나면 ‘늙은 감나무老柟’가 자신을 잊을까 노심초사했다.²⁰ 또한 그는 성북동도 사랑했다.

시골과 같은 성북동의 정취를 사랑했고,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을 안타까워했다.²¹ 성북동과 노시산방은 그가 아끼던 마을이고, 집이었다. 그런 그가 이곳을 떠나야 할 때 맡긴 사람이 바로 김환기였으니, 그가 김환기를 믿고 생각하는 마음은 보통이 아니려니와, 김용준의 체취가 남아 있는 집을 선뜻 택한 김환기의 김용준을 생각하는 마음도 보통은 넘는다.

김용준은 주인이 바뀐 집에 새 이름도 지어준다. 김환기의 호 수화(樹話)에서 수(樹)를 따고, 그의 아내 김향안(金鄕岸)에서 향(鄕)을 따서 수향산방이라 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라는 것일 수도 있고, 이태준이 그랬듯 그냥 벗에게 멋진 당호 하나 선물했을 수도 있다. 어찌면 둘 다였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유독 아끼던 늙은 감나무에 생각이 닿으니, 혹 그가 늙은 감나무 하나만은 자기 것으로 지키고 싶어 새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성북동에는 김용준도, 김환기도 없다. 그리고 김용준을 찾아왔을 이태준도, 조지훈도 모두 떠났다. 그들이 한 번쯤 방문했을 노시산방 역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가면 늙은 감나무 한 그루는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 그 감나무는 지나가는 행인 사

이에서 김용준을 기다리고 있을까?

(박수진)

주석

- 1_ 고은, 『한용운 평전』, 향연, 2004, 328쪽.
- 2_ 배경식, 『1930년대 문화지형과 한용운의 삶』, 『불교문예연구』3, 동방문화대학 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4.
- 3_ 이은숙, 『가슴의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西間島 始終記』, 人物研究所, 1981, 57~58쪽.
- 4_ 고은, 위의 책, 365~366쪽.
- 5_ 조지훈, 『한용운 선생』, 『신천지』, 1954, 153쪽.
- 6_ 조지훈, 『돌의 미학』, 『방우산장기』,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13쪽.
- 7_ '식민지 안의 유일한 조선 땅'은 전보삼 관장의 인터뷰에서 따옴.
- 8_ 소설가 이태준(李泰俊, 1904~?)을 말한다.
- 9_ 김용준, 『노시산방기』, 『근원 김용준 전집1-새 근원수필』, 열화당, 2001, 114~116쪽.
- 10_ 김향안, 『월하의 마음』, 환기미술관, 2005, 16쪽.
- 11_ 김용준, 『육장후기』, 위의 책, 128쪽.
- 12_ 서세옥, 『나의 스승 근원 김용준을 추억하며』, 『근원 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11~12쪽.
- 13_ 김용준, 『기다리 수화 김환기론』, 『주간서울』 1949. 10. 17.
- 14_ 김환기, 『편편상』,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문예마당, 1995, 191쪽.
- 15_ 김환기, 『산방기』, 위의 책, 60~62쪽.
- 16_ 김용준, 『육장후기』, 위의 책, 127쪽.
- 17_ 김용준, 『노시산방기』, 『새 근원수필』, 열화당, 2009, 115~119쪽.
- 18_ 김용준, 『육장후기』, 『새 근원수필』, 열화당, 2009, 127쪽.
- 19_ 김용준, 『육장후기』, 위의 책, 127쪽.
- 20_ 김용준, 『육장후기』, 앞의 책, 121~122쪽.
- 21_ 김용준, 『시골사람 서울사람』, 위의 책, 2009, 112~113쪽.

수연산방과 간송미술관

1. 수연산방 – 상허 이태준과 구인회

1933년은 이태준에게 특별한 해였다. 그는 그해 성북동 골짜기 개천 옆에 집을 짓고 수연산방이라 이름 지었다. ‘벼루硯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耨 글을 쓰는 집’이란 의미였다. 잠시 집을 비운 일도 있긴 하지만 수연산방은 월북할 때까지 그의 보금자리였다. 1933년, 이태준에게 보금자리의 마련만큼 특별했던 일은 구인회의 결성이었다.

1930년대 초반은 문학계에 카프(KAPF,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가 맹위를 떨치던 시점이다. 카프는 문학을 통해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을 계몽·선전하려 했다. 구인회는 이런 경향에 반발하여 만들어진 단체였다. 처음 구인회의 결성을 주도한 것은 이종명과 김유영이다. 이들은 카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을 희망했고, 이를 위해 당시 소위 순수 문학으로 이름을 날리던 문인들에게 접근했다.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 단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바로 이태준이다. 다만 이태준은 카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보다는 문학 자체에 충실한 모임이 되길 원했고, 모임에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며 자연스럽게 모임의 좌장으로 자리 잡는다.¹ 구인회라는 이름 역시

이태준의 제안이었다.²

구인회가 본격적으로 창립을 선언한 것은 1933년 8월의 일이다.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당시 조선인들이 운영하던 각 신문은 8월에 구인회의 창립을 전하고 있다. 이태준의 구인회 활동은 공교롭게도 성북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구인회의 주요 활동 무대는 사대문 안이었다. 본격적인 창립 준비를 위한 발회식은 광고 주변의 작은 양식집에서 이루어졌고, 모임도 종로의 카페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인회의 공식적인 첫 활동은 월평회였는데, 월평회가 이루어진 것도 사대문 안이었다.³ 1934년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격! 흥금을 열어 선배에게 일탄을 날림」을 연재한 것은 구인회의 첫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신문연재에 지역을 따질 수는 없지만 조선중앙일보 사무실이 종로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종로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도 있다. 「격! 흥금을 열어 선배에게 일탄을 날림」으로 첫 집단행동을 한 구인회는 바로 두 번째 행동에 돌입한다. 바로 강연회이다. 첫 번째 강연회는 1934년 6월 30일 열린 “시와 소설의 밤”이었다. 당시 광고는 “시와 소설의 밤”의 주제가 구인회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발표자는 이태준, 박태원, 정지용, 김기림이었고, 장소는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이다. 역시 종로였다.

이렇게만 보면 이태준은 성북동에 살았을 뿐 활동은 주로 종로에서 한 셈이다. 하지만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태준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1933년 성북동에 정착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성북동에서 『아담의 후예』, 『달밤』, 『어머니』, 『색시』, 『손거부』, 『장마』,

〈표-1〉 이태준 소설연보

연도	작품명	편수
1925	오몽녀	1
1929	모던결의 만찬 / 행복 / 그림자 / 온실화초 / 누이 / 엇던날의 뻘-토벤	6
1930	백과전서의 신의의 / 기생 산월이 / 은회부처 / 어떤날 새벽	4
1931	구원의 여상 / 결혼의 악마성 / 고향 / 불도나지 안엇소, 도적도나지 안엇소, 아무일도 업소	4
1932	봄 / 불우선생 / 천사의 분노 / 실락원 이야기 / 서글픈 이야기 / 코스모스 이야기	6
1933	슬픈 승리자 / 꽃나무는 심어놓고 / 법은 그러치만 / 미어기 / 제2의 운명 / 아담의 후예 / 어떤 젊은 어미 / 코가 복숭아처럼 붉은 여자 / 마부와 교수 / 달밤	10
1934	어머니 / 박물관장사 늙은이 / 빙점하의 우울 / 촌뜨기 / 불멸의 함성 / 점경 / 어둠	7
1935	애욕의 금렵구 / 성모 / 색시 / 손거부 / 순정	5
1936	삼월 / 가마귀 / 산 사람들 / 황진이 / 바다 / 장마 / 철로	7
1937	복덕방 / 코스모스 피는 정원 / 사막의 화원 / 화관	4
1938	패강랭	1
1939	영월영감 / 딸 삼형제 / 아련 / 농군	4
1940	청춘무성 / 밤길	2
1941	토끼 이야기 / 사상의 월야	2
1942	별은 창마다 / 행복예의 흰 손들 / 사냥 / 무연 / 석양 / 왕자호동	6
1943	석교 / 뒷방마님	2
1945	즐거운 기억	1
1946	너 / 해방 전후 / 불사조	3
1948	첫 전투	1
1949	아버지의 모시옷 / 호랑이 할머니 / 삼팔선 어느 지구에서	3
1952	백배 천배로 / 누가 굴복하는가 보자 / 미국 대사관 / 고귀한 사람들 / 네거리예 선 전신주 / 고향길 / 먼지 / 두 죽음	8

※ 위의 표는 강진오, 「이태준 작품연보」『상어학보』1, 1993, 423~433쪽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작성하였음.

詩와小說의 밤 鍾路中央基督敎會에서	
今 三十日 八時十五分 正刻以後七入場謝絶	後援 主 九人會 會費 一般 十錢 學生 五錢 朝鮮中央日報社學藝部

1934년 6월 30일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시와 소설의 밤 광고

『토끼 이야기』, 『가마귀』, 『황진이』, 『밤길』 등 그의 많은 대표작을 집필했다. 뿐만 아니라 『달밤』, 『손거부』, 『장마』, 『토끼이야기』 등 많은 작품에서 성북동을 소재로 삼았다. 『무서록』에도 성북동을 소재로 하는 수필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성북동 수연산방은 이태준에게 가장 적합한 글쓰기 장소였을지 모른다.

구인회 회원들도 성북동을 찾았다. 수연산방을 나와 성북천을 건너 조금만 오르면 이종석의 별장이 있다. 걸어서 5분도 되지 않을 거리이다. 이 별장에서 이태준은 구인회 회원인 정지용, 이상 등과 함께 여유를 즐기기도 했다.⁴ 단순히 그 한 번뿐만 아니라 구인회 회원들은 자주 성북동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수연산방은 일종의 별장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좋은 곳을 손님들이 가만히 두었을리 없다.

구인회는 이후 여러 번 회원들의 교체를 겪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김상용, 이상, 김유정, 김환태 등 8명이다.⁵ 구인회는 1936년 동인지인 『시와 소설』의 발행을 마지막으로 활

동을 접는다. 구인회도 1936년 10월에는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지용, 이상, 박태원 등과의 인연은 계속 됐다. 이상은 1937년 젊은 나이로 요절하여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정지용, 박태원과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했다. 특히 돈암동에 살던 박태원은 해방 이후 수연산방과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



성북동 그의 집 '수연산방'에서 찍은 이태준의 가족사진.
어쩌면 이때가 그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은 아니었을까?

도 한다. 뿐만 아니다. 이태준과 박태원은 월북했다. 정지용은 자진 월북인지 납북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북으로 가는 도중 폭격으로 죽었거나, 북에서 폭격으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급의식에 입각한 문학을 지향한 카프와는 다른 길을 걷기 위해 만든 구인회의 핵심 회원이었던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당시에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다. 하지만 적어도 이태준의 소설을 읽으면 그의 월북은 그렇게까지 의외의 일은 아니다. 그의 소설의 주인공들은 항상 힘 없고, 가난한 사회 최하층민이었다. 그는



현재 수연산방의 모습

결코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던 사회를 회피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는(혹은 구인회 회원들은) 문학이 도구화되는 것에 반대했을 뿐이었다.

이태준의 월북으로 수연산방은 ‘이태준 가옥’이라는 이름조차 없었다. 이름을 찾은 것은 월북 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된 1988년의 일이다. 이태준은 이곳 수연산방에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집의 당호에 어울리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함께 했다. 가

꿈 찾아오는 벗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지금은 찻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집이지만 주인 잃은 수연산방은 어쩌면 그곳에 앉아 글 쓰던 주인을 지금도 기다릴지 모른다.

(박수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 : Korea Artista Proleta Federacio)⁶



박영희와 함께 카프의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한 팔봉 김기진. 그는 후에 변절하여 친일 문학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1925년 8월, 계급의식에 입각한 조직적인 프로레타리아 문학과 계급혁명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1922년 만들어진 사회주의 문학단체 염군사(焰群社) 역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피스쿨라(PASKYULA)가 합쳐져 구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성 당시 구성원은 박영희, 김기진, 이호, 김영팔, 이익상, 박용대, 이적효, 이상화, 송영, 김복진, 최승

일, 심대섭, 조명희, 이기영, 박팔양, 김양, 김온 등이다.

3.1운동의 좌절 이후, 민중의 생활에 의해 문학이 결정된다는 소위 ‘신경향론’이 대두되었는데, 카프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치투쟁을 의식한 문학을 추구하였다. 즉 카프는 문학을 통해 계급의식을 계몽·선전하려 하였다.

1925년 조직되었지만 1927년 9월 연맹원 총회의 개최를 기점

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예술운동』(1927.11.15.)을 기관지로 발간하였다. 1931년 신간회 해체를 기점으로 대중화를 표방하며 크게 방향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임화·김남천 등에 의해 당(공산당)의 지령에 따른 문학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다시 재조직 되었다.

카프는 이렇게 20년대 중후반에서 30년대 초반까지 한국 문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만, 1931년 2월~8월 70여 명이 동경에서 가져온 「무산자」 등을 배포했다는 직접적 원인과, 불세비키화(공산당화) 등의 간접적 원인으로 체포되면서 그 기세가 크게 꺾였다. 1934년에도 2월부터 8월까지 80여 명이 검거되면서 카프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1931년 김남천, 임화, 김기진이 상호 협의 하에 경기도 경찰서에 해산계를 제출하며 소멸되었다.

2. 간송미술관 - 위창과 간송,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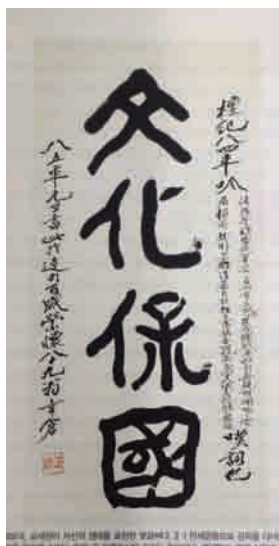
지난 2014년 4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간송문화 間松文化-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로 명명된 이 전시는 그동안 성북동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에서 봄·가을에 한해에만 열리다가 처음으로 외부로 나들이를 한 것이었다.

이 전시의 제목인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즉 ‘문화보국文化保國’은 간송미술관 소장의 오세창의 글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창 葦滄 오세창 吳世昌(1864~1953)은 독립운동가, 언론가, 서예가, 수집가, 감식가, 편찬자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활동하였는데, 흔히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서 독립선언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하여 3년간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였던 오세창은 이후 주로 일선에서의 독립운동보다 서화, 골동품 수집 등 예술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⁷ 아마도 오세창은 문화를 지키는 일이 곧 민족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⁸ 이 ‘문화보국’의 글자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며, 이 정신은 전형필에게 이어진다.

오세창의 집안은 그를 포함한 8대가 역관을 지낸 중인 집안으로 한어역관 漢語譯官의 경우 중국과의 사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다.⁹ 오세창의 집안 역시 7대 동안 역관을 역임하였던 선대와 부친의 북경행을 통해



위창 오세창
(사진제공 : 국가보훈처)



오세창, 〈문화보국文化保國〉
(간송미술관 소장)

전해오는 서적·서화작품 등이 방대하였다. 또한 오세창이 8세가 되던 1871년(고종 8), 오경석은 가숙家塾을 설치하여 한의학자이자 서예가인 유대치를 스승으로 모시게 하였다.¹⁰ 이러한 집안 배경은 오세창의 사상·예술세계를 형성하여 이후 한국회화사와 서예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엮은 『근역서화징權域書畫徵』(1928)이라는 방대한 자료편찬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감식안으로 고미술품 감정·수집과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교우활동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한편, 간송澗松 전형필全鑒弼(1906~1962)은 25세가 되던 해, 종로 일대에서 상권을 쥐고 수만석 지주로 군림하던 부친 전영기와 양부養父인 숙부 전명기의 재산까지 상속하여 조선 제일의 갑부인 십만석꾼이 되었다.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된 전형필은 본격적인 고미술품 수집에 나서게 된다. 휘문고등보통학교 재학시 미술교사였던 춘곡春谷 고희동高羲東의 소개로 오세창을 만나 우리 문화유산의 수집·보호에 눈을 뜨게 되었다. 전형필은 오세창의 탁월한 감식안을 통해 고미술 수집에 큰 도움을 받은 한편, 화가·서예가·고미술수집가·미술사학자 등 여러 분야의 인물들과 교류하며 그의 예술감각과 감식안을 키워나갔다. 전형필이 보화각을 설립했을 무렵 성북동은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으로써 기능하고 있었다.

심우장에서 성북동 큰길을 따라 내려오다 성북초등학교 옆 골목길로 들어가면 수풀 사이로 양옥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간송미술관으로 우리나라 고미술 수장가였던 전형필에 의해 지어졌다.

전형필이 스승 고희동의 소개로 오세창을 만날 무렵,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의 편찬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20대의 젊은 나이였던 전형필이 만난 오세창은 환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열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¹¹

오세창은 전형필의 고미술 수집·감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전형필이 문화재를 소장하고 연구할 시설을 갖추기 위해 1934년 프랑스 출신 석유상이었던 뿔레장의 별장을 사들였을 때 선잠단(先蠶壇)의 부근이라는 뜻으로 북단장(北壇莊)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였다.¹²

북단장은 1938년 빛나는 보배를 모아두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보화각(寶華閣)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미술관으로서 고미술 소장·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미술사 연구의 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보화각은 전형필이 사망하고 9년 후, 1971년 간송미술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봄·가을 전시와 연구를 이어갔다.

2000년대 들어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증가하자 늘어난 관람객의 수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3년 8월에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2014년 4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에서의 ‘간송문화(澗松文化-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1부 : 간송전형필’전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5부 : 화훼영모-자연을 품다’전까지 꾸준한 전시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간송미술관의 대구분관 설립과 백남준아트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우리문화 공동연구 및 공동기획전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모를 도모하고 있다.¹³

간송미술관에는 한 장의 사진이 남아있다. 1938년 보화각의 상량식을 마친 후 찍은 사진으로, 보화각의 주춧돌에는 오세창의 글이 남아 있다.



1938년 보화각의 상량식을 마친 후 찍은 사진
(왼쪽부터 이상범, 박종화, 고희동, 김응진, 오세창, 전형필, 박종묵, 노수현, 이순형)

무인년(1938) 윤 7월 5일에 전군(전형필)의 보화각 상량식이 끝났다. 내가 북받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에 명銘을 지어 축하한다. 우뚝 솟아 화려하니, 북곽北郭을 굽어본다. 만품萬品이 뒤섞이어, 새집을 채웠구나, 서화 심히 아름답고, 옛 골동품古董은 자랑할 만하다. 이곳에 모인 것들, 천추의 정화로다. 근역의 남은 주교舟橋로, 고구攷究 검토할 수 있네. 세상 함께 보배하고, 자손 길이 보존하세. 위창 오세창.¹⁴

이들은 화가, 소설가, 서예가, 고미술품 수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물들로 오세창을 중심으로 보화각에 자주 모여 전형필의 수집품을 감상하고 감상하였다.

청전靑田 이상범(1897~1972)과 심산心汕 노수현(1899~1978)은

1917년 스승 안중식(安中植)의 화실인 경묵당(耕墨堂)에서 기거하며 계속 화업을 쌓았던 인물이다. 안중식과 오세창은 오랜 세월 교류하며 경묵당을 중심으로 어울렸는데,¹⁴ 안중식의 제자 이상범과 노수현, 고희동 역시 오세창, 전형필과 어울리며 인연을 맺었던 듯하다. 특히 춘곡 고희동은 오세창과 39세, 자신이 19세일 때 처음 만난 것으로 회고하였다. 이도영까지 세 사람은 가을이 되면 도봉산으로 가서 시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거나 술을 마시는 등 교우관계를 이어갔다고 한다.¹⁵ 고희동의 〈아회도(雅會圖)〉에서는 오세창, 최남선 등의 인물과 일기회(器會)음식 혹은 안주 한 접시씩을 각자 들고 오는 모임 장면을 남기기도 하였다. 오세창, 고희동, 이도영, 안종원, 최남선 등이 함께 시를 쓴〈한동아집(漢東雅集 시축詩軸)〉¹⁶을 비롯하여 안종원, 고희동, 이도영, 오세창, 민형식, 윤희구 등의 서화합벽도권인 〈방린소회권(芳隣小會卷)〉¹⁷ 등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 쓴 시나 그림이 많아 남아 있는 것을 보아 아마도 어울리며 시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창과의 인연을 이어가던 고희동은 전형필을 소개하여 전형필의 고미술품 소장에 오세창이 큰 역할을 하도록 한다.

월탄 박종화는 간송의 외사촌 형이며, 박종묵은 박종화의 형으로 소설가였던 박종화는 전형필을 김용진에게 소개하였다. 영운(穎雲) 김용진(金容鎭)(1882~1968)은 이도영에게 사사받고 안중식, 조석진 등의 화가, 서예가들과 교류하며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서화가 많아 평소 고서와 골동품을 모으는데 취미가 있었는데, 추사 김정희의 《난맹첩(蘭盟帖)》과 신윤복의 〈미인도〉 등을 전형필에게 양도한 인연으로 보화각 상량식에 참석한 듯하다.



고희동, 〈아회도雅會圖〉(개인소장)

이순황은 오세창의 소개로 전형필의 한남서림을 운영하였는데, 경성 미술구락부의 조선인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경매 참가에 도움을 주었다. 이순황은 고려 초기 부도가 인천항에서 일본으로 반출된다는 소식을 듣고 전형필에게 이를 구입하도록 권유하였다. 반출 직전 구입한 부도는 조선총독부에서 폐사지에서 불법으로 훔쳐온 부도를 불법으로 반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압수하였다. 전형필은 3년간의 무효 소송 끝에 승소하여 현재 간송미술관 뒤뜰에 ‘괴산 팔각당형 부도(보물 제579호)’는 자리 잡을 수 있었다.¹⁹⁾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북동이라는 공간에서 전형필과 교류했던 인물이 또 있다. 성북동 길을 따라 조금 내려오다 골목으로 들어서면 보이는 고즈넉한 한옥은 전前 국립중앙박물관장이자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의 저자인 혜곡_{하곡} 최순우_{崔淳雨}가 거주하던 공간이다. 최순우 옛집은 전형필이 수집유물을 정리할 사람에게 거처할 공간으로 임대해준 장소로 보인다.²⁰⁾ 최순우 옛집 맞은편(성북동



최순우 옛집의 뒤뜰

128번지)에는 오세창이 서화류를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가옥이 위치해 있었다. 이곳에서 골동품의 수집·감정이 이루어졌고, 간송미술관과 최순우 옛집을 오가는 사람들의 접대 혹은 객사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우는 광복 후 보화각에 소장된 문화재를 정리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서화수장가이자 서예가인 소전(素筌) 손재형(孫在馨)과 함께 전형필의 수장품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²¹

1930년대 보화각이 지어질 무렵 성북동에는 서예가, 화가, 소설가, 고미술품 수장가 및 감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모

여 교류하고 있었다. 이 한장의 사진으로 보화각에 모여 고미술품을 수집·감정·소장하던 성북동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으며, 그 구심점에는 오세창과 전형필이 있었다.

(김지은)

주석

- 1_ 이중재, 「구인회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사학위논문, 1995, 28~39쪽.
현순영, 「구인회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9, 43~44쪽.
- 2_ 현순영, 위의 책, 2009, 53~55쪽.
- 3_ 이중재, 앞의 책, 1995, 41~43쪽.
- 4_ 덕수교회60년사편찬위원회, 『덕수교회 60년사』, 덕수교회, 2008, 246쪽.
- 5_ 구인회의 회원 변동에 관해서는 현순영, 위의 책, 99~101쪽을 참고.
- 6_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 연구모임, 『카프문학연구』, 역사비평사, 1989, 15~85쪽.
- 7_ 3.1운동 참여 이후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고희동의 회고에서 미루어보아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희동,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葦滄 吳世昌 선생」, 『신천지』제9권 7호, 1954, 189쪽).
- 8_ 이충렬, 『간송 전형필』, 김영사, 2010, 124쪽.
- 9_ 이승연, 『위창 오세창』, 이회문화사, 2000, 19쪽.
- 10_ 이승연, 『위창 오세창』, 이회문화사, 2000, 26~30쪽.
- 11_ 그 모습은 한용운의 연재수필에서 어렵듯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1916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만해 한용운과 박한영 등은 동의동에 거주하던 오세창의 집을 방문하였다. 한용운은 『근역서화정』뿐만 아니라 『근역화회』와 『근역서회』 등을 보고 “위창 선생葦滄先生은 조선朝鮮의 독일무이獨一無二한 고서화가古書畫家로다.”라 평하기도 하였다. (『매일신보』 1916. 12. 15, “고서화古書畫의 삼일三日”)
- 12_ 최완수, 「간송 선생 평전」, 『간송문화』41, 1991, 85쪽.
- 13 『영남일보』 2015. 7. 1, “간송미술 대구 분관…전통문화 가치 전파”.
『연합뉴스』 2015. 11. 22, “백남준아트센터-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협약”.
- 14_ 이충렬, 위의 책, 322~333쪽.
- 15_ 최열, 『韓國近代美術의 歷史』, 열화당, 2006, 103쪽.
- 16_ 고희동,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葦滄 吳世昌 선생」, 『신천지』제9권 7호, 1954.
- 17_ 성북구립미술관, 『위대한 유산 展』, 2013, 56쪽.
- 18_ 『石井 安鍾元家 기증기념전 근대 서화의 요람, 경묵당耕墨堂』,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6, 87쪽.
- 19_ 이충렬, 위의 책, 258~267쪽.
- 20_ 한용운 대담, 「尋牛莊에 參禪하는 韓龍雲氏를 차저」, 『三千里』 8권 6호, 1936. 6.
- 21_ 이충렬, 『간송 전형필』, 김영사, 2010, 384~390쪽.

김광섭의 집

1. 성북동 168-34 그리고 160W 73rd St, New York - 빛나는 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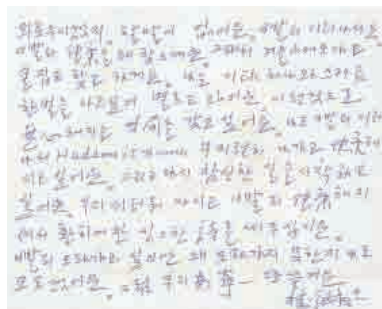
2015년 8월, 오래된 엽서 한 장이 신문에 소개되었다. 화가 김환기(1913~1974)가 시인 김광섭(1905~1977)에게 보낸 엽서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신문에는 엽서의 앞, 뒷면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앞면, 보내는 사람 김환기의 주소는 160W 73rd St, New York. 미국 뉴욕이었다. 받는 사람 김광섭의 주소는 서울 성북동 168-34. 1966년 1월, 뉴욕 맨해튼에 가 있는 김환기가 성북동의 김광섭에게 보낸 엽서였다. 뒷면의 편지글은 김광섭에게 부디 서러워 말고 빨리 건강을 찾아 환희에 찬 싱싱한 시를 써 달라는 김환기의 당부였다. 익히 알려진 다른 김환기의 엽서와 달리 아무런 그림이나 장식이 없는데, 이는 얼마 전 김광섭의 모친이 별세한 것을 의식한 까닭이다. 1965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하다 같은 해 10월 노모까지 여의는 변고를 당한 시인을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외로우시겠지. 할 말이 없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건강을 되찾으세요. 그래서 겨울산에도 가고 술집도 찾고 하세요. 나는 기타 하

나와 스케이트 한 벌을 사고 싶어 버르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무심해지는 취향을 갖고 싶어요. 나도 빨리 일어나서 허드슨 강가에나 부지런히 나가고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참신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부디 서러워 마시고 빨리 건강해지셔서 환희에 찬 싱싱한 시를 써 주십시오. 빨리 돌아가고 싶지만 왜 돌아가지 못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부디 안녕— 또 쓸게요.

수화(樹話) 배(拜)

1966년 1월 김환기가 김광섭에게 보낸 엽서
(『경향신문』 2015. 8. 21)



1963년 10월, 김환기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7회 상파울루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후 귀국하는 대신 뉴욕행을 선택했다.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예술을 평가 받기 위하여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결정이었다. 유학 시절 일본을 오갔던 것을 제외한다면 파리에 이어 두 번째 외국 생활이었다. (뉴욕에서의 생활이 그의 인생의 종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홍익대 미대 학장이라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된 지위도 과감히 예술을 위해 포기했다. 경제

적 고려는 뒷전이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순우(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과장)가 미국 록펠러재단에 창작지원금을 알아봐 주었고, 한국에 있던 아내 김향안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승인 절차는 순조로워 김환기는 이듬해 9월부터 1년 간 록펠러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뉴욕에서 방을 얻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달 뒤 아내가 합류했으나 곧 1년간의 지원금도 끊기게 되자 부부는 경제난에 시달렸다. 김환기는 미국의 화상들에게 그림을 팔기도 했지만 아직 미국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때라 큰 수입을 바랄 순 없었다. 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내 김향안이 글쓰기를 비롯해 이일 저일을 해가며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나갔다. 캔버스도 구하기 어려워서 신문지와 전화 번호부 종이에다 유화를 그린 적도 많았다.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었기에 원망도 있을 리 없었다. 오직 그는 예술의 부름에 충실했을 뿐이다. 길은 이미 자신의 그림에 맡겨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과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눈앞에서 감지할 수 있게 된 첨단의 환경에서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주제와 기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랜 고투와 모색이 필요했다. 김환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모든 구상을 일체 포기하고 전면적인 추상화로 전환했다. 명징하고 세련된 색감은 여전했지만 화가는 그 위에 단순한 점, 선, 면과 같은 추상적인 형태만 그렸다. 김환기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점화點畫’들이 뉴욕에 있는 그의 화실을 채워나갔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는 김광섭 시인이 새로운 모색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김광섭과 김환기, 둘의 인연은 멀리 193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환기가 서울의 문인들과 교분을 트게 된 것은 1938년 당시

조선일보 학예부 기자로 있던 문학평론가 이현구(1905~1982)의 부탁을 받고 함대훈(1906~1949)의 소설집 『폭풍전야』의 표지화를 그려주면서부터다. 김환기는 이현구를 통해서 서울의 여러 문인들과 사귀게 되었다. 그런데 이현구의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광섭이었다. 둘은 동갑에 같은 함경북도 출신인데다 김환기도 잠시 다닌 적이 있는 중동학교를 나란히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에서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이현구는 불문학, 김광섭은 영문학을 전공했다.) 그렇게 이현구라는 다리를 통해 김광섭과 김환기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8년의 나이차를 뛰어넘은 둘의 우정이 평생토록 이어졌음은 앞서 소개한 엽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939년 6월에 발행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이현구(좌)와 김광섭(우)



문학잡지 『문장』 제5집은 흥미로운 자료인데 여기에는 김환기의 권두화와 김광섭의 대표시 「마음」이 함께 실렸다. 그림과 시가 하나의 주제 아래 묶인 것은 아니지만 훗날 「저녁에」라는 시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그림에서 보이는 시인과 화가의 예술적 교류의 싹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김광섭과 김환기 둘 다 성북동에 거주한 때가 있긴 했지만 같은 시기 성북동에서 지낸 적은 없다. 김환기가 성북동에 주소지를 둔 것은 1944년부터 1956년까지,¹ 김광섭은 1961년부터 1966년까지이니 말이다. 하지만 30년을 훌쩍 넘게 이어온 인연이니 만큼 서로 주고받은 영향도 적지 않았을 터이다. 감상과 걱정을 분방하게 표출하지 않고 논리와 지성의 토대 위에서 절제를 미덕으로 알고 창작활동을 해나갔다는 점에서 장르는 다르지만 둘의 예술적 지향은 통하는 점이 많았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의 작품을 가지고 논한 글이 없어 어떤 근거를 대면서 논할 여지는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작품과 생활 태도를 접하면서 어렵פות한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광섭의 시와 김환기의 그림은 하나의 숙제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작품은 우리 시대 문학과 미술을 아우르는 미학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965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김광섭의 투병 생활은 그의 시작詩作 활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김광섭이 1956년 6월에 동료 문인들과 힘을 모아 창간한 월간 문학잡지 『자유문학』이 1964년 여름,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76호를 끝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매호 동분서주, 피눈물을 흘려가며 발간해 온 잡지였다. 그의 50대 정열

을 이 잡지에 다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대문학』, 『사상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후배 문인들에게 활동할 공간을 주고, 전후 황폐한 문화 풍토 속에서 우리 문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자유문학』² 김광섭에게 ‘한국 현대문학의 건설자’라는 영광스런 칭호를 안겨주기까지 했던 이 잡지의 폐간으로 한동안 그는 실의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든 재간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이 무렵 김광섭의 유일한 낙은 야구 구경이었다. 술 한 잔 걸치고 동대문야구장을 찾아 야구를 보다 보면 잠깐이나마 시름을 털 수 있었다. 1965년 4월 22일 그날도 그는 동료 문인과 함께 동대문야구장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갔더랬다. 낮부터 마신 술로 취기가 오른 상태였다. 타자가 친 공이 높이 뜬 것을 지켜보는 순간이었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메디컬센터(지금의 국립의료원)의 병상에 있는 지 근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차렸다. 죽을 고비는 넘겼으나 집에 돌아온 그는 반신불수의 상태였다.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움직이고 걷기 연습을 되풀이한 결과, 몸 상태는 점점 호전되어 갔다. 그렇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던 때 밤마다 떠오른 시상이 있었는데 마침 한국일보의 청탁을 받게 되자 원고지에 옮겨 쓴 게 바로 「봄」이라는 시다.

꽃은 지난 가을 짧은 해에

어디쯤 갔다가

노루 꼬리만큼씩

길어지는 봄해를 따라



김광섭의 옛 성북동 집이 있던 곳에서
내려다 본 성북동 풍경(2015)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은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화원을 이루는가
다락에서 묶은 빨래 뭉치를 풀어서
봄빛을 따라 나와
산골짜기에서
겨울 산 뼈를 씻으며
줄줄 흐르고 시냇가로 간다.

— 김광섭, 「봄」 중에서

아마도 그의 집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성북천과 그 너머 산등성이를 보면서 떠오른 시였을 것이다. 이후 김광섭은 병상에서 하나둘 떠오른 시상을 옮겨 적어 베개맡에 던져두었는데 3년 만에 도합 34편의 시가 쌓이게 되었다. 새로운 시를 발표할 때마다 동료 문인들의 거침 없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답지했다. 뉴욕에서 보내온 김환기의 응원엽서에 답하기라도 하듯 이 시기 김광섭은 ‘싱싱한 시’를 쓰고 있었다. 「봄」을 필두로 「생의 감각」, 「산」, 「황혼이 울고 있다」, 「성북동 비둘기」, 「저녁에」 등이 바로 이 시기에 쓴 시들로 모두 1969년에 발간한 네 번째 시집 『성북동 비둘기』에 실려 있다. 문학평론가 김우창은 그의 네 번째 시집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시집 『성북동 비둘기』에서 시인은 이상과 허무의 고독한 사유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목소리 드높은 계관시인도 아니다. 그는 자연과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진실에 있으면서 또 가장 일상적인 삶을 사는 평상인 사이에 있다. 그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과 산과 비둘기가 날로 번창하는 인조물에 밀려 햇빛은 고지대로 쫓겨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초적인 모습의 인간의 삶이 고귀한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김광섭 씨의 근년의 시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것은 인간이 하나의 공간적·시간적 공동체를 이루며 대지에 산다는 인간의 운명의 고귀함과 신비함에 대한 감각이다.

— 김우창, 「이 달의 시」 중에서 (『동아일보』1974. 12. 18)



김광섭의 네 번째 시집
『성북동 비둘기』 (범우사, 1969)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다시 대지에 선 시인에게 이 삶을 이루는 시공간은 전과는 다른 빛으로 다가왔다. 새벽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삶은 신비 그 자체였으며 아무리 흔하고 평범한 사물일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과의 깊은 연관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회복기의 시인은 온몸으로 느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시어는 쉽고 차분하면서도 삶과 세계

의 진실을 말했으므로 함께 고통 받는 1960년대 모든 한국인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고국에서 병을 이겨내며 ‘싱싱한 시’를 써 나가는 김광섭의 모습은 뉴욕의 김환기에게 큰 힘이 되었을 법하다. 김광섭에게 엽서로 보내는 위로와 응원은 어찌 보면 자신에게 향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하여 1960년대 후반, 이 시기에 내놓은 김환기의 그림과 김광섭의 시는 각자의 일생일대에 가장 완성도 있는 작품들로 평가 받기에 이른다. 고통이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가능케 하는가를 두 원로 예술가들은 작품으로 써 당당히 후배 예술가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어찌면 이 두 예술가들은 굳이 말년의 걸작들을 내놓지 않았더라도, 이미 이루어놓은 업적으로만 점수를 매겨도 한국 미술사와 문학사에서 충분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역경을 밑거름 삼아 기어이 자신의 전작들을 뛰어 넘는 새롭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성과들은 고스란히 후배 시인, 화가들의 예술적 자양분이자 넘어서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백외준)

2.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시와 그림의 이중주

저녁에

김광섭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1969. 11. 『월간중앙』 제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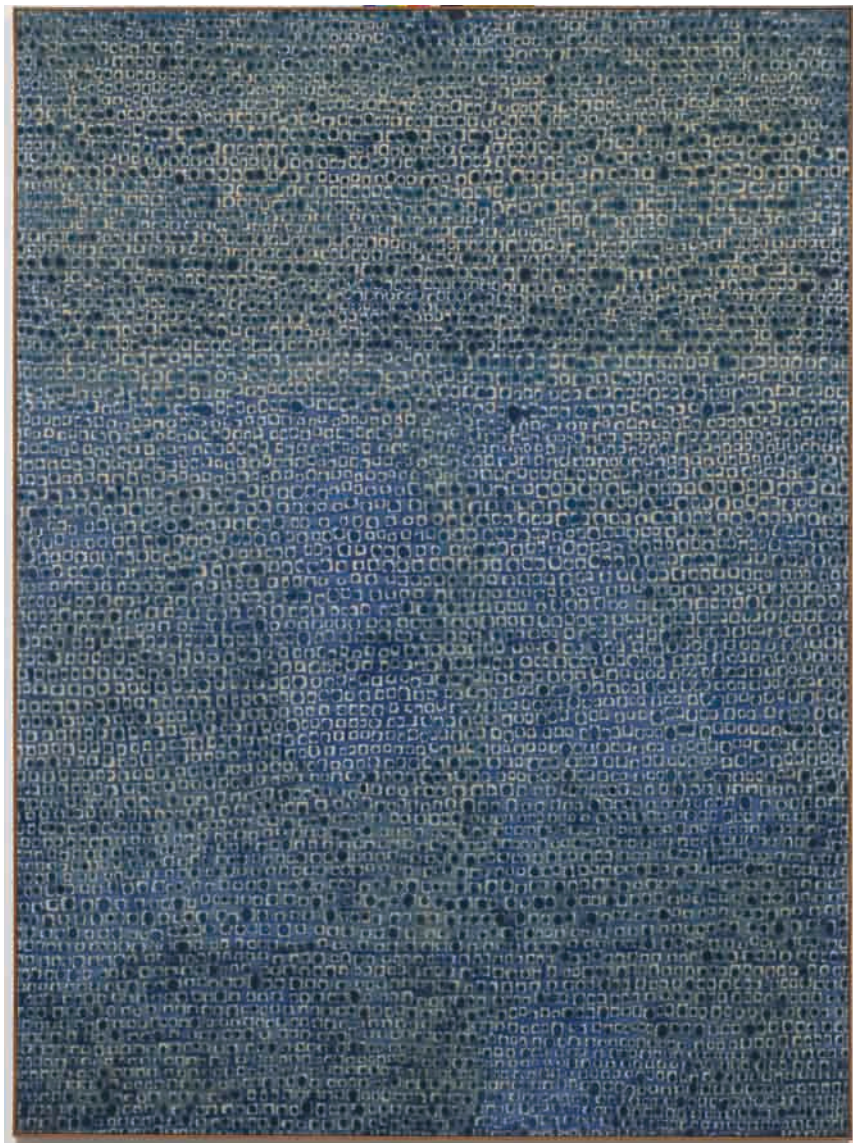
붓다는 열반에 들기 전 유언을 남겨 “이 세상에 난 것이란 죽고야 말며”, “모인 것은 마침내 헤어진다”는 생자필멸生者必滅과 회자정리會者定離의 이치를 분명히 해두었지만 이 땅의 시인들은 그 뒤에다 기어코 거자필반去者必返,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짝말을 붙여 또 한 번 인연의 불씨를 이어나가길 바랐다. 「제망매가」의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그리며 “아으 미타찰에서 만날 내 도둑아 기다리리다”고 한 것이나 「님의 침묵」에서 만해가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고 한 것은 이별의 순간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결코 아무렇지 않은 체할 수 없었던 우리네 시인들의 인생에 대한 어쩔 도리 없는 사랑 고백이었다.

「저녁에」의 시인 역시 그러한 임박한 이별과 죽음 앞에서 노래하고 있다. 시인이 선 곳은 지도상의 특정 장소라기보다 자신의 삶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느끼는 어느 때이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모든 시공간은 저녁에 다름 아니다. 모든 그리운 존재들은 별빛으로 하늘에 박혀 밝아오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그라져 가고 있었다. 필시 서울의 어느 저물어가는 하늘에 뜬 별이었겠으나 꼭 그러지 않아도 좋았다. 2천여 년 전 붓다가 마지막으로 본 하늘, 1천여 년 전 월명사가 경주에서 본 하늘에서도 무수한 별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누구는 필멸을 깨닫고 또 누구는 윤회의 끈을 놓지 못했으나 결국엔 누구든 홀로 있음을 느끼며 차가운 고독 속에 몸을 떨었다.

시의 마지막 두 행 ‘어디서 무엇이 되어 / 다시 만나랴’는 단조로

은 해석을 거부한다. 만해처럼 ‘다시 만날 것을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는 체념의 어조도 아니다.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만나지 못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만나고 싶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명을 헤치고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은 또 얼마나 기쁠 것인가 하는 기대도 섞여 있다. 헤어지면서 ‘또 만나’하고 상투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닌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면서 진짜로 다시 만나고 싶을 때 하는 말이다. 마침내 헤어진다는, 누구나 죽고 만다는 차가운 현실일지나 지금 여기 ‘나’와 ‘너’가 함께 있음에 기뻐할 뿐 미래의 일은 아무래도 어떠라는 것이다. 이 ‘다시 만나랴’의 미묘하고 풍부한 뉘앙스. 그날 저녁, 육십 평생 험악한 세월을 건너온 시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말의 명확한 의미보다는 그저 한없이 잔잔하게 퍼져가는 말의 파동이었는지 모른다.

김환기는 이 마지막 시어의 떨림에 그림으로 화답했다. 뉴욕에 있던 그가 1970년에 완성한 추상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가 그것이다. (김환기는 이 그림을 한국일보사가 주최한 제1회 한국미술 대상전에 응모 형식으로 고국에 보내왔다. 대상을 받았지만 이미 한국 화단에서 톡톡히 원로 대접을 받고 있던 그에게 상은 전혀 중요치 않았다. 굳이 주최 측의 응모 청탁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뉴욕에서 개척한 새로운 작품 세계를 국내에 소개하자는 의도에서였다.) 화가는 넓은 캔버스 가득 짙은 색으로 칠한 다음 그 위에 손톱만한 검은 사각형을 수없이 그려 넣고 각각의 도형을 흰 테두리로 감쌌다. 사각형이라고는 하나 저마다 다른 모양, 다른 두께의 테두리, 다른 표정을 띠고



김환기, 16-IV-70 #166, 1970, 코트에 유채, 232×172cm(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연작).
 © (재)환기재단 · 환기미술관

있다. 배경의 색은 전작들에서 보여 주었던 밝은 색조가 아니고, 어두워져 가는 하루의 막바지 검은 색에 가까워 가는 하늘의 색이다. 그 검푸른 공간 속에서 깜박이는 무수한 사각형들과 그 형태의 다름에서 유발된 긴장이 한없이 잔잔한 떨림으로 화폭 가득 흐른다. 물론 그 작은 도형들을 꼭 하늘의 별들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것들은 어떤 생명체의 무수한 세포들, 수많은 증명사진들의 집합으로도 보인다. 그림은 에너지로 충만하다. 그렇게 한동안 그림을 보다가 다시 김광섭의 시 속으로 돌아오면, 이제 저녁별은 하나가 아니라 다시 여러 못별과 함께 빛나며 나를 내려다본다. 별을 쳐다보는 나 역시 하나가 아니라 지상의 여러 길동무 혹은 수많은 기억들과 함께이다. 바야흐로 그림이 시를 읽고 시가 그림을 읽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내가 놓이게 된다. 이 흥미진진한 경험! 인생의 황혼기에 고독한 눈으로 죽음과 이별을 응시했던 두 예술가가 우리에게 선사한 시와 그림의 멋진 이중주다.

(백외준)

주석

- 1_ 김환기는 1944년부터 1948년까지 성북동 274-1(옛 노시산방 자리)에서 1949년부터 1956년까지는 성북동 31-2(지금의 성북동꽃담집 자리)에서 살았다.
- 2_ 『자유문학』을 통해 문단에 나온 문인들의 수는 도합 83명에 이른다. 자유문인협회의 기관지로 있을 당시에는 추천제를 두어 유승휴·남정현·박용숙·신동한·최인훈·오찬식 등 40명의 신인을, 자유문학사로 출발한 후부터는 신인 작품 당선제를 두어 이인수·유현중·오인문·김현·황명길·최원규 등 43명의 신인을 문단에 등단시켰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부록

성북동의

명소들

.

성북동

연표

서울 선잠단지

사적 제8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7

조선의 왕비들은 내외명부의 여성들을 거느리고 누에를 치는 방인 잠실로 행차하여 함께 뽕을 따고 누에를 치는 ‘친잠례(親蠶禮)’를 거행했다. 친잠례를 행하기 전에 누에의 신인 ‘선잠(先蠶)’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선잠제향(先蠶祭享)’이라고 하는데, ‘선잠단(先蠶壇)’은 바로 이 선잠제를 치르는 제단이다. 선잠제는 다른 사람을 선잠단으로 보내 대신 행하게 하기도 했고, 왕비가 친잠하는 장소에 별도로 선잠단을 쌓고 직접 거행하기도 했다.

선잠단은 조선 태종 연간에 중국의 제도에 맞춰 현재의 위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 된다. 선잠제향은 조선 초기 이후 지속적으로 봉행되었으나, 1908년(융희 2) 7월 선잠 신위를 선농 신위와 함께 사직단으로 옮겨 배향한 후 중단되었으며, 선잠단은 방치되어 원형을 잃었다. 현재는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 1939년 10월 18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보물 제17호로 지정되었고 1963년 사적 제83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금은 ‘선잠단지(先蠶壇址)’라 새긴 표석만이 큰길과 집들로 둘러싸인 조그만 터전을 지키고 있다.

1908년 이후 중단되었던 선잠제향은 성북동 주민들에 의해 1993년에 다시 봉행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매년 음력 3월 뱀날(巳日) 선잠제향을 재현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찾아가는 길

버 스 : 1111번, 2112번 버스 또는 02,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홍익대부

속중 ·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1분.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5분.

성락원

명승 제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9-8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坻)(1877~1955)의 별서정원이었다. 부암동 석파정과 함께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이(有二)한 왕실 소유의 별장이다. 1992년 12월 28일 사적 제378호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월 8일 명승 제35호로 변경되었다.

성락원은 자연적인 지형 그대로를 살려 건물을 배치하였으므로 도심 속의 청류를 즐길 수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북한산 구준봉에서 내려오는 두 갈래 개울물이 암벽 사이에서 합쳐지는 쌍류동천(雙流洞天)이 나타나고, 다리를 건너서는 깊숙한 내원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인조 동산인 용두가산(龍頭假山)을 조성해 놓았다.

성락원은 진입 공간·본원 공간·심원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성격이 뚜렷하다. 먼저 쌍류동천·용두가산으로 이루어진 진입공간은 자연스레 구성된 수풀과 Y자형의 개울 그리고 인공적인 석가산이 교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본재누각(本齋樓閣)·영벽지(影碧池)로 이루어진 본원공간은 생활·수학·수양의 기능을 수용한 공간으로 여러 채의 건축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본재누각만이 남아있다. 영벽지는 인공이 가해진 자연 연못의 진수를 보이며 여기에 비치는 그림자가 공간의 깊이를 더해 준다.

수각정(水閣亭)·연지(蓮池)·약수터로 이루어진 심원은 건물군 뒤의



후원과 같은 곳으로 암반을 막아 만든 연못이 있다. 이 연못에는 잉어들이 떼를 지어 물려다니며, 정자각 형태의 11칸짜리 건물인 송석정(松石亭)이 높다랗게 세워져 있어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이 정자 안에는 노송이 지붕을 뚫고 서 있어, 지붕 위에 나무 그늘이 지는 것을 피해왔던 오랜 관습을 타파하고 있다. 송석정은 선비들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일제 말기에 불탄 것을 1953년에 복원하였다. 2015년 현재 문화재 보수 관계로 일반인의 관람은 허용치 않고 있다.

찾아가는 길

버 스 : 1111번, 2112번 버스 또는 02,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홍익대부속중·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5분.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20분.



성북동 이종석 별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1

이종석 별장은 조선 말기의 부호 이종석(李鍾奭)이 1900년경에 지은 별장이라고 전하며, 일설에는 왕족이 지은 별장을 매입했다고도 한다. 1960년 12월 대림산업 회장을 지낸 이재준이 취득하여 '성북동 이재준 가'라는 명칭이 붙었다가 1985년 11월 덕수교회에서 인수하여 현재는

동 교회의 영성수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북동 서쪽 골짜기, 장방형의 집터에 지어진 이 집은 서북쪽은 낮은 동산이고 집터 앞은 좁은 길이다. 이 집은 사랑채 비슷한 별채인 안채와 이에 부속된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물이 있는 바깥마당의 동북쪽에 안채가 있고, 북쪽에 행랑채가 있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3칸인 ‘ㄷ자’ 모양의 평면으로 남향집이다. 건평은 29.8평에 이른다.

대청 옆 누마루에 ‘일관정-觀亭’이라고 쓴 편액을 걸고, 추녀에는 풍경을 달았으며 회색벽돌로 영롱담을 쌓아 가옥과 마당을 둘러막았다. 특히 안채로 드나드는 일각대문과 그 바깥마당의 우물가는 집터 주위의 수목과 마당의 소나무와 어울려 예스러운 맛을 더해준다. 이 집은 살림집이라기보다 별장 건축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집이라 할 수 있다.

『덕수교회 60년사』에는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이태준, 이상, 정지용 등 문인들이 회합을 가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찾아가는 길

버 스 :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성북구립미술관·쌍다리 앞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5분.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25분.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9길 24

독립지사이자 시인이며 승려였던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1879~1944) 선생이 1933년부터 1944년 입적할 때까지 11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거처했던 한옥이다.

만해 한용운은 1910년에는 불교의 변혁을 주장하는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으며, 1919년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 발기인 33인에 참가하고 3·1독립선언문의 「공약삼장」을 작성하였다. 1926년에는 근대 한국시의 기념비적 작품인 『님의 침묵』을 펴냈으며, 1927년에는 좌우합작으로 중요한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택호인 심우장은 불교의 선종화 심우도尋牛圖(또는 시우도+牛圖)에서 따온 것이다. ‘심우’란,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동자가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서 묘사한 10단계 중 첫 번째 단계를 말한다. 사랑방 위쪽에 걸린 편액은 서예가 일창 유치웅이 1980년대에 쓴 것이다.

심우장은 일반적인 가옥처럼 남향이 아니라 ‘북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남향으로 집을 지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북향으로 지었다고 전한다. 현재 심우장 입구에 만해 산책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심우장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매년 6월 29일 선생의 기일에 성북문화원 주관으로 추모 다례가 열린다.



1980년대 심우장 전경(사진제공 : 성북구청)

찾아가는 길

버 스 :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혹은 서울다원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5분.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북정마을 노인정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3분.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0분.



상허 이태준 가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6길 8

이 고택은 상허尙虛 이태준李泰俊(1904~?)이 29세였던 1933년에 지어 ‘수연산방壽硯山房’이란 당호를 붙이고, 1946년 월북할 때까지 거주하였던 곳이다. 이태준의 수필집 『무서록』에 수록된 『목수들』에는 이 집을 지은 과정과 터의 내력 등이 묘사되어 있다. 집을 지은 1933년은 이태준이 정지용, 김유영, 이종명 등과 함께 구인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작품 활동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그는 수연산방에서 『달밤』, 『손거부』, 『돌다리』 등의 단편과, 『황진이』, 『왕자호동』 등의 장편을 남기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다. 특히 『달밤』과 『손거부』 등은 성북동이 무대가

된다.

수연산방은 앞에 내를 두고 뒤에 동산을 낀 터에 서남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막돌로 쌓은 화장담에 일각대문이 세워져 있다. 집터 안에는 북동쪽에 몸채 하나만 배치되고, 행랑채 등의 별채는 없다.

건평은 23.2평이며 ‘공자(工字)’형의 건물로 정면4칸, 측면4칸으로 구성된 보통의 ‘ㄱ자’형 집과 비슷하나, 부엌이 뒤쪽으로 붙어 있어 앞쪽에 누마루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기단은 다듬돌로 줄을 맞춰 쌓은 네벌대이고, 초석은 긴 육면체로써 위가 약간 좁은 네모뿔대 모양인데 면을 접었다. 기둥은 약간 흘림을 가진 각주로 면을 접었으며 도리는 납도리로서 역시 면을 접었다.

정원은 감나무, 사철나무로 주류로 하여 다양한 화초가 심어져 있어 민가 정원의 맛을 듬뿍 느끼게 한다. 뒤쪽을 약간 덧달아서 개축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한옥은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되는데 이 집은 규모는 작지만 사랑채와 안채를 집약시킨 집으로 1900년대의 개량 한옥이 갖는 요소들을 잘 지니고 있다. 현재 수연산방이란 상호를 달고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찾아가는 길

버 스 :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2분.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쌍다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3분.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22분.

간송미술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초등학교 정문 옆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박물관이다. 1938년 간송(澗松) 전형필(全瑩弼)(1906~1962) 선생이 설립하였으며, 미술관의 중심건물인 보화각(寶華閣)에는 선생이 평생 동안 수집한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제일의 고서화 소장처로서 한국민족미술 연구소를 발족한 이래 1971년 10월부터 매년 5월과 10월에 소장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국보 및 보물급 등의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한국 미술품 소장 미술관으로 한국미술사 연구의 메카라 할 수 있다.

미술관은 1층과 2층에 전시실을 가지고 있으며 소장품은 전적·고려청자·조선백자·불상·그림·글씨·부도·석탑 등에 걸쳐 다양하다. 2015년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국보 제68호)·『신윤복필 풍속도 화첩』(국보 제135호) 등 국보 12점, 보물 10점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서울시 지정문화재 4점이 등록되어 있다.

2013년 8월에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사장 전성우)이 설립되어 소장품의 연구와 보존, 전시뿐 아니라 우리 고미술 연구와 민족미술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2014년부터는 대중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협소한 보화각을 벗어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내 DDP에 상설 전시관을 만들어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



다. 평소 간송미술관 경내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되고 있으므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상설 전시관을 찾는 편이 좋다. (홈페이지 : www.kansong.org)

찾아가는 길

버 스 : 1111번, 2112번 버스, 03번 마을버스 이용, 성북초교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 2분.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7분.



최순우 옛집

등록문화재 제26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5길 9

최순우 옛집은 혜곡^{하곡} 최순우^{崔淳雨}(1916~1984)선생이 1976년부터 1984년 작고하기까지 거처하던 한옥이다. 최순우 선생은 개성부립 박물관 입사 이후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생을 마치기까지 평생 박물관에 재직하면서 박물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한국미술사 분야

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서서』, 『나는 내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책을 써서 한국 미술품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도 힘을 쏟았다.

2004년에 개관한 최순우 옛집은 2006년 '혜곡 최순우 기념관'이란 명칭으로 박물관 등록을 한 이후 최순우 선생의 유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해마다 봄, 가을에 걸쳐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을에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별히 '시민문화유산 제1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한옥은 2002년부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시민모금운동을 벌여 지켜낸 것으로 유명하다. 1930년대에 지어진 이 근대한옥은 ㄱ자 형 안채와 ㄴ자 형 바깥채로 된 ㄷ자 형 집으로, 아담한 안마당과 뒷마당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는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순우 선생이 사용했던 책상과 고서들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휴관한다. (홈페이지 : nt-heritage.org/choisunu/)

찾아가는 길

버 스 : 1111번, 2112번 버스, 02, 03번 마을버스 이용, 홍익대부속중고등학교입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2분.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2분.

한국가구박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한국가구박물관은 한국 전통 목가구를 수집, 보존, 전시하는 특수 전문 박물관이다. 한국가구와 함께 한국 전통 주생활과 전통 실내장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성화되어 있다. 특히 서울 중심에서 10분 거리인 성북동에 위치하여 민속촌에 가기 힘든 외국인이 한국 주생활 전통을 피부로 느끼고 갈 수 있는 생활사 공간이다.

각 개인의 특징적인 수집으로 특성을 살린 인간적인 전시 분류방법을 도입하였으며, 한국 전통 가구를 종류별(사랑방, 안방, 부엌 등), 재료별(떡감나무, 은행나무, 대나무, 소나무, 종이 등) 지역별(각 지방 특성 순)로 분류 전시하고 있다.

모든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가이드 투어로만 진행된다. 예약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경우나 단체(15인 이상)의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문의를 해야 한다. 관람료는 2만원이며 성북구 주민인 경우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 www.kofum.com)



찾아가는 길

지하철→버스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02
번 마을버스를 이용, 길상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5분.



성북구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전국에서 자치구 최초로 건립된 구립 미술관이다. 2009년 옛 성북2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했다. 성북동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원로화가 산정 서세옥 화백이 명예관장을 맡았다. 2010년 7월, 개관기념전 <더 프레즌스 The Presence>를 시작으로 1년마다 4~5

차례씩 특별전을 열었다. 대표적인 전시로는 <두 예술가를 만나다-근원 김용준, 수화 김환기>(2011), <윤중식>(2012), <소전 손재형>(2013), <위대한 유산>(2013), <한양도성 프로젝트 원>(2015) 등이 열려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권옥연, 서세옥, 최만린, 전퇴진, 김창열, 박서보, 오승우 등 원로작가들의 작품부터 중견,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두루 망라되어 전시되는 미술관은 성북구민은 물론 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하고 열린 공간을 표방한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홈페이지 : sma.sbculture.or.kr)

찾아가는 길

버 스 :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성북구립미술관-쌍다리 정류장에서 하차.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쌍다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3분.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20분.



우리옛돌박물관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3길 66

2015년 11월에 개관한 우리옛돌박물관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석조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건립한 국내 최초의 석조전문박물관이다. 전시구성은 1층 환수유물관과 2층 동자관, 벽수관, 자수관, 3층 기획전시관과 무병장수의 길, 돌의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조유물뿐만 아니라 규방문화의 결정체인 자수 작품과 한국근현대회화 전시도 함께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국의 옛 돌조각을 사찰의 장식이나 묘제석물로만 여기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선조들의 철학과 지혜를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중점을 두어 전시했다. 이밖에 오랜 시간 공들여 수집한 한국 여인들의 삶의 기록이자 규방문화의 결정체인 다양한 형태의 자수 공예품과 김정희·변관식·김환기·이우환 등 한국미술사를 장식한 유명 작가들의 미술작품들을 누구나 가까이에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에 휴관한다. 관람료는 성인 7천원이나 연회비 1만원을 내면 연중 무료로 횡수 제한 없이 입장 가능하다. (홈페이지 : www.koreanstonemuseum.com)

찾아가는 길

지하철→버스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02번 마을버스를 이용, 정법사·우리옛돌박물관 정류장에서 하차.

혜화역과 안국역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가 하루 세 차례씩 운행.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등록문화재 제65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4길 3

한국 가톨릭 최초의 내국인 수도자를 위한 남자 수도회인 ‘한국 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본원 건물로서, 한국인 방유룡 신부의 설계로 1955년 건립되어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크다. 전형적인 라틴십자가(Latin Cross) 평면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은 후진(Apse)의 평면을 일반적인 성당에서 볼 수 있는 반원형 대신 타원형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제단 상부 돔 역시 반원형이 아닌 타원형 반구로 조성되는 등 다른 성당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15년 12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수도회 복자사랑 피정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1층 자료실, 2층 응접실, 3층 성당으로 꾸며져 있다. 이 건물에서 눈여겨 봐야 할 곳은 건물 외벽의 순교자상이다. 한국의 순교복자 김대건 신부, 정하상(바오로), 조신철(가롤로), 유진길(아우구스티노) 등 12명의 순교자상이 외벽에 설치되어 있다. ‘최초로 조각된 한국 순교자상’으로 알려진 이 조각상들의 종교적, 문화재적 가치 또한 상당하다. (홈페이지 : www.brotherhood.or.kr)



찾아가는 길

버 스 : 1111번, 2112번 버스를 이용, 성북구립미술관·쌍다리 정류장에서 하차. 03번 마을버스를 이용, 쌍다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3분.

지하철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 6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20분.



정법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44

정법사는 원래 종로구 가회동에 있던 건봉사(乾鳳寺)의 포교당이었는데 1960년 이곳의 조그만 암자인 복전암(福田庵)으로 이전하였다. 본래 정법사가 위치했던 가회동은 수행처로 적합한 분위기가 아니었으므로 이 암자를 인수하여 정법사로 개칭한 것이다. 이곳에 있었던 복전암이 언제 어떻게 창건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현재 정법사에 봉안되어 있는 범종과 열반도(涅槃圖)가 1922년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들이 복전암의 유물이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다. 정법사 부근의 요정 대원각이 원래 후궁 터였다는 점에서 복전암이 후궁들의 기도처였던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정법사는 대웅전 · 팔상전 · 사천왕문 · 산신각 · 요사 3동 등 7채의 건물 외에 미륵불상이 세워져 있다. 대웅전은 정법사가 이전해 올 당시 서대문 신학대학에 있던 황태자궁을 이전해 온 것이다. 내부에는 석가모니불 · 지장 · 관음 등의 불상과 1918년에 그려진 열반도 · 후불탱화 · 현왕탱화 등이 있으며, 1969년에 건립된 팔상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과 청동으로 만든 천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홈페이지 : www.jbtemple.org)

찾아가는 길

지하철→버스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02번 마을버스를 이용, 정법사우리옛돌박물관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2분.

길상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삼청각, 오진암과 함께 최고급 요정의 하나였던 대원각 자리에 세워졌다. 성북동 깊숙한 산자락의 대원각의 소유주였던 고故 김영한 여사가 7천여 평의 대지와 건물 40여 동의 부동산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해 길상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김 여사의 유해 또한 화장되어 이곳에 뿌려졌다.

1997년에 길상사 개원법회를 봉행하였고, 이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의 경전과 수행법을 좀 더 알기 쉽게 체험하는 시민선방 ‘길상선원’을 개원했다. 길상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사찰을 돌아 보는데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또한 불도 체험, 수련회 등의 프로그램과 어린이 미술대회, 대중가수의 콘서트까지 개최하는 등 도심 속 문화공간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의 근본 도량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 kilsangsa.info)

찾아가는 길

지하철→버스 :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02번 마을버스를 이용, 길상사 정류장에서 하차.



성북동 연표

조선시대

한국사의 주요 사건	연도	성북동의 주요 사건
조선 건국	1392년(태조 1)	
한양도성 축조	1396년(태조 5)	홍화문(현 혜화문)과 숙청문(현 숙정문) 건립
	1413년(태종 13)	선잠제와 선농제를 중사中祀로 규정
도성 수축	1422년(세종 4)	
	1424년(세종 6)	세종,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함
	1511년(중종 6)	홍화문을 혜화문으로 개칭
임진왜란	1592년(선조 25)	
병자호란	1636년(인조 14)	
도성 수축	1704년(숙종 30)	
	1744년(영조 20)	임진왜란 때 파괴된 혜화문 문루를 중건
수성절목 (守城節目) 반포	1751년(영조 27)	
	1766년(영조 42)	어영청의 성북둔 설치
	1767년(영조 43)	포백업(마전) 시작
	1768년(영조 44)	훈조막 설치
	1784년(정조 8)	체재공 일행, 성북동 유람
	1805년(순조 5)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재발급
경복궁 중건	1865년(고종 2)	
조일수호조규(강 화도조약) 체결	1876년(고종 13)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1894년(고종 31)	(행정구역 변동) 한성부 동서(東署) 송신방 동소문외계 성북동
을사늑약	1905년(광무 9)	
	1908년(융희 2)	선잠단의 신위를 사직단으로 이전 삼산학교 설립

일제강점기

한국사의 주요 사건	연도	성북동의 주요 사건
한일강제병합	1910년 (융희 4)	
	1911년	(행정구역 변동)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 성북동
	1914년	(행정구역 변동)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3.1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1923년	성북구락부 조직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 동맹[KAPF] 결성	1925년	성북구락부 임시총회 개최
6.10만세운동	1926년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 발간
신간회 설립	1927년	성북소년회 조직
	1928년	해화문 문루 철거
신간회 해소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 동맹[KAPF] 해산	1931년	
이봉창 · 윤봉길 의거	1932년	
구인회 결성	1933년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짓고 이사음 소설가 이태준, 수연산방을 짓고 이사음 성북유치원 설립
	1934년	화가 김용준, 성북동으로 이사 전형필, 복단장 건립
구인회 소멸	1936년	(행정구역 변동) 경성부 성북정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돈암지구에 성북정 포함 영명학교 설립 성북정회, 신규 요정 철폐 · 수도 부설 · 버스 운전 시간 연장 요구
종일전쟁 개시	1937년	만해 한용운 일송 김동삼의 장례를 치름 (조현영, 조지훈 부자 참여)
	1938년	성북정회, 전염병원 설치 반대운동 전형필, 보화각(현 간송미술관) 건립
월간 문예잡지 『문장』 창간 (발행인: 김연만, 주간: 이 태준)	1939년	해화문 석축 철거 선잠단, 보물 제17호 지정
광복군 창건	1940년	

일본, 진주만 기습	1941년	성북동 산림지역, 풍치지구로 지정됨 혜화로터라-돈암동까지 전차 노선 연장
	1942년	삼산학교, 공립국민학교로 전환
	1943년	(행정구역 변동)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944년	(행정구역 변동) 경성부 동대문구 성북정 만해 한용운 심우장에서 입적(6.29) 김용준, 김환기 · 김향안 부부에게 노시산방을 팔

현대

한국사의 주요 사건	연도	성북동의 주요 사건
8.15 해방	1945년	
	1946년	(행정구역 변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북동 삼산학교, 경성성북공립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조지훈, 박목월 · 박두진과 함께 『청록집』 발간 이태준 월북
제주 4.3사건 대한민국정부 수립	1948년	
	1949년	(행정구역 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 2가 구분)
한국전쟁 발발	1950년	인민군 서울 점령(6.28~9.28)
	1951년	김영한, 청암장을 인수하여 대원각 설립
휴전협정	1953년	작곡가 채동선 별세(성북동 183-17) 작곡가 윤이상, 성북동 128-13으로 이사옴
	1954년	성북고등학교(현 홍익사대부고) 개교 김기창 · 박래현 화백 부부, 성북동 55-1로 이사옴 김수영 시인, 성북동으로 이사옴(이듬해 6월까지 생활)
	1955년	(행정구역 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1, 2동으 로 분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본원 준공(성북동 90)
4.19 민주혁명	1960년	정법사, 현재 위치(성북동 330)로 이전
5.16 군사정변	1961년	김광섭 시인, 성북동 168-34로 이사옴
	1962년	전형필 별세
	1963년	소설가 염상섭 성북동 145-52에서 별세 한양도성, 사적 제10호로 지정 선잠단지, 사적 제83호로 지정

	1966년	김광섭 시인, 동소문동으로 이사감
	1967년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 외인택지 책정 성북천 복개공사 착공(삼선교~성북경찰서)
1.21사태	1968년	조지훈 시인 별세(성북동 60-44에서 발인) 북악스카이웨이 개통
	1969년	김광섭, 시집 『성북동 비둘기』 발간
경부고속도로개통 전태일 분신	1970년	삼청터널 개통
	1971년	간송미술관 특별전 시작 동원미술관(관장: 이흥근) 종로구에서 성북동으로 이전
7.4 남북공동성명 유신헌법 공포	1972년	삼청각 준공 삼청각에서 남북조절회의 만찬
	1976년	최순우, 성북동 126-20으로 이사옴
	1977년	풍치지구 일부 해제 성북천 복개공사(삼선교 상류 180m) 이종석 별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0호로 지정 상허 이태준 가옥,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11호로 지정 김광균 시인, 성북동 330-365로 이사옴
5.18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변종하 화백, 성북동 330-484로 이사옴
	1981년	이흥근, 유물 4,941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1984년	심우장, 서울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 별세
6월 항쟁	1987년	
'88 서울올림픽 개최	1988년	
	1993년	선잠제향, 85년 만에 재현
	1996년	성북문화원 개원 한국가구박물관 개관
IMF 구제금융 요청	1997년	길상사 개원
	1998년	성북로 확장 공사
	1999년	김영한 여사 별세
6.15 남북정상회담	2000년	변종하 화백 별세
	2001년	변종하미술관 개관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2002년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최순우 옛집 구입
	2004년	최순우 옛집 개관
	2006년	최순우 옛집, '등록문화재 제268호'지정 숙정문 탐방로 개방 옛 미륵암(태고사) 자리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개교
10.4 남북정상회담	2007년	(행정구역 변동) 성북1동, 성북2동,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4가를 성북동으로 통합하여 관할
	2008년	성락원, 명승 제35호로 지정
	2009년	북정마을 제1회 '월월축제'개최 성북구립미술관 개관
	2010년	서울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법정 스님, 길상사에서 입적
	2013년	성북동, 서울시 최초 '역사문화지구'로 지정
	2014년	삼청각,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
	2015년	우리옛돌박물관 개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등록문화재 제 655호로 지정 북정마을, 성북동 국시집,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

찾아보기

ㄱ

간송미술관 | 54, 55, 87, 124, 174, 177, 229, 237,

238, 239, 242, 243, 272, 273

강릉 | 18, 26, 27, 28

갤러리 스페이스 오뉴월 | 183

경성도시계획 | 75, 76

경성전기주식회사 | 99, 100, 101

경신고등학교 | 21, 25, 26, 27, 28, 194

고급주택 | 162, 163, 165, 167, 168, 170, 182

고희동 | 211, 214, 238, 240, 241, 242, 245

교남골 | 64

구두회 | 170

구인회 | 12, 223, 229, 230, 232, 233, 234, 245,

270

구준봉 | 8, 264

금녕약국 | 49

길상사 | 144, 152, 164, 168, 169, 174, 182

김경중 | 121

김광섭 | 156, 158, 159, 161, 246

김구주 | 51, 52

김기진 | 86, 123

김기창 | 150

김동삼 | 202, 203, 204, 205, 206, 207, 209

김동섭 | 78, 79, 80, 81, 82

김수영 | 105

김영한 | 144, 145, 168

김용준 | 147, 178, 185, 198

김우창 | 253

김일 | 144

김일엽 | 86, 114, 123

김향안 | 211, 212, 227, 228

김환기 | 210, 211, 212, 216, 217, 218, 219, 220,

221, 224, 225, 226, 227, 228

평의바다 | 162

ㄴ

나폴레옹과자점 | 172, 173

납북 | 147, 198

내장원 | 50

노산방 | 178, 202, 210, 222

ㄷ

「달밤」 | 83, 84, 123, 124, 132, 134, 138

대교단지 | 162

대사관로 | 184

대사관저 | 163, 172, 178, 184

대원각 | 144, 145, 164, 168, 186, 197

덕수교회 | 57, 88, 177, 266

도둑굴 | 43

도둑촌 | 163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228

동회 | 142, 143, 144

ㄹ

목만중 | 60, 62, 66

『무소유』 | 168

문인촌 | 12

『문장』 | 11, 223, 224, 250

문화의 거리 | 178

미아리고개 | 8, 18, 78, 193

민영환 | 11, 56, 97, 127

ㅂ

바라크 건물(빠락) | 152, 153

박래현 | 150

박명환 | 110

박제가 | 128, 193

박태원 | 230, 232, 233

배발굴 | 152

버스 | 149, 168, 172, 174, 176, 178, 183, 184, 187,
189

법정 | 144, 168

벽화 | 178, 179, 180

별서 | 56, 57, 58, 264

별장 | 264, 266, 267

보화각 | 12, 14, 147, 238, 239, 240, 241, 243, 272

『봄』 | 251, 252, 253

북단장 | 289

북둔도화 | 51, 53, 55, 56, 59, 63

북저동 | 53, 54, 56, 57, 60, 62, 66, 67

북정마을 | 152, 189, 190, 191, 192, 194

북한산 | 41, 164, 175, 264

『불교』 | 203

불량주택 | 152, 155

빨레장 | 239

人

사한이 | 33

삼산의숙 | 104, 105, 106, 108

삼산학교 | 89, 91, 93, 104, 105, 106, 107,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4, 134

삼산학교유지후원회 | 117, 118, 119

『삼천리』 | 86, 87, 88, 96

삼청각 | 184, 185, 186, 187

삼청터널 | 162, 163, 184

상수도 | 12, 124

서광훈 | 89, 90, 91, 92, 112

서세옥 | 173, 214, 219, 228, 278, 279

선잠단지 | 174, 177, 181, 182, 194

선잠로 | 182, 183, 184

선잠제향 | 10, 36, 37, 38, 262

성락원 | 11, 12, 14

성북2구역 재개발 | 190

성북구락부 | 89, 90, 91, 92, 93, 112, 142

성북구립미술관 | 177, 245, 267, 278, 279, 283

『성북동 비둘기』 | 156, 158, 159, 161

성북동 산 25번지 | 159, 160

성북동역사문화지구 | 179

성북동의 아름다운 사람들(성아들) | 179

성북동천 | 183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 10, 46

성북둔(북둔) | 40, 43, 44, 45, 50, 51, 52, 53, 55,

58, 59, 63, 65

성북로 | 172, 173, 175, 178, 179

성북문화원 | 169, 170, 198

성북소년회 | 91

성북야학원 | 91

성북 우정의 공원 | 178, 179

성북유치원 | 93, 94

성북적천 | 109

성북정회 | 92, 94, 95, 96, 98, 102, 103, 112, 115,

118

성북천 | 124, 129, 133

성북초등학교 | 105, 120, 140

세종 | 22, 23, 24, 26, 33

「손거부」 | 123, 128, 132, 134

손재형 | 243, 279

손진태 | 147

송동 | 44

「수성절목守城節目」 | 41

수연산방(상허 이태준 가옥) | 14, 123, 124, 128,

129, 133, 177, 194, 229, 232, 233, 234, 235, 270,

271

숙정문(숙청문) | 10, 194

순성길 | 193, 194

심우장 | 14, 57, 123, 128, 141, 178, 185, 189, 194,

202, 203, 206, 207, 208, 209, 238, 268, 269

쌍다리 | 177, 178, 179, 267, 271, 283

○

안재홍 | 147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250, 258

연운대 | 46, 67

영조 | 10, 15, 40, 41, 43, 44, 45, 51, 53, 94

오로정 | 56, 57, 58

오세창 | 13,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우리옛돌박물관 | 184, 187, 280

윤수교 | 53

월북 | 123, 146, 198, 216, 229, 233, 234, 270

월월축제 | 189, 192

유숙원 | 203

윤동절 | 43

윤이상 | 150, 156

음벽정 | 56, 87, 94, 95, 96, 97, 127

의친왕 이강 | 11, 14, 56, 127

이광수 | 185

이낙현 | 50

이덕무 | 127

이병도 | 122

이봉재 | 145

이순황 | 240, 242

이승만 | 143, 173, 174

이신구 | 92, 93, 94, 95, 98, 102, 103, 112, 113

이원우 | 113

이종석 별장 | 88, 127, 177, 266, 291

이태준 | 12, 13, 14, 83, 84, 86, 123, 124, 126, 128,

133, 134, 137, 138, 141, 177, 185, 198, 211, 222,

223, 224,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67, 270

이학수 | 35

이현구 | 249

ㅈ

자성회 | 143

『자유문학』 | 250, 251, 260

작은형제회 수도원 | 182, 183

장승업 | 173, 174, 214

장인근 | 112

장훈 | 57

재벌 | 14, 57

『저녁에』 | 250, 253, 257

전염병원 | 102

전차 | 77, 99, 100, 101, 102, 149, 219

전형필 | 12, 14, 87, 147,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72

정기용 | 171, 196, 197

정법사 | 182, 281, 284, 285

정종 | 30

정지용 | 211, 223, 224, 230, 232, 233, 267, 270

젠트리피케이션 | 194, 195, 196, 199

조소앙 | 145, 146, 147, 148, 198

조정래 | 148, 149

조지훈 | 150, 156, 174, 176, 202, 206, 207, 208,

223, 224, 227, 228

조태우 | 144

조현영 | 202, 205, 206, 207, 208, 223

중산층 | 12, 13, 128, 137

ㄷ

채석장 | 134, 137

채제공 | 54, 55, 60, 61, 62, 128

청룡암 | 185, 186

청암장 | 144, 145, 152, 160, 198

청운교 | 53

최순우 | 14, 147, 174, 175, 181, 194, 242, 243,

248, 274, 275

최순우 옛집 | 14, 174, 175, 181, 194, 242, 243,

274, 275

ㄱ

카프(KAPF) | 12, 229, 233, 235, 236, 245

칸 파운데이션 | 182, 183

ㄴ

토막민 | 130, 131, 132, 134, 136, 137, 141

토지구획정리사업 | 73, 124

ㄷ

판자집(판자촌) |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59, 160, 161, 189

폐쇄토지대장 | 208

풍치지구 | 77, 78, 81, 138, 156, 159, 160, 161

ㅎ

하윤실 | 113, 114, 118, 120

『한경지략(漢京識略)』 | 51, 127

한국가구박물관 | 182, 184, 187, 188, 276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133, 177, 179, 282

한국전쟁 | 13, 143, 146, 147, 150, 152, 159, 186,

189, 207, 243

한양도성 | 8, 10, 18, 21, 22, 26, 28, 33, 44, 164,

179, 189, 190, 194, 199, 223

한용운 | 12, 14, 123, 128, 141, 178, 202, 203, 204,

205, 206, 207, 209, 228, 245, 268

혜화동 | 18, 21, 29, 78, 128

혜화문(동소문) | 8, 10, 18, 19, 20, 21, 33, 42, 43,

48, 53, 63, 68, 75, 78, 79, 91, 98, 115, 120, 123,

127, 141, 185, 186, 193, 194

홍봉한 | 43, 45

홍태윤 | 108

황수연 | 104, 105, 106, 108, 110

효재 | 182

흥덕동 | 44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그림 중에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는 대로 정식으로 게재 허가 절차를 밟고 사용료를 지불하겠습니다.

성북동 역사문화탐방 안내지도



정릉2동
Jeongneung 2-dong



- | | |
|---|---|
| 현위치
You are here | 대학교
University |
| 안내소
Information Center | 우체국
Post Office |
| 무인관광안내시스템
Tourist Information Kiosk | 파출소/치안센터
Police Stand / Community Security Center |
| 지하철 4호선
Subway Line No. 4 | 관공서
Government Office |
| 서울 한양도성문
Seoul City Wall Gate | 사찰
Temple |
| 서울 한양도성
Seoul City Wall | 교회/성당
Church / Catholic Church |
| 집터
House Site | 공원
Park |
| 문화재
Cultural Assets | 화장실
Toilet |
| 박물관/미술관
Museum | 2번 마을버스 노선
Bus line NO. 2 |
| 학교
School | 3번 마을버스 노선
Bus line NO. 3 |